제주불교성지순례
성지순례전문 .....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6

현대불교

山村한과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720-8829 / 쇼핑몰 : www.sanchon.com
미리주문하세요!!

news.buddhapia.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12월 25일 수요일(주간) 제401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대통령 당선자에 주는 喝

1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우리의 손으로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21세기 첫 대통령을 뽑았고, 혼탁 없는 선거혁명을 이루어 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앞으로 들어 설 새 정부에 기대가 크다.

산사에 계신 큰 스님들이, 노무현 당선자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국가지도자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새 대통령에게 주는 덕담을 보내왔다.

도원(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보성(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수(황대선원 조실) 일우(태고종 원로회의 의장) 천운(대흥사 조실) 수산(조계종 원로의원)스님 등 원로스님들은 노 당선자에게 "무릇 대통령은 올바른 정치를 펼쳐 국민들 삶의 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스님들은 지역적인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역주의와 연고주의 정치를 청산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했다. 민심은 천심인 만큼 장관이나 비서관들의 충언을 되새겨 듣고, 시비를 초월한 대자대비의 정치로 금권과 비리가 없는 정토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도자는 내가 제일이라는 아상을 버리고 민족의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혜안을 가져달라고 했다.

혜안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 깊은 산사에 계신 스님들이 한결같이 당부하는 말도 하심 하라는 것이다.

새 대통령 앞에 과제가 산적해있다.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할 실제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불교계와의 약속을 비롯 국민들에게 제시한 청사진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국정운영에 혼신의 힘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 관련기사 3면

김원우(취재1부 차장)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32)937-5679
강릉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밀양: (055)353-1196

비구니스님들 위상 높아진다

포교 · 복지 · NGO는 물론 군승의 문도 열릴듯

주변만 맴돌던 시대는 지났다. 활동력과 그 영역이 크게 넓어지면서 비구니 스님들은 이제 불교발전의 당당한 '중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포교, 복지, NGO 분야의 활동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비구니스님들에게는 철통과도 같았던 군승의 문도 열릴 전망이다. 바야흐로 '비구니 스님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류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은 16일 '군 포교비전 21'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비구니 스님의 군승 파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도 비구니 상임감찰을 임명해 비구니 스님관련 사건을 조사토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총무원 호법부 비구니 상임감찰 추진
행자교육원 사상 첫 '사미니율의' 강의

사실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영역은 눈에 띄게 넓어졌다. 올해 불교계 최대 현안이었던 북한산 관통도로 및 천성산 · 금정산 고속철 건설 반대운동의 핵심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있었다. 복지분야의 경우 최근 2년 새 복지관 관장을 포함한 시설장이 6명이나 늘었다.

군승과 마찬가지로 비구니 스님들에게는 문턱이 높았던 경승분야에서도 최근 2~3년 새 5명가량 늘었다. 2년여 전 실시됐던 조계종 16기 행자교육원에서는 행자교육원 사상 처음으로 비구니 스님이 <사미니율의>를 강의하기도 했고, 비구니 선원도 증가추세에 있다. 수동적이고 제한적이었던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과거지사다.

2002년 12월 현재 조계종 승려수는 사미 1,768명, 사미니 1426명, 비구 4,269명, 비구니 4,291명으로, 수치로 본다면 비구니가 비구 보다 많다.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야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94년 개혁종단 이후 중앙종회의원에 10석이 배분됐고,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에 안배차원에서 2명의 비구니 스님을 국장급 보직에 임명하고 있지만 수와 역량을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여론이 높다.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본각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과 비중은 갈수록 증대될 것이며, 따라서 이들 스님들이 불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다양하게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 대통령 당선
"대통합의 시대 열것"

제16대 대통령에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다.

노 후보는 19일 전국 244개 개표구별로 진행된 개표결과 48.9%인 1천201만4천277표를 획득, 46.6%인 1천144만3천297표를얻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노 후보는 20일 당선이 확정된 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찬 새 역사가 시작됐다"며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진정한 보통사람들의 사회를 만들고, 7천만 온 겨레가 하나가 되는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당선자는 △북한산 관통도로 경부고속철 전면백지화 △황룡사 미륵사 복원 △불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의 불교계 공약을 제시한바 있다.

<관련기사 3면>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20일 노 당선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대스님은 축하 메시지에서 "21세기 첫 대통령에게 바라는 국민적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지적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지도자이자, 밝고 어진 정치로 늘 신뢰받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한반도 평화 · 통일 선언문
남 · 북 불교계 WFB서

남북 불교계가 말레이시아 세랑고에서 열린 제 22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선언문'을 채택했다.

11일 조계종(총무원장 정대)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은 '한국의 통일은 오직 남북한 주민들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한국의 통일을 지지하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온 모든 참가자들의 이름으로 밝힌다'는 내용이 담긴 선언문에 공동 서명했다.

이번 대회에서 WFB는 조계종을 한국지역 본부로 가입시켰다.

남동우 기자

2002년을 빛낸 불자들 6면
본지선정 불교계 10대 뉴스 7면
연말 · 연시를 기도처에서 ..... 14 · 15면

'불신 · 원망 말고 평화의 지구촌 되길"

정대 총무원장, 크리스마스 축하 메시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기독교인들에게 드리는 축하메시지'를 17일 발표했다.

정대스님은 축하메시지에서 "인류는 다양한 가치와 신념이 충돌하면서 폭력과 전쟁으로 수많은 죄없는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때야말로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의 정신이 더욱 절실하다"며 "예수님 오신 날을 맞아 참사랑과 평화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불신과 원망을 걷고 사랑과 평화의 지구촌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구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도 지역불교 관계자들과 함께 25일 대구 계산성당에서 열리는 성탄절 미사에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영남불교대는 22일 사찰 앞마당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한명우 기자



"탁발 통해 이웃사랑 일깨워요" 삭발을 하고 승복을 입은 통도사 양산포교당 연화유치원생 8명이 고사리 손으로 받쳐 든 발우에 천원, 5천원의 정성이 담겨졌다. 양산시불교연합회(회장 도봉) 주최의 불우이웃돕기 탁발행사에는 유치원생들과 양산불교연합회 회원사찰 스님 20여명등 총 30여명이 탁발로 2백4만9천원을 모았다. 양산불교연합회는 18일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양산시 사회복지과에 전달했다. 양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불교계에 '일간지'가 없다?…buddhanews.com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불교계 뉴스 · 날씨 · 쇼핑 · 신행정보 등 푸짐

매일 신선하고 정확한 불교소식을 전해온 붓다뉴스가 2003년을 맞아 일간 불교전문 인터넷 신문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현장의 숨소리까지 전하는 뉴스** : 20여 취재기자와 5명의 해외 통신원이 현장에서 건져올린 싱싱한 뉴스들을 전하는 붓다뉴스는 불교소식의 가장 빠른 전달자로 다가갈 것입니다.

▲ **취재기자와의 1:1 만남** : 기자 커뮤니티를 통해 취재 기자와 만날 수 있는 공간, 직접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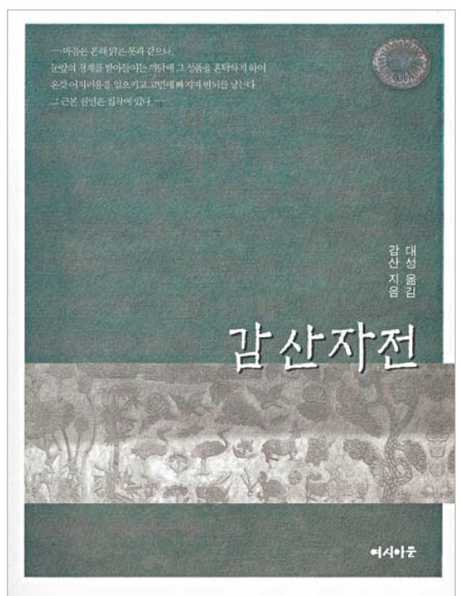
▲ **생활정보가 가득** : 날씨에서 알뜰쇼핑정보까지 다양한 생활정보를 여기저기 클릭하지 않아도 '붓다뉴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신행정보** : 신행캘린더를 클릭하면 신행 정보가 날짜별로 쏟아져 나옵니다.

▲ **재미있는 기획연재** : 붓다뉴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유익하고 신선한 연재물 들이 불교공부와 신행의 재미를 더해 줍니다.

"붓다뉴스의 새 얼굴과 만나면 즐거움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감산대사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도(道)를 말할 수 없다. 대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잊기 쉽다.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도를 말하겠는가? 사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마땅히 가야 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감산노인자서연보실록憨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감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平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 전기傳記라기보다는 년年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열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지은이 감산 (憨山, 1546~1623)스님은 운서 주굉, 자백 진가, 우익 지욱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회 無遮會를 열어 법을 설하자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曹溪에 머물면서 선禪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廬山 오유봉에 법운선사法雲禪寺를 건립했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옮긴이 대성 (大晟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참선요지』와 『방편개시』(여시아문)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관련서적들을 '아루나찰라 총서'(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02-732-1521 / Fax 02-737-0696

사 설

대불련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생 불교회의 연합체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가 차기회장단을 구성하지 못했다는 소식이다. 대불련은 차기 중앙회장 입후보자가 없어 '비상집행위원회'를 구성, 내년 2월 열리는 지부장단 회의에서 차기 회장 선출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회장 입후보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대불련 4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불련의 조직과 활동이 지난 90년대부터 점점 침체돼가고 있다. 지회가 없는 대학도 늘어나고, 설혹 있더라도 활동이 부실하거나, 신입회원이 없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대불련의 침체는 시대적 현상의 반영이랄 수 있다.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해 전체적으로 대학동아리 활동이 위축돼 가고 있으며, 특히 종교동아리들이 외면당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 그동안 불교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온 것이 대불련 위축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불교계는 그동안 불상과 법당, 범종 등 하드웨어적 불사에는 엄청난 공을 들이고 신도들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었지만, 인재키우는 불사에는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대불련이 활성화되려면 어린이 법회부터 탄탄해야 한다. 불자어린이들이 중고등부 법회, 중고등학생들이 대불련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대불련 회원이 늘어나고 역량이 강화될 때 군불교와 직장직능 불자회, 사찰신도회가 활발해 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린이 법회조차 없는 사찰이 대부분이다.

이번 대불련의 일을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종단과 사찰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포교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한해를 보내며…

회한과 설렘이 교차하는 때다. 하지만 우리네 삶은 '그때 만약 이랬더라면…' 따위의 가정이나, '다 잘 될 거야' 하는 식의 근거 없는 전망을 허용치 않는다. 누구도 인과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살아낸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올 한 해 동안 한국 불교계는 참 많은 일들을 해 냈다.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주말 수련 프로그램을 갖추었고, 전례 없는 열광으로 한민족의 저력을 확인한 월드컵 기간 중에는 템플스테이를 통하여 세계인에게 한국 고유의 문화를 알리기도 했다. 이어진 부산 아시안 게임과 부산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에서도 자원봉사를 통한 불자들의 활약은 돋보였다. 또한 북한산 관통도로를 저지하기 위해 천막 법당을 세우고 끝내 차기 대통령 당선자로부터 백지화를 이끌어낸 것도 특별히 기억할 만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사회의 흐름과 함께 했다는 점이다. 사회적 문제에 둔감했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커다란 변화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가 불교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며, 불교는 세상의 구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속도와 경쟁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적어도 절에서 만큼은 세간의 아귀다툼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푹 쉬면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이익 집단간의 대립이나 자본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지점을 확보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2003년 한국 불교계가 화두로 삼을 일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전통사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조계종, 정보화사업단 설립… 내년부터 3년간

관광문화 인프라·콘텐츠개발 핵심사업

862개사찰 역사·전설·문화재 등 DB화

조계종이 한국불교정보화사업단을 설립하고 전통사찰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조계종은 17일 종무회의를 열어 '한국불교정보화사업단'(이하 정보화 사업단)을 발족키로 하는 한편, 내년 1월 하순경 발족식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정보화 사업단 위원장을 맡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도현스님은 "정보화 사업단은 전통사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국내 관광문화 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을 핵심사업으로 전개하게 되며, 불교 사찰 및 단체의 IT인프라 구축, 종단 본·말사 지식 정보화 사업지원, 불교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의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전통사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통사찰종합정보시스템이란 전국 862개 전통사찰의 역사와 전설, 건축구조, 소장 문화재 사진(동영상), 전통문화생활, 위치 등의 종합정보를 DB화하고 인터넷 상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해 불교 전통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보 60건, 보물 386건, 천연기념물 14건, 지방문화재 608건, 문화재자료 297건 등 전통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지정 불교문화재를 비롯해 미지정 문화재 3만 여건도 포함된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이며, 국고 17억2천여만원과 민자(조계종 예산, 기업체, 일반 후원금) 17억3천여만원 등 모두 34억5천7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총무원 기획실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부장과 포교부장, 동국대 역경원, 고려대장경연구소, 사찰문화연구원 인사들을 포함하는 '불교정보화정책위원회'와 기획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원 실무자 등 9인의 '사업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금명간 웹마스터, 콘텐츠 개발팀장, 디자이너 등 8명의 사업단 실무팀을 구성해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봉은사 조사특위 17일 전체회의 개최

24일부터 현장조사 실시

조계종 중앙종회 봉은사 조사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4일부터 15일간 봉은사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결의했다. 특위는 특위 발족과 동시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조사와 서류조사 등 지금까지 세 차례 조사를 벌였으나, 봉은사의 비협조로 실질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위는 또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봉은사에 대한 총무원 자체 감사에 참여했던 실무자들을 감사기간동안 파견해줄 것을 총무원측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감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봉은사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장 명의로 경고공문을 보내는 한편, 총무부와 종회사무처도 조사협조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그러나 특위는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에 대한 소위원회의 징계 요청에 대해서는 24일부터 시작되는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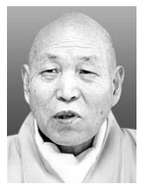
'현대' 만평 박 구 원



사찰의 모든것을 한눈에

정일스님 이사장 재추대

선학원, 17일 이사회



(재)선학원(이사장 정일)은 17일 중앙선원 2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내년 1월 3일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일 스님(사진)을 차기 이사장으로 재추대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새 이사에 송산스님(인천 보각사 주지), 대운스님(양주 지장사 주지), 정수스님(서울 북악사 주지)을, 감사에 영진스님(서울 법수선원 주지), 보관스님(대전 복전암 주지)을 선임했다. 한명우 기자

교과서 불교왜곡 '백서' 발간

조계종 총무원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이 개편된 교과서를 분석해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나타난 초·중·고교 불교관련 기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백서>(이하 <백서>)를 발간한다.

12월말 발간 예정인 <백서>는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부설 청소년문화연구소에서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된 '제7차 교육과정 초·중·고 교과서 불교교리 오류 및 종교편향 서술 실태분석' 세미나의 성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관련기사 27면) 김두식 기자

수행체계 연구·기본교육기관 재정비

조계종 교육원 내년사업

조계종 교육원이 내년부터 수행체계 연구 및 기본교육기관 재정비에 나선다.

교육원은 16일 오후 교육원장실에서 제60차 교육원 회의를 열고 △출가 종책 수립 및 홍보 △기초교육관리운영강화 △기본교육기관 재정비 추진 △교과목 검인정 교재편찬 및 발간 △승가고시 체계화 및 시행 △교육원 전산화 및 통계화 사업 △3급 승가고시 산림 △본말사주지연수 △선원관리 △수행체계 연구 △조계종사 고증세편 발간 △승가제도 연구 등을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수행체계 연구와 기본교육기관 재정비는 조계종의 수행체계 및 교육체계를 재검토하고 현재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다는 의미를 띠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원은 △교육원 전산화 및 통계화 사업 △출가종책수립 △제1회 중급지도자 연수 △전통산림 △선사 행장조사연구 △역경 종책연구 등 6가지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한명우 기자

신년포교 전진대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1월 4~5일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신년포교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새해 조계종 포교 종책 발표와 신도·포교단체의 사업성과 및 계획, 포부를 밝히는 자리로, 포교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토대 형성 등 포교의 활성화를 위한 교류 및 다짐의 장이 될 전망이다. 박봉영 기자

사미승 군승복무 의무화 추진

군법당용 전산프로그램 보급

조계종 포교원, '군포교 비전' 발표

조계종 포교원은 군불교 활성화를 위해 신도 배가와 교육강화, 군승의 효율적 관리·충원 등을 골자로 하는 '군포교 비전21'을 16일 발표했다.

군포교 비전21에 따르면, 조계종은 군불교위원회를 중심으로 군불자들의 양적인 성장은 물론 신도교육 강화, 조직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군포교의 주체인 군법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보완, 사미승 군승 복무 의무화 제도와 비구니 스님의 군승 파견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3월부터 군법당용 전산운영 프로그램을 보급, 행정체계 통일과 신도관리체계 확립, 투명한 재정운용 등도 실현해 나가는 한편 군포교 지원단체와의 네트워크화와 1사찰 1군법당 자매결연, 군법당 후원회원 모집 등 후원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노무현 당선자에 주는 큰스님들의 법담

마음과 귀 열고 국민을 부처님처럼…

삼독심 버리고 중도의 정치를

도원스님(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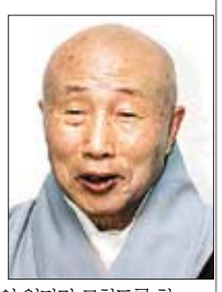
나라에 덕치(德治)와, 법치(法治)의 바람이 불면 백성들은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요, 인치(人治)의 바람이 불면 백성들이 고통의 바다를 헤매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앞으로 새 대통령은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있어 덕과 법의 바람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덕치와 법치의 정치를 행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탐진치(貪瞋癡) 삼독심(三毒心)을 버리고 불법의 중도관(中道觀)처럼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 없이 사사로움을 배재한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또, 새 대통령은 과거 실망스런 정치를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백성 보기를 부처님 보듯 해 돈이 없어, 권력이 없어 억울함을 당했다는 백성이 하나도 없는 공명정대하고 올바른 정치를 펼쳐 나가야 합니다.

소외된 이웃 우선 보살폈으면

성수스님(황대선원 조실)



옛 임금들은 용상(龍床)에 앉아 위엄만 세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백성들과 나이 많은 노인들을 금쪽같이 아꼈습니다. 새 대통령도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살폈으면 합니다.

새 대통령이 된 사람은 절대로 국민을 험담하거나 폄하해서는 안됩니다. 대장부라면 남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행여나 백성의 허물을 폭로해서 국제적인 나라 망신을 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못난 국민도 다 같은 백성입니다. 허물이 있다면 고치도록 하고 나라 밖으로 소문내지 말며, 세계에 떳떳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새 대통령은 통일 사업에도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은 경제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국민들의 양심이 그럴만한 역량이 되어야 합니다. 턱하니 만나 서로 끌어안고 화해하면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립니다. 내가 제일이라는 아상(我相)과 인상(人相)을 버리고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면 통일은 멀지 않습니다.

'민심이 천심' 명심, 공약 지키길

천운스님(해남 대흥사 조실)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할 줄 알고, 또 국민을 무서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새 대통령은 일상생활 그 자체를 국민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꽉 채워야 합니다. 대통령은 항상 고고(孤高)하게 살아야 합니다. 국민의 말만 들으면 됩니다. 심지어 장관이나 비서관들의 충언조차도 되새겨 들으세요. 즉흥적으로 현실만 보지 말고,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지혜를 잃지 마십시오.

항상 국민의 살림살이를 잘 살피는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요. 나랏일의 초석을 튼튼히 하는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철저히 실천에 옮겨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새 대통령은 특히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야 합니다. 동서갈등이니 남북대립이니 하는 이런 말들이 아예 나올 수 없을 만큼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항시 귀와 마음을 여는 대통령이 돼야겠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 당선자의 불교계 공약

■전통사찰 보존과 수행환경 보호…북한산 관통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경부고속철도 노선 천성산 금정산 관통사업 백지화 및 대안노선 검토. 사찰 수행환경 보호 위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추진.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명시.

■인사행정에 종교 형평성 고려…문화정책과 인사행정에 있어 종교간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고려. 방송위원회나 문화재위원회등 정부산하기구 또는 국정자문기구에 불교계 추천인사 참여토록 정책적 배려.

■남북불교문화 교류사업 지원…북한 불교문화재 조사 및 복원, 남북 공동학술조사를 위한 정책적 배려와 정부지원의 확대 모색. 금강산 신계사 복원과 북한사찰의 단청불사에 적극지원.

■국가문화유산처 설립…국가문화유산처를 설립하고, 황룡사, 미륵사를 한국불교문화유산의 대표사찰로 복원하고, 복원 후 사찰운영은 불교계 위탁.

■불교문화재 보존관리…불교문화재 보전 및 관리 예산 현실화, 문화재사찰 도난 및 훼손 방지를 위해 방범 · 방화시설 설치 의무화.

■비지정문화재 전면조사…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 전면조사와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예산 및 인적지원 확대.

■문화재사범 전담반 설치…검찰청 · 경찰청 내 전문적이고 상설화된 문화재사범 전담반 설치.

■청소년 불교문화프로그램 실시…파라미타 청소년 협회 법률적 지원근거 마련. 청소년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 추진, 불교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사업 시범실시.

■불교문화 정보화사업 추진…산중사찰의 초고속 인터넷망과 불교전통문화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 지원. 불교방송 지방국 추가 개국 지원

■조계사일대 문화지구 지정…조계사 일대를 문화지구로 조성. 우정국로를 전통문화거리로 조성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인권변호사 명성…연등회 부회장 역임

1946년 경남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노판석씨와 이순례씨의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노 당선자는 독실한 불자였던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으며, 잠결에 염불소리를 듣고 깨어났다고 한다.

노 당선자는 부산상고 졸업 후 사찰에서 고시공부를 시작했다. 75년 제17회 사법고시에 합격, 77년 대전지방법원판사로 임용됐고 이듬해 변호사를 개업했다.

노 당선자의 부림사건(81년)의 변호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다. 86년부터는 시국 및 노동사건에 치중해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떨쳤다. 87년 '민주쟁취 국민운동 부산본부'의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하면서 '6월 항쟁'의 주역이 됐다.

88년 13대 총선에서 통일민주당 부산동구 공천으로 처음 국회에 진출해 '5공비리 조사특위' 청문회 활동에서 일약 '청문회 스타'로 부각됐다. 90년 3당 합당에 반대하고, 92년 3월 14대 총선, 95년 6월 부산시장 선거,96년 15대 총선(종로구)에서 연거푸 패했다. 이후 98년 7월 종로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재선 국회의원이 됐다. 99년 초 지역구도 탈피를 위해 종로 지역구를 포기하고 부산 북 강서을에서 출마했으나 패했다. 2000년 8월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다.

노 당선자는 99년 8월 부총재 시절 민주당 불자의원 모임인 연등회에 가입하여 부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노 당선자는 김해 정토원에 부모님과 장인의 영가를 모셔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인 노건평(61세)씨 부부도 이번 대선기간동안 진영 봉하마을 인근 정토원에서 기도를 올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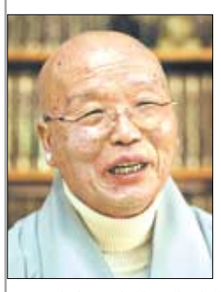
노 당선자는 본지와의 지면 인터뷰에서 "불교는 개인의 완성과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함께 완성되기 위한 고도의 철학과 실천력을 겸비한 종교"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종교로 인해 피해가 가지않는 공정한 인사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부인 권양숙 여사는 '불자임이 자랑스럽다'고 공개석상에서 공공연히 밝힐 정도로 독실한 불자다.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으로부터 대덕화(大德華)라는 법명을 받기도 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먼저 '똥' 치우는 마음가짐 필요

보성스님(조계종 전계대화상)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소?하고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배불리 먹고, 또 먹고는 여기 저기 똥을 쌌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똥을 누가 쌌는지 또 왜 쌌는지 시비하고 잘잘못만 가리려 들뿐 똥을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만 하고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똥을 치워놓고 봐야 합니다. 누가 쌌는지 왜 쌌는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누가 잘못했던지 간에 그 잘못으로 인해 생긴 악취와 여러 폐단을 하루빨리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선 손을 더럽히는 수고로움을 마다않고 그 잘못부터 해결해야 하는 게 한나라의 대통령이 된 사람의 자세요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늘 마음안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할 겁니다.

국민 위해 무엇을 할까 늘 탐구

수산스님(조계종 원로의원)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아집과 탐욕을 버리고 정치를 해야 올바른 대통령입니다.

국민들 앞에 하심하는 마음을 갖고, 국정을 공명정대하게 펴야 합니다. 그것이 보살입니다. 하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게 됩니다.

항상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까' 연구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를 위해 먼저 대통령이 될 때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적인 화해문제가 시급합니다. 대통령은 지역차별이 없도록 하는 정책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자신과 가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면 국가에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사심을 버리고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쟁사상 펴 반목·대립 없애야

일우스님(태고종 원로회의 의장)



대통령 당선자는 우선 스스로가 무소유의 정치인이 돼야 합니다. 당선자 인품과 덕망에 감응하여 국민 스스로가 당선자를 찾아가는 청빈한 대통령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또 대한민국을 세계만방에 이름을 떨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과학,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주인인 인성본질을 다스리는 윤리 제일사상을 지향하여 화경청정(和敬淸淨)한 국가를 이룩해야 합니다.

인성은 우주자연의 진리이며 순리입니다. 개인의 집착이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대승적 진리를 실천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라 여겨집니다. 자연법칙을 무시하고 무한한 욕망과 탐착으로 배금주의에 집착하여 천리순리를 배반하는 정치는 파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느 한 계파나 특정 집단을 위한 정치는 국가를 반목과 대립의 상황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평화를 구가하고 화합과 용서를 바탕으로 지역간 계층간 화합과 화쟁의 사상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 대통령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대불련회장 선출못해 40년만에 입후보 없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창립 40년 만에 입후보자가 없어 차기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4~15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 대불련은 "총회에서 차기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2003년 1차지부장단회의에서 재선출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비상집행위원회를 구성해 회장선출과 대불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박문수 회장과 각 지역대표는 비상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서 내년 초까지 대불련을 운영한다.

회장 선출에 실패한 것과 관련 박문수 회장은 "현재 각 지회도 회원 감소와 활동력 둔화로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대불련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부장단회의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한 대불련 회원들의 의견을 꾸준히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 관계자는 "대불련 지도자 교육 등을 실시하지만 종단에서는 대불련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대불련 스스로가 느슨해진 조직을 추스려 대학 불자들의 고민을 껴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년 임기의 대불련 지도위원장에는 고영삼 지도위원장이 재추대됐다.

강유신 기자

작은정성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웃사랑의 실천은 결코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람만의 일은 아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조그만 정성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없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현대불교신문이 2002년 연중기획으로 마련한 '후원합시다'를 통해 알려진 사연들은 불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불자들의 정성들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자비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인연을 낳았다.

'후원합시다' 캠페인 결산



그림=김영민

도천스님 신장병 치료비로 미술품 기증

백혈병 등 절절한 사연마다 도움 쏟아져

396호를 통해 신장병을 앓는 사연이 알려진 도천스님에게 11월 초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백 화백이라고만 밝힌 독지가가 돕겠다는 뜻을 밝혀 온 것. 국선에 출품했던 자신의 작품을 기증, 신장병 치료비 마련에 보태 달라는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스님의 도반들도 사연을 알고 도천 스님 돕기에 발 벗고 나섰다.

무뇌아로 태어난 선욱이(397호), 백혈병을 앓고 있는 상철이(399호)나 류은주(395호) 양에게도 불자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선욱이 할머니 정금자 씨는 "불자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인지 선욱이의 수술 결과가 희망적이다"며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소설 읽기를 좋아하는 류은주 양은 KBS '사랑의 리퀘스트'의 출연 요청을 받아,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을 길이 열린 상태다. 혼합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상철이는 17일 조혈모 이식 수술을 받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스님이 스님을 돕겠다고 나선 경우도 있었다. 358호에 보도된 굴암사 어린이집 보덕스님은 성남 청룡사 인해스님으로부터 정기적 후원금은 물론 학용품과 감자, 한약 등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스님은 "인해스님도 고아로 태어나 절집에서 컸다"며 "여생을 '형제'처럼 함께 지내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삶을 회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40년 넘게 보살펴 온 보덕스님은 "아이들이 '할머니' 한 분 더 생겨 좋아한다"고 말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다. 398호에 관절 수술을 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으로 소개된 이상순 할머니는 10일 일본에 산다는 교포가 돕고 싶다는 전화를 해 왔다. "타국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어떻게 그 멀리서 내 소식을 알고 돕겠다는 것인지 말만이라도 고맙다"고 말했다.

384호에 지하단칸방에 사는 성재, 성진이 자매는 한마음선원 신도인 양연숙 씨가 정기후원을 약속해 와, 부모 잃은 설움을 덜게 됐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오갈데없는 병든 노스님 안타까워"

'기로의집' 개원 한돌 활안스님



"노스님들이 병이 들어도 오갈 데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5일로 개원 1주년을 맞은 한국불교 금강선원 산하 복지단체 '기로의 집' 활안 스님(금강선원 이사장 · 사진)은 "많은 불자들이 '기로의 집'을 원만히 운영되도록 도와주었다"고 밝혔다.

현재 13명의 노스님을 수용하고 있는 '기로의 집'은 병든 스님들이 요양을 하며 쉽게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지난 해 12월 15일 청량리에 설립됐다. 또 간병을 받는 노스님들이 시봉하는 스님과 재가자들에게 1대1 강원식 교육을 할 수 있는 나란다삼장불학원도 열어, 노스님의 수행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나란다삼장불학원 열어 수행 배우게

종합불교예술대학을 운영하며 한 · 몽 불교 교류에도 힘쓰는 활안 스님은 "내년에는 스님 요양시설 '기로의 집'을 1층 증축하고 비구니 스님을 모시는 시설을 만드는 등, 30명 정도의 스님을 모시는 것을 목표로 시설 확충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미 궤도차희생 여중생 부시대통령 직접사과를"

종교신문언론인협 성명

한국종교신문언론인협의회(대표의장 홍시환)는 14일 강화도에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천도교 원불교등 5대 종교신문 기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OFA 개정을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갖고, "미 부시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종교신문 언론인들은 성명서에서 "세계 곳곳의 약한 나라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제국주의적 정치만행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한국정부도 자국민의 인권이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SOFA협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혼신을 힘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또 "장갑차로 무참히 여중생을 살해하고도 무죄를 선고한 만행을 저지른 미국은 다시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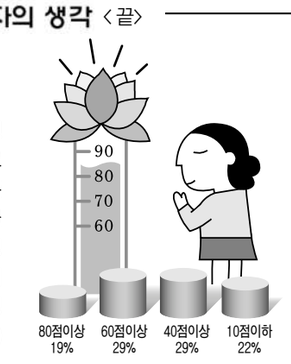
이에 앞서 종교신문언론인협은 윤청하 문화부 종무실장 등과 종교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적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를 주제로 제 6회 종교신문언론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차차석 현대불교신문 상임논설위원이 기조발제, 최규창(기독교신문 편집국장), 정유제(밀교신문 편집국장), 우세관(원불교신문 기자), 서경희(신인간 기자) 서상덕(카톨릭신문 기자)씨가 주제발표 했다.

김원우 기자

불자의 생각 〈끝〉

신행점수

불자님은 스스로 올 한해 신행점수를 매긴다면 몇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질문을 한 결과 총 응답자 63명가운데 18명(29%)이 각각 40점이상, 60점 이상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14명(22%)이 40점 이하, 12명(19%)이 80점 이상, 1명(1%)이 100점이라고 응답했다.



"내 신행 60점 이상" 49%

가장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23명(36%)이 법회 참석, 10명(16%)이 각각 보시행과 기타, 9명(14%)이 포교, 6명(10%)이 성지순례, 5명(8%)이 불사동참이라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인도 수자타 기술학교 개교

JTS, 의료·기계등 5개부문 전문교육

인도 JTS(이사장 법륜)가 불가촉천민들을 위한 학교 '수자타 아카데미' 개교 9돌을 맞아 1월 12일 '수자타 기술학교' 개원식을 연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은 기술학교는 수자타 아카데미를 졸업하고도 취직이 힘든 사회적 조건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소득증대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직업훈련센터의 역할을 예정이다.

학생들은 의료, 기계, 건축, 농업, 가정 5개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고, 공통과목으로 영어, 한국어, 컴퓨터 수업을 수강한다. 특히 도서관 한켠에는 지난해 1월 10일 기술학교 공사를 진행하다 무장강도의 흉탄에 유명을 달리한 故 설성봉 거사 행적과 유물을 전시하는 기념관이 들어서 이날 설 거사 추모비 제막식도 열린다. 제막식에는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이 촛불을 이용한 추모 헌무를 공연할 예정이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난민 구호를 위해 파견된 JTS가 카불 근교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13일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국제협력단 김대식 이사, 김진오 팀장 등 실무자와 아프간 주재 한국의 타 NGO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사무실 개소에 따라 JTS는 카불근교 식수 공급을 위한 소형 댐건설 공사와 학교 건축을 진행한다.

인도=김동훈 통신원, 남동우 기자

1544-0108로 택시 부르세요

서울운불련, 콜서비스

서울 운전기사불자회 법륜회(회장 윤승봉)는 20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204-1번지 콜센터를 마련하고, 서울, 인천과 성남, 일산, 과천, 군포, 용인, 의왕 등 위성도시에서 '1544-0108' 콜서비스를 개시했다. 서울 운불련은 정기법회와 성지순례 등 신행활동은 물론 콜서비스에서 얻은 수익금의 50%를 적립, 지체 · 청각 장애인시설 봉사, 세상나들이, 무의탁 독거노인 위문 등의 활동자금으로 활용한다.

이사장 도후스님 연임 불교방송 이사회 열어

불교방송 재단이사회는 17일 46차 이사회를 열고 도후스님의 연임을 의결했다. 또 총지종 법공정사를 이사로 새로 선임했으며, 임기가 만료된 진각종 회정정사, 대한불교진흥원 김표진 이사, 감사 종훈스님(조계종 전 기획실장)을 유임했다.

19명의 이사 가운데 11명이 참석해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춘천불교방송 개국에 따른 정관 개정과 164억원 규모의 2003년 예산을 확정했다. 특히 상암동 사옥 이전사업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두식 기자

한-미얀마불자 한자리에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조우영)는 29일 서울 암사동 미얀마선원에서 한-미얀마 불자 친선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양국간의 불교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증진을 위해 마련된다.

박봉영 기자

범어사사태 진정국면으로

민·형사 재판 일단락, 성오스님 체제유지

범어사를 둘러싼 민 · 형사 재판이 일단락돼 범어사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5일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청년승가회 소속 스님들이 낸 현 주지 성오 스님에 대한 직무집행행정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21, 22대 주지직을 수행하면서 재무국장 국고보조금 편취 등으로 재산일실 및 명예실추에 대한 직무상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주지 스스로 부정을 저지르거나 종법을 위반한 자료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과 종무협의회 의장 흥교스님, 전 재무국장 석호스님 등을 상대로 낸 형사재판도 10월 25일 무혐의 판정을 받음으로써 일단락 됐다.

천미희 기자



부처님의 몸 "산을 그대로 놔두라"

2002년 불교계 화두는 자연파괴에 따른 수행환경 침해를 어떻게 막느냐였다. 산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의 난도질에 핏빛 울음을 터트렸고 나무는 허연 속살을 드러내며 신음했다. 사찰은 고층아파트와 송전탑에 둘러싸여 질식당했고 스님들은 이를 항의하다 무자비하게 폭행당했다. '산을 그대로 놔두라'는 한 시인의 절규는 서울 근교 북한산에서 부산 금정산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메아리쳤다.

1997년 4월 '북한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100인 선언'부터 시작한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 운동은, 2002년 '북한산국립공원 살리기 백운대 배너시위'로 문을 열었다. 북한산 살리기 운동은 지난 3월 LG건설측 공사장 인부들이 관통도로 건설에 항의하던 회룡사 비구니 스님들을 폭행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결국 3월 15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2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환경 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결의대회에서는 조계종 원로회의 이름으로 유시가 발표됐고, 비구니 스님들의 관통반대 혈서와 우정국 앞 거리에서 참회와 눈물의 108배가 봉행됐다.

이후 불교계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같은 노선인 수락산 불암산 구간 공사중지에도 힘을 보탰다. 하지만 시공사측의 사주로 추정되는 일부 승려들과 경비업체 직원들이 새벽에 북한산 철마선원을 급습해 농성장에 있던 수경스님 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북한산을 지키려는 움직임은 식을 줄 몰랐다. 수경스님 등은 7월 18일 30도가 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3보 1배'를 강행하다 탈진해 병원으로 후송됨으로써 보는 이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결국 8월 14일 조계종 공대위와 시공사는 북한산 터널 노선 재검토를 합의했다.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들에게 북한산 관통도로 전면 백지화를 공약으로 받아냈다.

자연을 파괴하고 수행환경을 침해하는 사례는 북한산에만 한정 된 것은 아니었다. 비구니 승방으로 유명한 천년고찰 서울 미타사는 조합측의 거짓말로 사찰 앞 8M 거리에 들어선 15층 아파트로 질식위기에 처했다. 미타사측은 공사장 앞에 농성장을 만들어 농성에 들어갔고 결국 조합과 현대산업개발측은 대체법당을 지어주기로 약속했다.

경기남부의 비구니 도량인 용인 화운사는 송전탑 건설로 수행환경 침해는 물론 사찰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화운사가 강하게 반발하자 한국전력은 화운사측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은행나무로 유명한 양평 용문사는 사찰 앞에 현대식 향토박물관이 들어서는 것에 항의해 공사장 앞에 임시법당을 지어놓다 철거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산을 지키고 사찰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한반도 남녘에서도 가열차게 일어났다. 부산시민의 95%가 금정산, 천성산 터널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과 나온지도 벌써 반년이 흘렀지만 노선 변경은 아직 요원하다.

금정산 · 천성산 고속철 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는 올 한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치며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을 지키려는 노력들을 이어왔다. 올 1월 지율스님을 중심으로 내원사 비구니 스님들이 천성산 살리기 국토순례 발대식을 갖고 부산역을 출발, 서울 고속철공단까지 도보 행진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시민종교대책위의 크고 작은 노력들은 쉴 틈 없이 이어졌다. 이후 내원사, 범어사, 부산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집회와 시위를 가졌고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를 초월한 환경운동으로 확대됐다. 천성산, 금정산을 지키는 일에 신부와 수녀들이 팔을 걷고 나섰고 삼보일배에 함께 한 윤희동 신부와 분도수녀회 수녀들의 땀방울이 도심 대로를 적셨다. 종교를 초월한 자연사랑이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고 결국 민관협의체 구성이라는 절충안을 끌어내기에 이르렀다.

금정산, 천성산 구간 노선 재검토 공약이나 시민종교대책위의 지속적인 반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와 고속철공단은 공사 강행 입장은 쉽사리 바뀌지 않고 있다. 특히 고속철 공단은 최근 발표한 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나 지질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천성산 구간에 대해 업체 선정 발주를 내는가 하면, 대구~부산 구간을 당초보다 2년 앞당겨 내년 초 착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율스님과 통도사는 건교부와 고속철공단에 발주 취소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또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도 금정산, 금정산과 그 산을 터전으로 삼고 있는 수행환경 보호라는 큰 줄기에 맞지 않을 경우,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 밖에도 통영의 미륵산이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다. 몇 년째를 끌어온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운동은 16일 용화사가 산문을 폐쇄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 98년부터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시민의 모임'을 결성하고 현재 통영환경운동연합과 용화사를 중심으로 2달여 동안 미륵산 입구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통영시는 이렇다할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영축총림 통도사가 있는 영축산 중턱 1만 3000여 평이 골프 연습장을 비롯한 호텔, 여관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 공사로 마구 파헤쳐지는 사건도 일어났다.

사찰 관련 분쟁은 사찰이나 종단이 개발의 바람을 먼저 감지하고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건설 시 사전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도로, 전통사찰, 문화재가 포함되도록 환경정책 기본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사찰 경내를 관통하거나 주변 지역에서의 각종 도로 개설, 건축, 토목행위, 케이블카 설치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보존법을 정비해야 한다. 특히 종단을 초월하는 범불교적인 사찰환경수호기구의 설립도 절실히 요구된다.

2002년은 UN이 정한 '세계 산의 해'였다. UN이 이례적으로 '산'을 연중 캠페인 주제로 정하고 관심을 호소하고 나섰던 것은 '인류의 어머니'인 산이 그만큼 많이 훼손돼 가고 있다는 것을 뜻했다. 또 작년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정부, 기업, 가계 등 각 경제주체가 부담한 돈이 9조 2521억원을 기록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11만 9040명의 주민이 시위나 농성에 참여했고 이들의 생업손실은 59억 52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산의 해'에 불자들이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투입한 돈과 인력은 얼마나 되었을까? 또 내년 '물의 해'엔 얼마나 투입해야할까?

글=천미희 · 남동우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통도사에서 불과2km떨어진 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초산유원지' 때문에 영축산이 벌건 허리를 드러낸 채 신음하고 있다. 양산시는 통도사 대중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단 한번도 갖지 않았다.



◇몇년째 끌어온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반대 운동은 통영시의 묵묵부답으로 '산문폐쇄'라는 극단의 조치까지 취해졌다.

2002 수행환경 파괴현장

북한산 30여 사찰주변 관통도로
용인 화운사 송전철탑에 포위
미타사 앞 8m 15층 아파트
금정·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강행
통도사 인근 영축산에 위락단지


◇금정산 · 천성산 살리기는 종교와 승속을 뛰어넘은 국민적 운동이었다.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북한산 '철마선원'. 12월말 현재에도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범종교계·시민단체 자연파괴 거센항의
비구니스님들 혈서·참회 눈물의 108배

북한산 관통도로 전면재검토 이끌어 내
종단초월 범불교적 환경수호기구 절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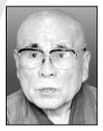
상담문의 : 053-652-3300

2002년을 빛낸 불자들

한일 월드컵과 부산아시아경기대회,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 16대 대통령 선거 등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불교계도 수행환경 수호가 올해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고, 불교문화 등 전반적으로 한 층 성숙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환경, 인권, 복지, NGO 등 각 분야에서 발군의 노력으로 불교를 빛낸 불자들이 적지 않았다. 본지 기자들이 각 분야에서 '2002년을 빛낸 불자들'을 선정했다.

불교문화 복지 향상·수행환경 수호에 진력

덕해스님(불교안양원 이사장)
서울불교대학원大 개교



불교안양원 이사장 덕해스님은 9월 1일 불교계 처음으로 불교대학원대학교를 개교했고, 이에 앞서 8월 안양시 석수동에 1만2천기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납골시설 영각당을 개원하기도 했다.

덕해 스님은 89년 학교법인 보문학원을 인수해 대전 보문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2000년 안양시 노인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등 교육, 복지 등의 사업에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38-2번지에 연면적 530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개교 첫해인 올해 불교학,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3개 학과생들을 모집, 불교의 사회적 구현의 가르침을 펴고 있다.

도후스님(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
근·현대불교미술 조명



지난 7월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을 창립한 도후스님은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아름다움과 깨달음-한국 근·현대 미술에 나타난 불교사상' 주제 전시회를 열었다. 이 전시회는 그동안 고미술품이 대부분이었던 불교 전시 풍토에서 벗어나 20세기 본격 창작품 가운데 불교사상을 기본으로 한 명품을 한데 모아 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남겼다.

또 11월과 12월에는 경주, 속초, 광주 등에서 지방순회전을 열었으며 12월 13~14일 양일간은 강화 전등사에서 미술, 건축 등 각계 전문가 6명을 초청해 '불교문화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본격적인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수경스님(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북한산·새만금 살리기



수경스님의 자연환경 보존과 사찰환경 수호 의지는 올해도 여전히 뜨거웠다.

북한산 관통도로가 뚫릴 지점에 '철마선원' 법당을 세우고 비구니스님들, 환경단체 회원들과 함께 몸으로 도로 건설을 막았다. 그러던 중 괴한들에게 집단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님은 이에 굴하지 않고 '북한산 살리기 3보 1배 정진'을 봉행하다 누적된 과로로 실신해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또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스페인 람사에서도 '3보 1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연말에는 '미군 참회와 SOFA개정'을 위한 단식기도 정진에 들기도한 스님은 북한산과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으로 환경운동연합이 주는 녹색시민상을 수상했다.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
탈북자·인도불교 지원



법륜스님이 지난 7월 29월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라몬 막사이사이상 평화국제이해부분 수상자로 선정돼 불교계 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을 토대로 정토회를 설립해 탐욕, 빈곤 및 환경파괴 등 근대사회 전반에 걸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활동을 펼쳐왔다.

막사이사이상 수상으로 국제적으로도 저명인사가 된 스님은 아프가니스탄 등의 나라에 대한 지원에도 나서 자비와 평화, 생명존중의 사상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1000일 동안 펼쳐온 한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기도정진을 회향하며 불자들에게 자비사상을 각인시키기도 했다.

지율스님(양산내원사 산감)
금정산·천성산 지킴이



올 한해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면 단식, 하루 25km 행군 등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지율스님의 활동은 사경을 헤매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 사랑 그것이었다.

올해 2월 내원사 스님들과 함께 한 1200리 고속철 구간 도보를 비롯 천성산의 소중함과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행사를 기획, 직접 몸으로 참여했다. 수녀님들과 함께 한 길거리 음악회, 자전거 타기, 천인서명운동, 6박 7일의 천성산~금정산 순례, 부산시청앞 1인 시위, 단식, 거리 집회, 길거리 특강 등 찾아다닌 사람과 장소는 셀 수조차 없다.

11월 람사회의에 참석해 천성산 화엄늪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돌아온 스님의 노력은 지칠줄을 모르고 있다.

해성스님(광림사 연화복지원장)
청각장애인에 새 삶



93년 광림사에서 연화복지원을 창립하고 수화법회를 열어 청각장애인 포교에 나선 해성스님. 청각장애인 포교 활성화를 위해 성악가 정율스님과 함께 찬불가와 수화를 함께 배울 수 있는 모임 '부루나 수노회'를 지난 6월 창립했다. 또 휴대하면서 배울 수 있는 수화집 <수화사랑 친구사랑>을 만들어 청각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11월에는 10주년을 기념, 수화 연극 '사랑이 보이네요'를 열연해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96년에는 한국 유일의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교육을 시작, 현재까지 3000여명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작년에는 장애인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꽃꽂이 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다.

도우스님(창녕 월령사)
신장에 이어 간까지 기증



경남 창녕군 월령사의 도우 스님은 지난 8월 21일 서울아산병원에서 말기 간경화 환자에게 간 일부를 떼어주는 보살행을 실천했다.

도우스님이 이 같은 장기기증 서원은 출가한지 1년 째 되던 98년 통도사 승가대학 학인시절부터였다. 불제자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하던 스님은 지난 99년 8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신장질환자에게 왼쪽 신장을 선뜻 내놓았고, 올 8월에는 간까지 기증했다. 스님은 장기기증과 함께 "간 기증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알려서 장기 기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장기기증의 선연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마음도 보탰다.

육신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린 출가수행자로서 불교계를 넘어 일반사회에 신장에 이어 간까지 기증한 보살행은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전재성(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
초기경전 번역 궤도에



부처님 가르침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우리말 경전을 만들기 위해 애써온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 회장은, 올해 <쌍윳다니까야>와 <맛지마니까야>를 펴냄으로써 초기불교 경전의 한글 번역을 본 궤도에 올려놓았다.

올 1월 팔리어 대장경 가운데서도 가장 초기의 경전들을 모은 <쌍윳다니까야>(전12권)를 완역한 데 이어, 한문번역본의 중아함경에 해당하는 <맛지마니까야>를 처음으로 번역, 1·2권을 펴냈다.

이 초기경전의 한글번역은 한문으로 이중 번역된 이전의 경전과 달리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보편적으로 쓰였던 언어로 된 팔리어 대장경 원전을 오늘의 우리말로 해석해 석가모니의 육성을 보다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주경중(영화감독)
'동승' 영화제 최다 초청



영화 '동승'을 제작한 주경중 감독은 한국사찰 특유의 자연경관을 영상에 그대로 옮겨 내년 3월 개봉을 앞두고 올해 최다 국제영화제 초청작이란 신기록을 세웠다.

'동승'은 6월 상하이 국제영화제 최우수 각본상 수상을 비롯해 하와이, 모스크바, 몬트리올 등 이미 20여개 유수의 국제영화제에 초청됐다. 특히 상하이 국제영화제에서의 수상은 93년 '서편제'로 임권택 감독이 감독상을 받은 이래 9년만의 영화계 경사로 평가되고 있다. 주 감독은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가장 한국적인 정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다 결국 불교적 소재를 선택한 것이 세계 영화 관계자들의 관심을 끈 것 같다"고 했다. 특유의 영상미로 한국 불교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영상 포교에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

김태제(경기불교문화원장)
인도·티베트 적극 지원



지난해 티베트불교 지원금으로 10만 달러를 보시하며 해외불교 지원을 호소하고 나선 김태제 경기불교문화원장이 올해에도 인도 불교 지원금으로 10만 달러를 쾌척했다.

김 원장의 인도·티베트불교 관심은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불교돕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8~23일 실시한 인도답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재가연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3곳 중 마하마야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의 학용품 구입비로 3,000루피를, 석가족 6,000여명이 운집한 메인뿌리 나비간지에서는 자신들의 힘으로 법당을 짓겠다는 마을의 불상봉안 비용을 보시했다. 또 석가족이 중심이 된 YBS(인도불교청년회의) 사무실 마련 비용과 둥게스와리 수자타 아카데미 후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선아(불교만화연구소 소장)
불교만화로 포교 기여



2000년 문을 연 불교만화연구소의 김선아 소장은 올해 교계 최초로 전국 규모의 '청소년 불교만화공모전'을 개최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만화가 이현세 씨가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번 공모전에는 500여 명의 청소년들이 단편만화, 일러스트 등 600여 점의 작품을 응모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올 7월 격월간 불교만화 포교지 <불교만화이야기>를 창간했다.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 등 젊은 불자들에게 불교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불교만화 이야기'를 어린이·청소년 법회와 군법당 등에 보내는 법보시 운동도 펼치고 있다. 불교만화 공모전과 포교지 발간은 불교만화 발전은 물론 포교와 작가 양성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아시안게임 불교서포터즈
불심모아 열렬히 응원



부산의 올 가을은 불교계의 서포터즈 활동으로 뜨거웠다. 9월 28일 전야제부터 10월 14일 폐막까지 경기장과 선수촌 곳곳에서, 부산불교연합회를 주축으로 삼광사, 감로사, 혜원정사, 동명불원, 영주암 등 30여 사찰과 신행단체들이 참여한 불교서포터즈는 불교문화를 34개 참가국에 알리며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톡톡히 역할을 했다.

특히 선수촌내 설치된 불교관에서 다도체험, 참선, 예불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선수단의 입국부터 출국까지 한국의 불심이 가득 담긴 활동을 펼쳤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그 가운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10대 뉴스로 정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관과 동국대 불교병원이 완공되고 천태종립 금강대학교가 개교, 교육 · 포교 · 복지의 큰 축을 담당할 대작불사가 마무리됨으로써 불교발전의 새 기틀이 마련됐다.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착공과 불교정보화 실태조사도 큰 성과였다. 법전스님의 조계종 종정 취임과 혜암스님의 입적은 기대와 아쉬움을 동시에 던졌고, 월드컵과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처음 실시된 템플스테이는 한국불교의 국제화를 앞당겼다. 북한산 관통도로 등 사찰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1년 내내 지면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이 출가자 연령을 40세 이하로 낮추는 파격적 조치도 나왔다.

2002년 불교계 10대 뉴스 본지 선정

교육·수행·복지 대작불사 결실… 불교발전 새 기틀

조계종 제11대 종정 법전스님

조계종은 3월말 종정추대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법전스님을 11대 종정에 추대했다. 14살인 1939년 영광 불갑사에서 설제스님을 은사로 출가, 1949년 성철 · 청담스님 등과 함께 봉암사 결사에 참여했으며, 지난 85년부터 해인사서 주석해오면서 96년 해인총림방장, 2000년 원로회의 의장을 맡아온 조계종의 대표적 선승이다.

한편,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스님은 지난해 12월31일 법랍 55세 세수 82세를 일기로 해인사 미소굴에서 입적, 불교도들을 안타깝게 했다.





북한산 등 환경지키기… '백지화' 투쟁

올해 불교계 큰 화두는 수행환경 수호였다. 북한산 · 수락산 · 불암산 관통도로를 비롯하여 금정산 · 천성산 경부고속철도, 미륵산 케이블카, 보문동 미타사, 양평 용문사, 용인 화운사 등 전국 곳곳에서 개발 논리에 따른 자연파괴 및 사찰수행환경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북한산 관통도로와 금정산 · 천성산 문제는 대선후보들에게서 전면재검토와 백지화 공약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찰환경 분쟁들은 종단이나 사찰이 뒤늦게 대처했다는 반성과 함께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중·일 국제무차선대법회 첫 개최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선사들이 선문답을 펼친 '한-중-일 국제 무차선 대법회'가 10월 20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선종사상 처음으로 열려 불교계 내외의 관심을 끌었다.

'21세기, 선(禪)으로 참나를 찾자'란 주제로 열린 이번 무차선법회는 1만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 법주를 맡은 동화사 및 해운정사 조실 진제 스님과 중국 백림선사 방장 정혜(淨慧) 스님, 일본 임제종 묘심사파 대표 종현(宗玄) 스님의 법어와 납자와 일반인을 상대로 법거량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관 완공

조계종 7천여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포교, 교육도량인 전국비구니회관(법룡사)이 착공 3년 만에 완공됐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우)는 5월 4일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법룡사 만불전 봉불식을 갖고 30여년만의 숙원사업이었던 비구니회관 완공이란 결실을 맺었다.

서울 강남 수서동에 소재한 비구니회관은 대지 1천2백40평, 건평 2천5백60평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현대식 건축물로 조성됐다. 대법당(만불전)과 교육관, 대강당, 강의실, 불교문화실, 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다.



천태종립 금강대학교 개교

불교계 네 번째 정규대학인 천태종립 금강대학교가 11월 7일 개교했다.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에 건립된 금강대학은 대지 3만5천여 평에 건평 3천7백여 평 규모의 강의동과 기숙사 2동을 갖췄으며, 11월 16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학설립 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학사일정에 들어갔다.

'소수정예 특성화'를 교육지표로 내건 금강대학은 불교문화학부(불교학 전공), 통역학부(영어학 · 일어학 · 중국어학 전공), 사회과학부(사회복지학 전공) 등 3개 학부 5개 전공분야에 신입생을 선발했다.





최첨단 동국대 불교병원 준공

양 · 한방 1000병상 규모인 동국대 불교병원이 9월 27일 불자들의 관심 속에 준공됐다.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에 건립된 불교병원은 건평 2만7천평에 지하 2층, 지상 12층, 외래진료동, 입원병동, 중앙지원동, 장례동 등 4개동으로 이뤄졌으며 국내최초 무균실 전자동화검사시스템 등 최첨단시설을 갖췄다.

하지만 '올해 12월 개원'이 2003년 말 개원으로 미뤄지면서 불자들의 실망과 직원 채용 응시자들의 불만 등이 겹쳐 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조계종 출가 연령 40세 이하로

조계종은 9월 10일 제154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출가 연령을 5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낮추는 '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계종이 출가자 연령을 낮춘 이유는 고령 출가자에 대한 교육 · 수행 · 교화에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연령을 문제 삼아 출가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능력 있고 신심 깊은 40세 이후 출가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착공

조계종의 숙원사업이었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4월30일 기공식을 가졌다.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총무원 새 청사라는 의미보다는,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불사로 평가 받고 있다. 조계사 경내 1천4백여평 대지에 지상4층 지하4층으로 건립되는 이 기념관은 유물 전시실, 불교문화정보센터 등이 들어서며, 또 부속 건물로 건립되는 별관에는 최첨단 국제회의장이 들어선다. 완공은 내년 말로 예정돼 있다.



불교정보화 실태조사·협의회 구성

불교계의 정보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지표로 드러낼 자료가 전무한 가운데 최초로 사찰과 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가 펼쳐졌다. 4월 한 달 간 실시된 이 조사는 종단협의회와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 주최했다. 전국의 5천여 사찰에 대한 전화조사와 1200여 사찰에 대한 방문 및 우편조사로 진행됐으며 7월 말 562쪽 분량의 <백서>가 발간됐다. 이 조사를 계기로 불교계 정보화 분야의 발전을 모색하는 불교정보화협의회(회장 현성)가 창립됐다.





월드컵 템플스테이 성공적 운영

한 · 일 월드컵과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때 실시한 한국전통불교 문화체험사업(템플스테이)은 외국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33개 사찰에서 실시된 템플스테이는 5천여 외국인들에게 전통문화 체험관광의 모델과 불교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불교용어 번역과 통역인력 확보를 통한 국제포교 기반을 구축했으며 상설화하는 사찰도 생겼다. 그러나 짧은 준비기간과 홍보부족 등으로 인한 참가자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 아쉬움 남기기도 했다.

“여기 참 삶의 길이 있습니다…법보시 함께 하세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백화점 등 상가가 몰려있는 시내 번화가는 화려한 불빛과 물건으로 넘쳐나지만, 뒷골목에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문득 눈에 띈, 신문에 담긴 한 줄의 말씀으로 인해 마음으로 격려를 받고, 난관 극복의 용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바른 법이 담겨있는 신문과 불서를 보내는 ‘법보시 운동’이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불교’ 보내기 법보시는 소외되고 불우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혜의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현대불교는 97년 6월부터 부처님 가르침이 전달되기 어려운 군부대나 교도소, 병원, 복지 시설 등에 ‘신문보내기 법보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구좌 1천원으로 동참하는 신문법보시 운동은 동참하는 이에게 보시 공덕 중 으뜸인 법보시 공덕을 짓게 할 것입니다. 법보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의 귀한 법을 만나는 인연공덕을 짓게 할 것입니다.

불서 법보시 합시다

현대불교신문은 법보시와 더불어 도서 법보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그동안 불서가 필요한 단체에 자체적으로 도서 법보시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도서 법보시를 정기적으로 확대하여 불서가 필요한 단체에 고루 부처님의 법음이 전달되도록 진행하려 합니다.
이에 도서 법보시에 동참하고자 하는 불자 및 단체의 참여와 받아보시기를 원하는 단체의 접수를 받고자 합니다.
► 도서 법보시 동참자 모집: 개인 및 단체가 보관중인 불서의 보시를 원하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소중한 곳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 불서가 필요하신 단체 접수: 부처님의 말씀이 필요한 단체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책방 여시아문 대표(02)737-0695 팩스(02)737-0696

“좋은것 이웃들과 나눴을 뿐”

본지 창간호부터 법보시 하는 임옥빈 씨



“그냥 좋은 것을 이웃들과 나눈다는 생각으로 ‘현대불교’를 법보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땐데요, 한 번은 아는 학부형에게 ‘현대불교’를 법보시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분도 <법공양>이란 소책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법보시하고 있더라구요. 역시 불교는 소유하거나 집착하는 종교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종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과 남편, 두 아들의 이름으로 법보시하고 있는 주부 임옥빈(서울 은평구 불광동 · 48세) 씨. 중학교 국어교사를 하던 임 씨는 자식이나 남편이 속 썩이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고 살맛이 안 나던 중 직장동료가 건네준 불교 관련 소식지를 보고 불교에 입문했다. 시댁이 불자집안이긴 했지만 예전엔 종교를 구속으로 생각하던 터였다.
‘현대불교’ 창간독자이기도 한 임씨는 ‘현대불교’를 보면서 더 불교에 빠져들었다고 고백한다. 한 번은 남편이 ‘그러다가 출가하는 것 아니야?’ 농담을 할 정도였다.
임씨는 ‘현대불교’를 받으면 ‘가까이에서 뵌 큰스님’을 맨 먼저 읽는다. 또 신문을 보고 그냥 버린 적이 없다. 아파트 경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불자라는 것을 안 후에는 보고난 후 꼭 경비실에 놓아둔다.
“현대불교를 8년 동안 보면서 점점 다양화 되어가는 게 좋긴 해요. 하지만 일반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또 신문에서 사람들이 보시할 수 있는 문화를 선도했으면 합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소개하는 만화 같은 것을 실어줬으면 해요.”

읽고난 신문도 돌려보게 아파트 경비실에…

건강상의 이유로 교사를 그만둔 임씨는 요즈음 화요일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열리는 초서 강좌를 수강하고, 목요일에는 동양고전연구소에서 열리는 한국고전비평론 자료집을 공부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공부한 뒤 불서 번역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임옥빈 씨는, ‘현대불교’를 법보시하는데 보다 많은 불자들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1구좌 1천원으로 자비와 지혜의 법등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를 지켜 가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자 군부대,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병원 및 사회 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 불국토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월 1천 5백여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하여 매주 1,422부의 신문이 군장병 · 교도소 수형자 등 개개인 앞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9만 여부의 신문이 포교사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일시적이지만 법보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서 이르시기를 “사구게 하나라도 남에게 일러주는 공덕이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로써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법보시 후원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법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참여방법: 자동이체는 고객부로 전화 신청하시고,
온라인 입금은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법보시 후원 계좌번호(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006-01-0783-830	농 협	053-01-236053	신한은행	324-05-007450
외환은행	150-13-12902-6	뱅크라인	50-01-124050	서울은행	15501-2269115
제일은행	100-20-560799	조흥은행	390-01-056471	하나은행	111-216474-00104
한미은행	100-51057-249	주택은행	504537-01-000064	평화은행	052-25-0001-512
한빛은행	082-090001-13-701	기업은행	024-022451-04-012		

■법보시 후원금 문의 및 안내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대표) (02)737-0090(직통) 팩스(02)737-0697

●법보시 받는 단체 · 시설

구 분		발 송 처	보시 부수	보시 부수 누계
군부대	군법당	378	423	77,808
	국군병원	9	11	9,556
교화기관	교도소, 교정청	28	207	51,334
	구치소, 감호소	12	45	18,226
	소년원, 감별소	16	48	8,112
복지단체	양로원	24	24	6,596
	아동복지시설	26	26	10,146
	장애인복지시설	11	11	4,396
	청소년복지시설	16	16	6,162
	사회복지기관	138	138	53,198
	불교병원	9	61	17,467
경찰	경승실	188	188	62,948
	경찰병원	2	6	1,596
지정법보시	단체	141	163	40,287
	개인	55	55	22,270
총계		1,053	1,422	390,102

현대불교 법보시 후원기관 · 후원자

간종흠 감영자 강갑순 강경중 강대덕행 강덕순 강말숙 강명자 강미영 강민정 강병현 강복복지관 강성옥 강수대 강수천 강숙희 강순영 강신옥 강신택 강영신 강옥구 강용희 강유미 강윤수 강은영 강인성 강인숙 강정옥 강정기 강정숙 강정인 강정화 강정훈 강종림 강지숙 강춘계 강태근 강태복 강태화 강현숙 강황진 경남지원 경순자 계미영 고계환 고광진 고덕현 고순진 고영배 고영이 고옥영 고용순 고은주 고재선 고필선 고현사 공덕화 공평근 곽동희 곽만열 곽명순 곽영호 곽우진 곽준경 구길자 구본준 구수연 구영란 구은지 구진모 구진화 구진희 구필화 권갑남 권계순 권동현 권두상 권명수 권명아 권명희 권미경 권복연 권복자 권복현 권상원 권성행 권순권 권순혁 권연지 권영상 권영숙 권영현 권오석 권오웅 권오윤 권오진 권옥숙권옥순 권윤중 권은경 권정숙 권진순 권차순 권초지 권춘순 기현정 김가영 김갑순 김강산 김건옥 김경 김경선 김경수 김경숙 김경순 김경애 김경열 김경옥 김경해 김경혜 김경훈 김경희 김광숙 김광순 김광태 김교안 김국중 김귀남 김규경 김규성 김규순 김규정 김근삼 김근영 김금순 김기성 김기춘 김길숙 김길운 김나령 김남경 김남석 김남숙 김남영 김달순 김대현 김덕애 김덕영 김동숙 김동자 김동진 김두찬 김두영 김들남 김복자 김룡인 김명덕 김명란 김명옥 김명자 김명화 김명훈 김명희 김문자 김문조 김문주 김미란 김미애 김미영 김미선 김미순 김미연 김미옥 김미정 김민수 김민옥 김범수 김범식 김병일 김병주 김병철 김복남 김봉란 김봉애 김봉희 김상규 김상덕 김상수 김상순 김상애 김상연 김상옥 김상우 김상철 김상현 김상희 김새봄 김서보 김석교 김석순 김석용 김석자 김선남 김선아 김선영 김선화 김성경 김성민 김성순 김성자 김성진 김성혜 김성희 김송자 김수영 김수옥 김수정 김수희 김숙향 김숙희 김순애 김순옥 김순남 김순녀 김순덕 김순례 김순주 김순희 김숭자 김시열 김시자 김신열 김애란 김애리자 김애자 김양순 김여경 김연득 김연봉 김연수 김연옥 김연자 김연희 김영순 김영란 김영만 김영만 김영배 김영범 김영삼 김영석 김영숙 김영순 김영식 김영아 김영애 김영옥 김영자 김영희 김예인 김옥분 김옥순 김옥자 김옥희 김용범 김용순 김용준 김용환 김용희 김원배 김원순 김원용 김원우 김월용 김유학 김윤관 김윤남 김윤성 김윤자 김은경 김은숙 김은애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지 김은희 김인선 김인숙 김인애 김인자 김일동 김자경 김장복 김재철 김정덕 김정랜 김정렬 김정선 김정숙 김정애 김정옥 김정은 김정이 김정자 김정주 김정희 김제철 김종 김종미 김종보 김종애 김종숙 김종일 김종훈 김주곤 김주식 김주실 김주현 김준만 김준모 김준영 김준희 김지숙 김지영 김지은 김지현 김지혜 김지환 김진근 김진선 김정수 김철수 김춘추 김춘희 김태근 김춘화 김춘희 김춘희 김치훈 김태현 김태훈 김택근 김학수 김한나 김헌 김현수 김현숙 김현우 김현진 김현화 김형준 김형창 김형철 김형태 김혜경 김혜기 김혜숙 김혜옥 김호 김호영 김호종 김홍조 김화남 김화수 김환수 김효래 김효례 김효성 김효숙 김희남 김희순 김희수 김희순 김희주 나관숙 나귀례 나무문 나숙희 나순옥 남국현 남선자 남성수 남성진 남수경 남수미 남수진 남일우 남정애 남희수 남하자 노만호 노선헌 노성일 노순남 노유택 노윤택 노진희 노향순 노혜숙 덕성암 덕운화 덕형관 도옥희 도재권 도식 임용호 임우식 임인석 임재순 임정숙 임종구 임종미 임창건 임채임 임춘심 임해순 임형준 임호신 임홍빈 임효자 자서울월곡 장금강심 장미 장미순 장미옥 장성윤 장세승 장영남 장영순 장영찬 장왕자 장재원 장정 장정기쪽 장정숙 장정자 장정희 장혜복 장혜정 장현민 장현식 장혜선 전갑일 전계연 전계영 전규백 전무정 전병임 전병제 전복순 전삼우 전수남 전수남 전순석 전연숙 전연석 전연택 전영자 전유지 전유진 전은정 전은희 전인성 전인영 전인호 전정숙 전정순 전정애 전정희 전진희 전현수 전현진 정건재 정계영 정고비 정구순 정규열 정금란 정금자 정대자 정동순 정동한 정모아 정무영 정문식 정미경 정미령 정미향 정민아 정복순 정분선 정삼준 정상환 정수자 정숙남 정숙희 정순경 정순옥 정순재 정은경 정의진 정인순 정인실 정점오 정정국 정정수 정정순 정정자 정정희 정진호 정진우 정진희 정차순 정철숙 정청래 정픽준 정필수 정필준 정하석 정학선 정해정 정해택 정현동 정훈채 제숙희 제주보훈회 조경숙 조경자 조공옥 조금숙 조길옥 조남자 조남경 조동만 조명래 조명숙 조명식 조미란 조미숙 조미순 조민우 조봉호 조분숙 조상호 조성국 조승근 조승우 조약식 조양자 조영숙 조옥순 조옥희 조은호 조은미 조인규 조장현 조정훈 조진한 조철제 조해연 조현애 조혜숙 조혜연 주경숙 주영란 주우순 주인공 주정숙 주현순 주희숙 지경애 지모봉사모임 지순임 지연옥 지영희 지유미 지인희 지청인 지혜선 진갑임 진경상 진경수 진광현 진말련 진병웅 진수남 진영옥 진옥례 진옥영 진재영 진정임 차동호 차민영 차상환 차수환 차승옥 차정순 차현주 차희자 채희순 천미희 천병길 천복연 천상봉 천양우 천재경 천현숙 천화조 청주교도소 최경근 최경택 최경자 최경진 최광복 최동예 최만례 최명희 최미숙 최미현 최범순 최병도 최병언 최병조 최병준 최복내 최복섭 최복순 최상철 최서윤 최석원 최선영 최성근 최성대 최성후 최수현 최실혜 최영도 최영명 최영봉 최영숙 최우수 최윤정 최은희 최인숙 최인자 최재우 최정근 최정기 최정림 최정문 최정미 최종열 최종원 최주현 최준성 최진명 최진희 최현주 최혜선 최혜라 최호자 최효자 최희원 추월희 태국지원 태순덕 표혜명 하금자 하명자 하미경 하미희 하석남 하선희 하성호 하숙진 하순애 하은숙 하정옥 하재현 하정숙 하정희 하혜경 하홍용 한경규 한경호 한국여성불교한기늠 한기선 한기영 한마음사랑방 한마음선원 한명숙 한미순 한방근 한병조 한상현 한수정 한숙희 한순례 한순옥 한승자 한아름 한양지 한영옥 한영전 한윤경 한은선 한인식 한입련 한정석 한정선 한희원 한춘영 한태희 한화윤 한효심 함광점 함광정 함기석 함명수 함영숙 함지윤 허명희 허상임 허석남 허선숙 허성국 허수자 허승자 허희숙 허재영 허점자 허정자 허정훈 허종환 허찬웅 허찬응 허학연 허희숙 현미숙 현불회 현수천 현월스님 현추월 혜월당 호소희 홍경숙 홍명숙 홍민자 홍병숙 홍소순 홍순아 홍순임 홍영순 홍영호 홍인자 홍임표 황경숙 황금철 황기용 황노철 황문희 황순수 황순심 황영분 황옥란 황옥석 황옥순 황옥자 황용숙 황인혜 황점숙 황정숙 황정애 황정희 황제숙 황지현 황지혜 황혜준 회광내

태순 동사섭 류경훈 류봉수 류영란 류재규 류정님 류정호 류정숙 류정오 류조형 마정혜 마진호 명세정 명재한 모영희 목포비원 무명 문명순 문병기 문상훈 문선희 문숙자 문순조 문재근 문현숙 문정강 문정희 문필금 문필수 문형주 문희자 민경주 민병용 민복순 민성곤 민소영 민승자 민응식 민하식 민혜원 바로보인 박강숙 박경남 박경래 박경선 박경수 박경숙 박경애 박경옥 박경자 박경희 박광환 박금순 박금자 박기성 박기순 박기정 박길순 박남순 박내숙 박노경 박명숙 박문수 박미경 박미정 박민향 박보경 박복자 박봉순 박분희 박상순 박상우 박상희 박선경 박성숙 박성애 박성연 박성옥 박성우 박성준 박성희 박세경 박수영 박수진 박수경 박숙자 박숙현 박순득 박순례 박순옥 박승길 박승자 박승희 박시경 박시균 박시영 박양임 박양자 박연숙 박연신 박영미 박영석 박영숙 박영신 박영애 박영우 박영준 박영철 박영춘 박옥경 박옥순 박옥희 박우남 박용숙 박용자 박원규 박원희 박은미 박은숙 박은주 박은주 박이형 박인서 박인선 박장미 박재련 박재윤 박재진 박정산 박정숙 박정화 박정희 박제원 박종두 박종실 박종원 박주연 박주원 박주찬 박준영 박준호 박진수 박진현 박진희 박정자 박찬 박찬연 박천혜 박철수 박청길 박청자 박춘봉 박춘자 박태규 박태수 박필원 박현동 박현순 박현주 박형채 박혜경 박혜리 박혜명등 박혜숙 박혜진 박화자 박화재 방희순 방경섭 방명섭 방순자 방순희 방재순 배경숙 배광훈 배동금 배명호 배병진 배복희 배성호 배순자 배연수 배준자 배희숙 백길수 백상준 백성옥 백양심 백옥남 백우선 백준기 백혜기 백혜원 법현스님 변미자 변영희 변인택 본원보시함 본원봉사모임 본원신도 본원영등포 본원의명 봉철순 봉현주 부산신도회부산지사 부산지원 분경희 사당5동법회 사랑방 상미옥 서경자 서경자 서귀연 서귀희 서덕교 서말자 서명선 서미옥 서병학 서봉순 서삼조 서성학 서순덕 서영주 서예숙 서옥경 서울월곡 서원석 서윤아 서의숙 서인교 서재영 서정숙 서준 서진 서춘건 서충우 서태승 서형관 서영수 석해월 선유진 선장재 선정호 선현자 설갑룡 설점수 설지석 성경순 성동환 성명숙 성묘경 성민자 성영분 성재영 성희정 성효송 소진임 손광자 손금화 손명숙 손문엽 손미숙 손봉희 손상률 손순옥 손영실 손을선 손인아 손인환 손정숙 손정자 손진임 손혜숙 손화자 송경자 송광옥 송규환 송근정 송동호 송미숙 송미애 송방준 송복희 송석원 송성빈 송성희 송승현 송양숙 송연숙 송연희 송영근 송영애 송유정 송인영 송재업 송정구 송필재 신경희 신남선 신미향 신미환 신복순 신상균 신상섭 신성희 신수호 신순애 신순희 신시균 신영준 신영찬 신원민 신윤진 신장재 신재락 신재철 신정규 신조현 신진임 신진희 신택건 신현순 신혜경 신호용 신홍재 신희순 심 경우 심공희 심광엽 심근희 심능희 심단희 심만희 심묘희 심법희 심보희 심성학 심숙희 심안분 심영애 심원식 심원희 심일희 심일홍 심춘자 심희주 안병노 안병윤 안성모 안순옥 안연미 안영근 안영선 안은희 안재연 안진후 암영애 양기철 양병덕 양석호 양세욱 양연희 양영모 양영애 양은숙 양의균 양해환 양홍용 어종선 엄남주 엄정임 여태순 염홍숙 영등포법회 영재환 오강호 오광자 오동규 오두환 오미순 오명자 오미환 오병덕 오병현 오보광명 오분례오상숙 오선희 오성종 오세철 오송준 오순자 오승종 오승훈 오영자 오영희 오정애 오종근 오주중 오주희 오지은 오진희 오창원 오창일 오창희 오학규 오현승 오현규 오현희 오형만 오형희 오혜숙 옥영식 용산구법회 용환웅 우경애 우금식 우동렬 우상용 우지혜 울산한마음 원영자 원정옥 유광수 유금열 유금자 유미양 유보향 유선재 유양상 유영미 유은경 유인묵 유재훈 유정옥 유정옥 유종숙 유지호 유진수 유춘자 유호성 육성희 육성희 윤경애 윤경희 윤기석 윤기수 윤기원 윤기홍 윤미희 윤병철 윤병혜 윤상문 윤석범 윤성 윤순이 윤여형 윤영수 윤영숙 윤영자 윤옥희 윤인자 윤재경 윤정연 윤정은 윤정희 윤종숙 윤준상 윤지웅 윤지은 윤차남 윤창섭 윤춘매 윤춘희 윤태원 윤행숙 윤현숙 은경애 이강희 이건우 이건주 이경남 이경림 이경복 이경숙 이경아 이경애 이경원 이경자 이경주 이계선 이관형 이광희 이교재 이구자 이군자 이귀숙 이규대 이규만 이규환 이근기 이금순 이금주 이기수 이기오 이기임 이기철 이길복 이길순 이남심 이노마 이단식 이대섭 이덕의 이동기 이동주 이동준 이동희 이명규 이명수 이명숙 이명순 이명자 이명준 이명훈 이명희 이묘연 이미경 이미나 이미애 이미자 이미정 이번택 이범규 이병기 이병태 이보경 이보련 이복동 이복성 이복순 이복임 이봉수 이봉호 이부양 이분순 이산궁 이삼경 이상란 이상숙 이상윤 이석원 이석준 이선일 이성수 이성재 이송자 이수영 이수자 이숙희 이순교 이순덕 이순랑 이순복 이순옥 이순일 이순자 이순천 이순호 이순화 이순희 이승숙 이승은 이승훈 이신궁 이신정 이신호 이아리 이애자 이양자 이양희 이여수 이연구 이연옥 이영경 이영란 이영민 이영숙 이영순 이영자 이영조 이영희 이오석 이옥색 이옥순 이옥영 이옥형 이옥희 이왕진 이용범 이용진 이우승 이우진 이우환 이운자 이원상 이유순 이윤숙 이은주 이은숙 이은주 이은진 이은희 이의남 이익수 이인상 이인숙 이임순 이장연 이장혁 이재국 이재숙 이재호 이정숙 이정애 이정희 이정자 이정주 이정희 이종순 이종자 이종찬 이주연 이준석 이준섭 이준자 이중근 이지영 이지은 이지현 이진석 이진수 이진영 이진희 이창숙 이창훈 이천희 이철규 이철주 이청 이춘근 이춘정 이태우 이태인 이태호 이태희 이판순 이필순 이한득 이한숙 이한희 이한희 이해섭 이향미 이혜숙 이현경 이현규 이현숙 이현실 이현안 이현양 이현주 이현호 이형신 이형호 이혜란 이혜숙 이혜옥 이호진 이화숙 이효순 이훈모 이희숙 인천신행회 임경희 임금지 임기남 임명옥 임명진 임문숙임선원 임선희 임소연 임영애 임영이 임옥빈 임옥재 임완식 임은석 임재선 임재순 임정숙 임종구 임종미 임창건 임채임 임춘심 임해순 임형준 임호신 임홍빈 임효자 자서울월곡 장금강심 장미 장미순 장미옥 장성윤 장세승 장영남 장영순 장영찬 장왕자 장재원 장정 장정기쪽 장정숙 장정자 장정희 장혜복 장혜정 장현민 장현식 장혜선 전갑일 전계연 전계영 전규백 전무정 전병임 전병제 전복순 전삼우 전수남 전수남 전순석 전연숙 전연석 전연택 전영자 전유지 전유진 전은정 전은희 전인성 전인영 전인호 전정숙 전정순 전정애 전정희 전진희 전현수 전현진 정건재 정계영 정고비 정구순 정규열 정금란 정금자 정대자 정동순 정동한 정모아 정무영 정문식 정미경 정미령 정미향 정민아 정복순 정분선 정삼준 정상환 정수자 정숙남 정숙희 정순경 정순옥 정순재 정은경 정의진 정인순 정인실 정점오 정정국 정정수 정정순 정정자 정정희 정진호 정진우 정진희 정차순 정철숙 정청래 정픽준 정필수 정필준 정하석 정학선 정해정 정해택 정현동 정훈채 제숙희 제주보훈회 조경숙 조공자 조공옥 조금숙 조길옥 조남자 조남경 조동만 조명래 조명숙 조명식 조미란 조미숙 조미순 조민우 조봉호 조분숙 조상호 조성국 조승근 조승우 조약식 조양자 조영숙 조옥순 조옥희 조은호 조은미 조인규 조장현 조정훈 조진한 조철제 조해연 조현애 조혜숙 조혜연 주경숙 주영란 주우순 주인공 주정숙 주현순 주희숙 지경애 지모봉사모임 지순임 지연옥 지영희 지유미 지인희 지청인 지혜선 진갑임 진경상 진경수 진광현 진말련 진병웅 진수남 진영옥 진옥례 진옥영 진재영 진정임 차동호 차민영 차상환 차수환 차승옥 차정순 차현주 차희자 채희순 천미희 천병길 천복연 천상봉 천양우 천재경 천현숙 천화조 청주교도소 최경근 최경택 최경자 최경진 최광복 최동예 최만례 최명희 최미숙 최미현 최범순 최병도 최병언 최병조 최병준 최복내 최복섭 최복순 최상철 최서윤 최석원 최선영 최성근 최성대 최성후 최수현 최실혜 최영도 최영명 최영봉 최영숙 최우수 최윤정 최은희 최인숙 최인자 최재우 최정근 최정기 최정림 최정문 최정미 최종열 최종원 최주현 최준성 최진명 최진희 최현주 최혜선 최혜라 최호자 최효자 최희원 추월희 태국지원 태순덕 표혜명 하금자 하명자 하미경 하미희 하석남 하선희 하성호 하숙진 하순애 하은숙 하정옥 하재현 하정숙 하정희 하혜경 하홍용 한경규 한경호 한국여성불교한기늠 한기선 한기영 한마음사랑방 한마음선원 한명숙 한미순 한방근 한병조 한상현 한수정 한숙희 한순례 한순옥 한승자 한아름 한양지 한영옥 한영전 한윤경 한은선 한인식 한입련 한정석 한정선 한희원 한춘영 한태희 한화윤 한효심 함광점 함광정 함기석 함명수 함영숙 함지윤 허명희 허상임 허석남 허선숙 허성국 허수자 허승자 허희숙 허재영 허점자 허정자 허정훈 허종환 허찬웅 허찬응 허학연 허희숙 현미숙 현불회 현수천 현월스님 현추월 혜월당 호소희 홍경숙 홍명숙 홍민자 홍병숙 홍소순 홍순아 홍순임 홍영순 홍영호 홍인자 홍임표 황경숙 황금철 황기용 황노철 황문희 황순수 황순심 황영분 황옥란 황옥석 황옥순 황옥자 황용숙 황인혜 황점숙 황정숙 황정애 황정희 황제숙 황지현 황지혜 황혜준 회광내

군법당 찾아 신행집 보시·회향

석불선양회 백골·열쇠·비룡부대 위문

15일 강원도 철원군 백골부대 사단법당인 호국삼불사. 법회를 마치면 서둘러 돌아가기에 바쁘던 장병 불자들이 오늘은 좀처럼 자리를 뜨지 않는다. 한국석불선양회 회원들이 이들을 위문하러 찾아 왔기 때문이다.

석불선양회 이귀인 회장과 이명숙 회원, 문기자 회원이 정성껏 준비한 간식과 현대불교 신행수기 모음집 <부처님 어떤 복을 지을까요>을 한권씩 나누어 주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재미있게 불교 공부를 하라고 이 책을 고른 것이다. 벌써 몇몇 장병 불자들은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눈치다.

이번 법회를 보고 전역을 한다는 김종명 병장은 "군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드문데, 불자들이 멀리서 찾아와줘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워한다. 진솔한 내용으로 가득찬 신행수기모음집은 최전방 철책선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날 석불선양회는 백골부대를 비롯해 5사단 열쇠부대, 25사단 비룡부대를 방문,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 불자들에게 <부처님, 어떤복…> 300여권 전달했다. 이번 법보시는 석불선양회 회원들이 군불자의 신심을 고취하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회비를 모아 마련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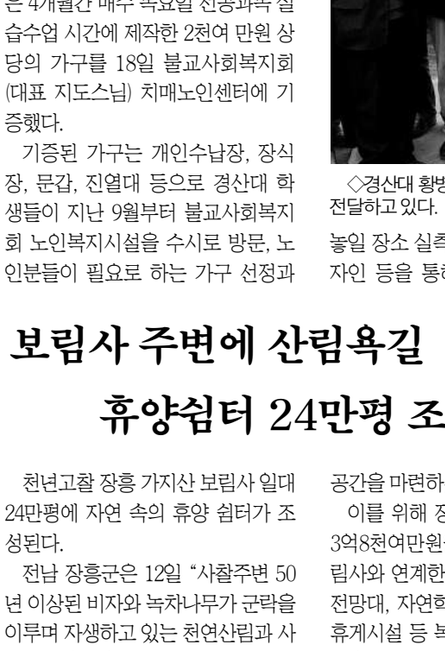
이귀인 회장은 "군 불자들을 위한 위문법회를 갖고 법보시를 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 법당을 자주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 3월 발족된 석불선양회는 법당에서 예배와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방치된 채 훼손되는 전국의 석불들을 찾아가 법회를 열고 부처님께 예불과 다례를 올리며 신심을 쌓아왔다. 이와 함께 불상 주변 정리 및 청소, 석불 관련 강좌 개최, 자연보호 운동, 108배 참선, 군부대와 복지관 등을 방문, 겨울 철새 모이주기 등을 꾸준히 펼쳐왔다. (016)267-7945.

철원= 강유신기자



◇석불선양회 회원들이 15일 최전선에 있는 백골부대 군법당을 방문, 신행수기 모음집 <부처님, 어떤 복을 지을까요>를 전달하고 있다.



◇청담 사상연구소 개원기념 학술세미나가 17일 진주산업대에서 개최됐다.

청담사상연구소 개소

17일 진주산업대…사상조명 세미나도

"수행불교, 실천불교, 생활불교를 제창했던 청담 스님은, 단 한사람이라도 현상 스님(전 중앙승가대 총장)의 주제발표는 청담 스님의 삶과 '모든 현상의 원인은 마음에서 발생되어 마음으로 종결한다'는 마음 사상을 되살리는 순간이었다.

청담문화재단, 청담문도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청담 스님 탄신 100주기를 맞아 진주산업대학교 내에 청담사상연구소를 열면서 가진 뜻깊은 행사로 청담사상연구소 고문 혜성스님등 2백여 사부대중이 참석, 청담스님의 유지를 기렸다.

목정배 서울불교대학원대학 총장은 '청담대종사의 마음 사상'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모든 상대는 적이 아니고 보살이라는 사상과 너와 나라는 일체 생각을 떠난 평등을 실천해야 한다는 스님의 원력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담사상연구소 소장 김기원 교수도 "청담 스님의 사상과 문학을 선양하는 사업을 통해 마음사상이 근간이 되는 가치관 정립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천미희기자

동화사·대구사원주지련 화합

성도절법회 공동봉행 합의

부처님 성도절 법회가 대구지역 불교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불교계의 양대 축이면서 갈등관계에 놓여 있었던 팔공산 동화사(주지 지성스님)와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스님)가 성도절 법회를 1월 10일 오후 2시 대구체육관에서 공동 봉행키로 최근 합의했다.

동화사의 한 관계자는 "성도절 합동법회는 근래 들어 동화사와 사원주지연합회 간 수차례의 물밑접촉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이라며 "지역불교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법회 개최는 동화사와 사원주지연의 갈등의 중심에 서 있던 대구불교회관의 건립문제가 지난달 사원주지연합회에서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옛 태왕본사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서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풀린 것으로 분석된다.

박원구기자

고려태조창건 개태사지 75억 들여 복원추진

고려 태조 왕건이 개창한 논산 개태사(開泰寺)가 75억 들여 복원이 추진된다.

논산시의 의뢰를 받아 개태사지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한 공주대 박물관(관장 이남석)은 18일 최종보고회에서 "개태사가 현재 알려진 사역보다 규모가 큰 고려 초기의 사찰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주대 조사팀은 "사지는 불전지(佛殿址)와 진전지(眞殿址.태조 영정봉안)로 구분 조성돼 당시의 축대, 건축부재, 석재, 와당 등의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며 "그 동안 알려진 개태사 주변의 토성이 북단으로 약 1㎞, 동쪽으로는 500m, 남쪽으로 400m에 걸쳐 토루(土壘)의 흔적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개태사지 정비를 위해 ▲정밀발굴조사 ▲국가지정 문화재승격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용화사 진입로 우회 ▲진입로 개선 및 임시주차시설 확보 등을 제안했다.

개태사는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정벌의 공이 부처님의 가호에 의한 것이라 하여 황산을 천호산으로 지칭하고 삼국을 통일, 큰 세상을 열였다 하여 개태사를 창건했다.

김원우 기자

개금복지관 ISO획득

부산 개금복지관이 최근 미국 AQA의 ISO9001:2000 인증을 획득했다. ISO 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은 복지관의 복지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제도로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복지관 평가, 복지서비스 품질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천미희 기자

지역불교 복지단체에 대학생들 '사랑의 가구'

대학생들이 학과 실습시간에 제작한 '사랑의 가구'를 지역 불교 복지단체에 기증했다.

경산대 실내건축학전공 학생 42명은 4개월간 매주 목요일 전공과목 실습수업 시간에 제작한 2천여 만원 상당의 가구를 18일 불교사회복지회(대표 지도스님) 치매노인센터에 기증했다.

기증된 가구는 개인수납장, 장식장, 문갑, 진열대 등으로 경산대 학생들이 지난 9월부터 불교사회복지회 노인복지시설을 수시로 방문, 노인분들이 필요로 하는 가구 선정과 놓일 장소 실측, 기능성을 고려한 디자인 등을 통해 100여일간에 걸쳐 제작된 것이다.

박원구기자



◇경산대 황병태총장이 18일 불교사회복지회장 지도스님에게 사랑의 가구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보림사 주변에 산림욕길 휴양쉼터 24만평 조성

천년고찰 장흥 가지산 보림사 일대 24만평에 자연 속의 휴양 쉼터가 조성된다.

전남 장흥군은 12일 "사찰주변 50년 이상된 비자와 녹차나무가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고 있는 천연산림과 사찰 문화유산을 연계하는 복합적 문화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장흥군은 내년 2월까지 3억8천여만원을 투입해 2.4㎞의 보림사와 연계한 삼림욕길을 개설하고 전망대, 자연학습장, 체육시설, 각종 휴게시설 등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시민위해 문화공연 펼쳐 김해불교사암연합회

김해불교사암연합회(회장 덕일)는 14일 김해학생체육관에서 가야불교문화원 기공을 기념해 시민들을 위한 수인사 유치원과 시청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사물놀이, 다도, 화관무, 바라춤 등과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의 어린이 수화공연 대금연주, 고전무용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이에 앞서 열린 가야불교문화원 건립 기념법회는 은하사 주지 대성스님, 송은복 김해시장 등 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경과보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 봉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덕일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불교가 이 시대 우리 민족의 중심사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가야불교문화원 건립을 원만 성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기자

대구 우수학교법인에 진각종 회당학원 선정

진각종 회당학원이 학교법인 경영평가에서 대구지역 우수학교법인으로 선정됐다.

회당학원은 14일 대구시 교육청이 선정한 5개 우수학교법인 중 우수법인으로 선정돼 상장과 함께 2천여만원의 자구노력지원금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구 교육청은 사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2년간 대구지역 학교법인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박원구기자

"저보고 절하는데 미쳤대요"

동두천 불면암 이호진 거사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절하는데 미친 사람이래요. 10여년 동안 매일 5백배 이상씩을 해온 덕분에 붙여진 별명이죠. 무엇에 미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저 부처님께 절만 열심히 했습니다."

동두천 불면암신도회 고문 이호진 거사(57)는 불면암에서 돌째가라면 서러워할 '절도사(?)'다. 모든 신도들이 그의 절 수행에 혀를 내두른다. 그것도 혼자서만 하는게 아니다. 요즈음은 부인 박미덕 보살(52)과 딸 이다영(28), 아들 이승영(26) 등 네 식구 모두가 거의 2~3일에 한번 꼴로 절에 나와 1080배 참회정진을 한다. 스님들도 매일 하기 어려운 1080배 정진을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인가 깊은 초발심의 동기가 있을 것 같았다.

"10년전 이유없이 몸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어요. 온 몸에 기운이 없어지고 정신이 몽롱해 지는 현상이 오랫동안 계속돼 직장을 더이상 다니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병마로 가정은 점점 더 어려워져 깊은 시름에 잠기게 됐는데 주변에서 절에 한번 나가서 기도를 해보라고 권하더군요."

이 거사는 집 근처에 있는 불면암 주지 스님을 찾아갔다. 대명 주지 스님의 권유로 108배부터 시작한 절수행이 이제는 불면암 신도들이 보고 따라할 정도로 능숙해 졌다. 5년이 지나자 아픈 몸도 씻은 듯이 나았고, 현재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할 만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런 자신의 수행체험을 바탕으로 이거사는 요즈음 동두천 불면암과 서울 상계동 포교당인 미타선원을 오가며 사찰을 처음 찾은 초발심자들에게 조언을 해준다. 실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도들을 상담해 주다보니 많은 사람이 믿고 따르는 의지처로 생각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2년과정으로 생긴 미타불교대학에서 매주 화요일이면 기초교리와 경전을 공부한다. 또 공부한 지식을 실천행에 옮기기 위해 신도들과 함께 동두천 일대의 무의탁 노인 돕기 운동을 앞장서 펼치고 있다. 내년에는 남양주시까지 확대해 노인 한분과 1가족이 자매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두천 일대에는 지역 특성상 유흥업에 종사하는 러시아와 필리핀 여성들이 많습니다. 새해부터는 주지 스님과 함께 이들의 포교에 진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찰 주변에 주말농장을 운영해 신도들이 언제든지 마음놓고 찾아와 농작물도 재배하며 수행할 수 있도록 꾸밀 것입니다." 절에 미친 이 거사가 새해부터는 포교와 도량 가꾸기에 '미치겠다'는 야심찬 각오를 밝힌다.

동두천= 김주일기자



◇이호진 거사는 거의 이틀에 한번씩 가족들과 함께 사찰에 나와 1080배 정진을 한다. 사진 왼쪽부터 딸 다영, 부인 박미덕 보살, 이호진 거사

추천의 말

대명스님 불면암 주지



이호진 거사는 절하기 수행에 있어서 만큼 우리 절 신도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집에서 또는 사찰에서 5백배 이상 정진하는 이 거사의 성실한 모습은 스님인 저도 감탄할 정도입니다. 신도들 또한 이 거사를 좋은 도반으로서 믿고 따릅니다. 이 거사는 절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묵묵히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을 낮추고 묵묵히 남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찰에 나와서도 온갖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성실성을 불자들이 본받았으면 합니다.

우리 절 우리 신도

유흥업종사자 대상 포교할 계획

실상사 화림원 금강경결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기복신앙·신비주의 빠져 구체적인 삶에 대응못해"

'한국불교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현재 믿음이 세간에서는 기복불교로 출세간에서는 신비주의로 빠져 구체적인 삶에 응답을 못하고 있다'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의 지적처럼 네 번째 논강의 핵심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였다. 14일 1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남원 실상사 화림원 강당에서 열린 논강은 자칫 자구해석으로 그칠 수 있는 논의를 현실과 결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각묵스님은 발제를 통해 "초기경전에서 믿음으로 쓰이는 단어는 삿다(saddhā), 빠사다(pasāda), 아디목카(adhimokkha) 세 가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중 "삿다는 우리말의 '신뢰'라는 용어에 해당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생기는 신뢰감 그것이 초기불교에서 나타나는 삿다의 근본의미"라고 정의내렸다.

또 "빠사다는 신뢰를 가지거나 법을 이해하고 사물을 바르게 판단해서 오는 마음의 편안함, 환희로움, 밝음, 분명한 그리고 이런 분명함에서 오는 의심 없음, 마음의 편안함 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삿다와 구별하고, "아디목카는 논서에서 보면 믿음의 요소로 나타날 때는 신뢰(삿다)와 분명함(빠사다)에 바탕한 확신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며 세 가지를 구분했다.

남원에서 왔다는 한 재가불자는 "각묵스님이 말하는 믿음이란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생기는 신뢰, 순수한 믿음, 확신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도법스님은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는 어머니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먹는다"며 "와서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불교의 가르침과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또 "부처님이 그랬으니까 큰 스님이 그랬으니까 라는 경외심에서 비롯된 믿음이 불자들에게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산에서 왔다는 재가불자는 "도법스님의 지적처럼 재가불자들은 알고 믿는 것보다 맹목적으로 믿는 경향이 많다"며 "재가불자들이 할 수 없는 것(깨달음)을 스님이 대신하고 재가불자들은 스님에게 의존하여 불교를 믿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함양에서 왔다는 한 스님은 "우리가 부처라는 참된 믿음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특히 스님들의 이야기를 재가불자들이 정말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도법스님은 "잘못된 결과가 나타났다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한국불교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현재 믿음이 세간에서는 기복불교로 출세간에서는 신비주의로 빠져 구체적인 삶에 응답을 못하고 있다"고 말해 자칫 자구 해석으로 그칠 수 있는 논의를 현실과 결부시켰다.

익산에서 왔다는 한 스님은 "한국불교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국민 전체의 수준이고 기복불교도 부처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순천에서 왔다는 재가불자는 "비록 재가자들이 비불교적인 믿음으로 절에 와도 스님들이 제대로 지도하면 된다"며 "한국불교 문제는 바로 스님들의 문제"라고 재 반박했다.

포항에서 왔다는 한 재가불자는 "많은 수의 미국 젊은이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것처럼 한국 종교의 공동화 현상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불교의 무아사상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21C 새로운 문화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강스님은 "금강경의 깊은 가르침은 믿음과 결부되는데 그 가르침이 참되다는 상을 일으킨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변상과 금강경에서 참되다는 상은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법스님은 "생각은 낼 수 있지만 집착으로 나가면 안된다"며 "합리적인 생각도 절대화되면 상"이라고 결론 맺었다.

남원= 남동우기자

'맹목적 믿음' 가진 재가불자들 많아 합리적인 생각도 절대화 되면 '相'

고려말 보우원증 법통 전승…주요종단 자리매김



◇충남 논산시 노성면에 자리잡은 법륜종 총본산 지장암 전경.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종단이 16개, '법화종' 5개, '관음종' 3개 등 유사명칭 사용 종단이 대폭 늘어나면서 불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기성 종단들이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4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종단난립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지난 7월 11일자로 종교법인 인·허가 관련 협조를 정부, 광역시, 도청 등 자치 단체에 요청하여 전통불교의 위상에 걸맞는 종단설립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종단불교의 특성을 지닌 한국불교 종단 가운데 한국불교의 공식 대표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주요 종단 25개를 대상으로 종지, 종풍, 교세 등을 살펴, 종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높여 정법 포교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열독을 바랍니다. ■
후원=(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국불교-종단순례

한국불교 법륜종

한국불교 법륜종 약사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온 이래로 교와 선이 함께 융성했지만, 대립과 분쟁이 잦아 혼란이 거듭돼 왔다. 이에 고려 말엽 보우원증(菩愚圓證) 국사께서 일불승(一佛乘)의 대법(大法)을 크게 제창하시어, 이로부터 불교의 독자적인 종문(宗門)이 열렸다. 이 같은 보우원증 국사의 법통을 오늘날에 되살리기 위해 지난 1988년 대전 보광사에서 초대 종정에 금암(錦岩) 대종사를 모시고 한국불교 법륜종 창종을 선언했으며, 이는 일제 때 제정됐던 불교악법인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된 이후, 같은 해에 첫 창종이었다. 이어 1990년 6월 15일에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등록했다.

법륜종은 현재 전국 2백50여개의 사찰과 2백30여명의 스님, 1백만 명의 신도를 자랑하는 명실공히 불교계 주요 종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88년 서울 도봉구에서 일화(一華) 스님을 초대 총무원장으로 종문을 활짝 연 법륜종은 이듬해 2월 경기도 봉덕사에서 제1기 포교사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충남 보명사에서 종단 중앙연수원을 개원하는 등 종단 승가 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

법륜종은 1991년 4월 문화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92년에는 <월간 법륜종보>를 창간해 문서포교에도 앞장섰다. 이후 1996년에는 목포 보현정사에서 종단차원으로 단일계단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했으며, 2000년 1월 제3대 종정에 정각 스님(보현정사 주지)이 추대됐다.

한국불교 법륜종 종지종풍

●종명 : 재단법인 한국불교법륜종(韓國佛敎法輪宗)
●교주 :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종조 : 보우원증국사(菩愚圓證國師)
●중흥조 : 청허휴정선사(淸虛休靜禪師)
●종지 : 석가모니불의 자각각타(自覺覺他)하신 각행원만(覺行圓滿)의 근본정신(根本精神)을 봉체(奉體)하고 종조(宗祖)의 선교쌍수(禪敎雙修)의 통불교적(通佛敎的)인 종풍(宗風)을 선양(宣揚)하여 전법도생(傳法度生)함을 종지(宗指)로 한다.
●종통 : 가섭존자(迦葉尊者)로부터 연원(淵源)된 第56代 석옥(石屋) 청공선사(淸珙禪師)의 법통(法通)을 이어받아 고려(高麗) 공민왕(恭愍王) 때 보우원증국사(菩愚圓證國師)의 원융종풍(圓融宗風)을 종통(宗統)으로 삼아 그 법맥(法脈)을 면면(綿綿)히 계계승승(繼繼承承)한다.
●소의경전 : <화엄경(華嚴經)>과 <금강경(金剛經)>으로 하고, 기타 경전(經典)의 연구와 지송(持誦)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한국불교 법륜종 조직

종정예하 : 靈山正覺大律師	포교원장 : 性學
예경실장 : 慈明	총무부장 : 度明
초대종정 : 錦岩 大永	교무부장 : 光眞
원로원장 : 慧牛 智用	사회부장 : 彗星
사정원장 : 碧松	문화사업부장 : 優澔
사정원부원장 : 虛舟 石湖	재무부장 : 智嚴
중앙종회의장 : 慧眼 唯景	규정부장 : 賢悟
중앙종회부의장 : 度昇, 聖陀	총무국장 : 道一
총무원장 : 德山 昌法	사회국장 : 金輪
총무원부원장 : 普明, 古山	재무국장 : 三慧
교육원장 : 法泉	교무국장 : 善門
연수원장 : 明眞	규정국장 : 龍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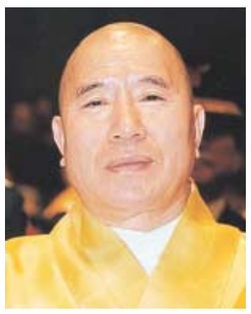
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

충남 논산시 노성면 화곡리 44-7
전화 041)734-5377~8, 팩스 041)734-5379

사찰 250·신도 100만명…1988년 창종

"율법 재정립…사회 이끄는 불교로"

법륜종 종정 정각스님



"통불교인 한국불교의 전통을 살려 불자들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하는 자세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불교는 그동안 '받기' 위주였는데, '주는' 불교, 사회에 회향하고, 사회를 이끄는 불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출가 후 50년 가까이, 새벽 3시 예불에 참석하고 7시까지 기도와 참선을 하루도 빼놓지 않을 정도로 수행자의 길을 철저히 걸어가고 있는 법륜종 종정 정각스님은 불교 불모지인 호남권에서 보현정사를 목포 지역 최대 사찰로 중창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선(禪) 교(敎) 율(律)을 두루 겸비한 대표적인 율사스님중 한분인 정각스님은 불교의 생명은 철저한 계율에 있다며 "시대에 부응하는 율법을 재정립해 선포하고 스님들은 엄격하게 지켜야 승가가 존경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지난 3월 그동안 정재를 알뜰히 관리해 모은 8억을 목포시에 내놓아 '두리아카데미'를 설립했다. 두리아카데미를 통해 문화·복지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스님은, 스님들이 사회의 한 축이 되어 사회정화와 발전에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군불교진흥회의 회장을 맡을 만큼 군포교와 재소자 포교에도 관심이 지대한 스님은 30여년 넘게 재소자교화 활동을 해 온 공로로 수많은 표창과 지난 98년에는 교정대상 대통령상까지 받았을 정도다.

선·교·율 두루 겸비…군·재소자 포교 앞장

요즘 이름도 비슷한 신생 불교종단들의 난립에 대해 불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정각스님은 "종단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공신력이 있어야 하고 재단이 확보되어야 하며 종도가 결집이 되어야 하는데, 되는대로 쉽게 만들어진 종단들은 그 구성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게 된다"며 "한국 대표종단들의 협의체인 불교종단협의회에서 설립기준을 마련하여 신생 종단들이 우후죽순 난립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과 함께하는 종단으로 육성

법륜종 총무원장 창법스님



"대중과 함께하는 종단으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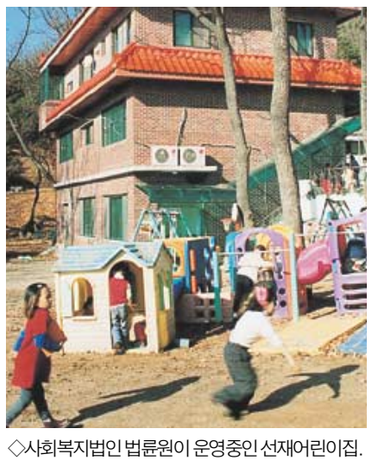
한국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창법 스님(논산 지장암 주지)은 법륜종 총본산 지장암에서 종단의 비전과 종무방침을 이렇게 밝혔다.

지난 88년 창종에 이어 91년 종정 일화스님을 이사장으로 재단법인을 설립, 불교계의 주목을 받는 종단으로 출범한 법륜종은 새롭게 종단발전의 중흥기를 열고 있다. 그동안 법륜종 종정예경 실장, 종회의원,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 등 종단의 요직은 물론, 왕성한 불교계 활동을 펼쳐온 창법 스님은 법륜종의 위상 제고와 함께 법륜종이 시대를 선도하는 종단으로 자리 잡는데 열정을 쏟고 있다.

"총무원장에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전국 법륜종 사찰의 순방이었습니다. 스님과 종도들의, 종단발전의 식지 않는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단 구성원의 염원을 종단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법륜종이 명실상부한 대승교화종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총무원장 창법스님은 특히 11월 30일 열린 창종 15주년 기념법회에서 종단 총본산 건립의 닻을 올렸다. 수행과 교육의 중심도량이 될 총본산에는 강원 및 율원, 영산범패교육원, 사회복지법인 법륜원 사무국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를 위해 총무원장 창법스님은 총본산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3년간 10억원을 모금할 계획이다.

새싹불자 육성·경전 대중화 앞장 종단주요사업



◇사회복지법인 법륜원이 운영중인 선재어린이집.

복지

유치원 4·어린이집 2곳 운영 지장암에 연화대…납골봉안

법륜종의 복지 사업은 2000년 8월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법륜원으로 대변된다. 저소득가정의 자녀 보육을 위해 그동안 법륜종은 목포 보현유치원을 비롯 논산 지장암에 보육시설인 선재어린이 집, 인천 정도사 효성어린이집, 공주 원효유치원 등 종단 산하 유치원 4개, 어린이 집 2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법륜종은 전국 주요 사찰에 사회복지법인 법륜원의 지부를 설치,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아동복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분야에도 복지사업영역을 특화시키고 있다. 특히 종단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효도관광이나 경로잔치 등은 이미 이 지역에서 '법륜종은 노인복지 종단'이라는 대명사가 붙을 만큼, 그 명성 또한 대단하다. 게다가 법륜종은 화장문화를 오늘날에 되살리고자 지난 2000년부터 납골사업에도 뛰어들었다. 현재 목포 보현정사, 논산 지장암, 양평 갈월사에 납골영탑 시설이 있다. 특히 법륜종 총본산인 지장암에는 전체 2,700여기의 납골을 봉안할 수 있는 연화대(蓮花臺)가 설치돼 있으며, 앞으로 종단 차원에서 납골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 6월 금강하구에서 봉행된 방생법회.

교육

강원·율원·영산범음범패등 체계적인 승가교육시스템

법륜종의 교육은 강원, 율원, 영산범음범패 등의 체계적인 승가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올해 4월 논산 용국사에 개설한 전문강원, 목표 보현정사율원 등을 비롯해 5년 전부터 예산 법륜사에서 영산범음범패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재가교육의 경우, 어린이 포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불교를 이끌어 갈 새싹불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불교도서출간에 심혈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법륜종은 그동안 학술도서연구 작업을 진행시켜, 드디어 12월 13일 <우리말 그림 도설 지장경>을 발간했다. 이는 포교와 교육을 접목해 법륜종이 벌이는 역경사업으로, 법륜종은 앞으로 주요 불교경전을 만화 형식으로 계속 발간해 불교 대중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2천7백여기를 봉안할수 있는 납골당연화대(蓮花臺).

국제교류

대만·미얀마·일본 불교계와 불교문화교류 꾸준히 추진

법륜종의 국제교류는 대만 불교계와 10년 넘게 교류하고 있는 '동수회(同修會)'로 대변할 수 있다. 원로회의 의장인 혜우 스님이 주축이 된 동수회는 그동안 대만에서 열린 세계승가대회에 즐곧 참가하는 등 양국 불교문화교류협력에 지대한 노력을 해왔다. 또 98년부터는 미얀마 불교계와 국제교류를 벌이면서 현지에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총무원장 창법 스님은 한일불교교류협의회의 이사를 맡는 등 일본 불교계와의 교류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00년 대만서 열린 '세계승가대회'에 참가한 법륜종 방문단.

대전광역시 시범납골당
계룡산 구암사
극락처럼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042)822-2377 홈페이지 www.guamsa.or.kr



◇부산 사람 모두가 다 아는 불자인 김윤환 · 이경순 부부는 그들의 보금자리인 '영광도서'에서 지역문화를 이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해내고 있다.

"서점은 책만 파는 곳이 아닙니다"

책장사 남편 · 사진가 아내 김윤환 · 이경순 씨의 삶

"영광도서 앞에서 만나요."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했음직한 약속의 말이다. 1968년 5월 문을 열어 이제 부산시민 모두에게 서점의 대명사이자 반가운 사람과 만나는 장소가 되어버린 영광도서. 김윤환(53. 법명 현암)사장과 이경순(50. 법명 옥화장)실장, 이들 부부의 전생애가 담긴 곳이기도 하다.

만남의 명소된 영광도서

경남 함안의 시골 마을에서 '상경'에 버금가는 심정으로 부산으로 온 김 사장의 성실과 뚝심으로 일군 영광도서. 34년의 역사와 함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 서점조차 흉내 내지 못하는 문화공간인 '영광도서 사랑방'과 '영광갤러리'는 부산 문화를 이끄는 중심이 되고 있다. 70평 규모의 사랑방은 85회 째를 맞은 독서토론회 뿐만 아니라 불교합창단 연습실, 각종 행사장으로 무료 대여되고 있으며, 영광갤러리 또한 불교관련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한문학당, 소설학당, 서예학당 등의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이 모두가 눈앞의 이익보다는 고객들의 삶의 질까지 책임지겠다는 김 사장의 경영 철학과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문화공간으로서 서점의 활동반경을 점점 더 넓혀갈 것"이라는 김 사장은 "지역민들과 함께 삶의 희망을 일구어가는 '행복한 책방'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영광도서 같은 서점을 만드는 것'이 전국서점연합회 회원들의 꿈일 정도로 영광도서는 전국 서점가의 모범답안이 되고 있지만 김 사장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문화공간 '사랑방' · '갤러리'

"도서박물관을 세우고 싶다. 책을 기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받아 줄 곳이 없어 버려지는 책들이 많다. 책은 문화이고 역사이며 정신세계를 이끄는 것인데 그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스님들의 소장 도서나 고서들을 모아 도서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마지막 남은 꿈이라고 말한다.

이같은 김 사장 옆에는 언제나 부인 이경순 씨가 있다. 이 씨는 연꽃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다. 73년 결혼해 서점의 안주인으로 카운터부터 책 정리까지 서점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았던 이 씨는, 서점이 자리를 잡자 연꽃 사진을 통해 내면을 관조하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98년부터 서점 내 영광갤러리를 개관하고 관장을 맡고 있는 이 씨는 연꽃 사진을 찍는 작가들 사이에서는 렌즈에 포착된 연꽃을 통해 진리의 세계를 형상화하는 안목이 남다르다는 평을 듣는다.

부인, 연꽃사진집 2권 펴내

5년 전 아들이 사진학과에 입학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이 실장의 사진 활동은 부처님을 향한 기도이자 수행이다. 이른 새벽, 사진기를 챙겨 들고 길을 나서는 구도여정을 통해 이미 <연옥(蓮玉)의 담(談)> <나도 조금은 연꽃을 닮고 싶다> 등 두 권의 사진집을 냈고 전시회도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작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한 이 씨는 대학원에서 작품세계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깊이를 더하고 있는 부인의 작품 활동에 대해 남편은 "마치 신들린 사람 같다. 연꽃이 부른다며 새벽마다 연꽃을 찾아 나서는 아내를 보면 부처님에 대한 신심과 작가 정신에 놀랄 때가 많다"고 말한다.

영광갤러리 사무실에서 만난 이들 부부의 모습은 마치 알맞은 거리를 두고 사이좋게 서있는 나무 같았다. 서점 주인과 책을 사러왔던 손님으로 만나 부부가 된 두 사람은 각자의 영역에서 일가를 이루기까지 간섭하지 않고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최고의 동반자였다. 두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동반자가 있었기에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서로 감사해 한다.

"아내 덕분에 자리를 빨리 잡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워낙 활발하고 추진력이 있었거든요. 역할 분담이 잘됐다고 할까요?" 김 사장은 이런 아내의 역할을 내조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늘 '사업의 파트너' 자리에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뛰어난 직관력과 실행력을 가진 아내는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신중한 남편에게 안성맞춤의 동반자였다.

두 사람은 사업에서 뿐 아니라 생활이나 수행에 있어서도 최고의 도반이다. 108배를 함께 하고 경전공부 모임에서 같이 공부하는 도반인 이들 부부는 성공한 서점 경영자, 이름난 사진작가이기 이전에 불자답게 사는 길을 찾게 해 준 영광도서에서 아름다운 회향을 꿈꾸고 있다.

글=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김윤환 · 이경순 부부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수행의 도반으로서 참 불자의 길을 향해 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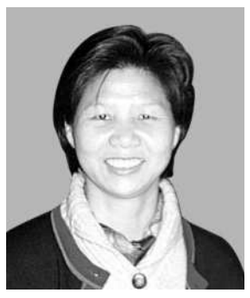
릴레이 수행일기

입술 트고 목 부어도 능엄경 독송

기도후 몸 가벼워지고 정신 맑아져

강선희(上)

위빠싸나선원 교화부장



벌써 4년 전의 일이다. 자기가 직접 참회하면서 발원하는 기도가 제일이라는 한 도반의 말을 듣고, 봉은사 나한전에 다니면서 칠일 기도를 하였다. 칠일간의 회향을 하고 내려오다가 서점에 들렀는데, <대여래불정능엄주>라고 큰 글씨로 쓰여진 한권의 책이 눈에 띄었다.

책장을 넘기자 책머리에 "수행자는 누구든지 수행의 완성과정으로 여래의 불정수능엄경을 수행해서 깨달아야 불교의 철리(哲理)를 알고, 무상정변지정각(無上正遍知正覺)을 깨달아서 부처님의 마정수기(摩頂授記)를 받아 성불한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 글귀를 읽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다. "이 다라니는 부처님과 존자님들께서 나에게 주시는 칠일기도 회향의 선물이다"라는 확신이 들었다.

서둘러 집에 와서 밤새도록 능엄주를 읽었다. 능엄주는 발음도 어렵거니와 길어서 소리를 내어 읽기조차도 힘이 들었다. 여러 번 읽기를 일주일쯤 하였더니 조금씩 빠르고 자연스럽게 읽을 수가 있었다.

이후 능엄주를 외우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입술이 부르트고 목이 부어오르면서 이빨이 시리고 피곤해서 힘이 들었다. 그래도 쉬지 않고 독송했다. 기도처도 찾아다니고, 집에서도 외우면서 수없이 반복하였다. 그런데 능엄주를 독송하는 동안, 이상하게도 기도하러 가는 곳마다 능엄주를 외우는 스님들을 만나게 되고, 능엄주만을 독송하는 도량을 가게 되었다.

이토록 매일같이 능엄주를 열심히 독송하였더니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능엄주를 주력해야겠다는 각오로, 2000년 새해부터 100일 기도를 입제해 하루도 빠짐없이 108독 이상씩 독송하였다. 어떠한 장애나 어려운 일에도 굴하지 않고,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 까지도 계속했다. 그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정진해 나아갔더니, 능엄주 독송시간이 점점 짧아져서, 108독씩 하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15시간 걸리던 것이, 10시간 정도로 단축되었다. 이렇게 독송 시간이 단축되면서 남는 시간에 망상을 줄이기 위해 점점 횟수를 늘려가며 계속 하였다.

100일 기도를 시작한 며칠 뒤 꿈속에서 삼각산 승가사의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후, 매주 토요일이면 승가사에 가서 철야정진을 했다.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쯤 능엄주 108독을 끝내고 다시 또 독송해 가는데, 몸에서 뭔가 '툭'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면서 무거운 짊 덩어리가 씻겨 내려간 듯 가볍고 산뜻하여 정신은 점점 더 맑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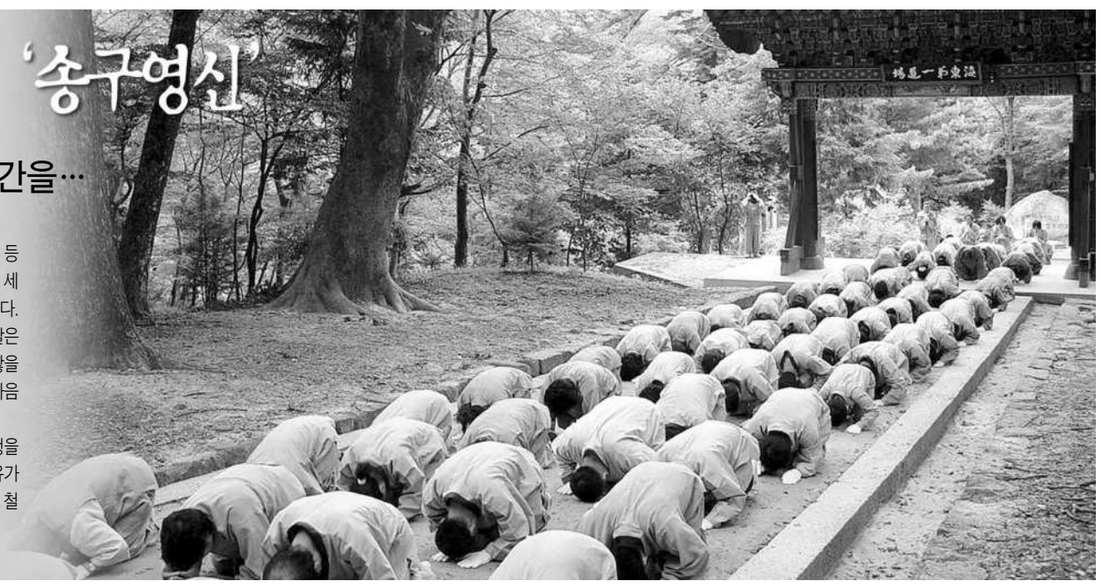
혼자서 이토록 정진을 40여일 할 때쯤 어느 큰스님의 권유로 서울 강남의 무불선원에 나가게 되었다. 빌딩 안에 있는 무불선원에 들어서자 선 체조와 호흡을 조도법으로써 가르치고 있었다. 이전에 혼자서 그냥 앉아서 수행을 하면, 무릎이 시리고 다리가 쉽게 절리면서 허리 등이 아파서 20여분을 앉아있기가 힘이 들고 집중이 되질 않았다.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오래 정진을 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고민을 해 오던 참인지라, 이런 방식의 참선 프로그램은 나에게는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 반가웠다. (계속)

청정한 마음으로 '송구영신'

참선·염불등으로 참나 찾는 시간을…

또 한 해가 저물어간다.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북한 핵문제, 대선 등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신문을 가득 채웠던 '다사다난' 했던 2002년. 세월은 무상(無常)의 법칙대로 이 언덕을 넘어 저 언덕을 향하고 있다. 어제 진 해와 오늘 떠오르는 해가 다를 바 없지만, 새로이 열리는 날은 또 최초의 시간이듯, 다가오는 한 해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맞지 않을 수 없다. 고요한 산사에서 분주했던 한 해를 되돌아보며 청정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는 것은 어떨까.

방학이나 휴일을 이용해 사찰 수련회에 동참해 참나를 찾는 여행을 떠나는 것도 의미있게 한 해를 갈무리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여유가 없는 이들은 주변의 시민선원이나 수행단체에서 참선, 염불 등으로 철야정진을 하는 것도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겨울 수련회는 한 해를 돌이켜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발심의 현장이다. 사진은 해인사 수련회의 3보1배 장면.

▧철야정진으로 한 해 회향

건봉사·보림회등 용맹정진

연말을 맞아 철야정진으로 한 해의 수행을 마무리 지으며 새로이 발심하는 단체들이 늘고 있다.

간화선 수행단체인 선도회는 21일~22일 1박2일간 경기도 안성 도피안사에서 철야 용맹정진을 하며 한 해의 공부를 회향했다. 현대석유화학불자회도 서산 해월사에서 송년맞이 철야정진법회를 열었으며, 만일염불결사회는 21~22일 성남 정토사에서 철야 염불정진을 했다. 또한 고성 건봉사는 20~22일 '새해맞이 동지 3일 기도'를, 서울 능인선원은 21일 '동지 철야 용맹정진 및 기도'를 했다. 특히 주말마다 철야정진을 해 온 보림회는 31일 오후 8시부터 내년 1월 6일 오전 7시까지 서울 정릉 보림사 선방에서 1주일 철야 용맹정진 법회를 갖는다. 제방 선원에서 선지식과 탁마를 거친 법랍 60, 세수 82세의 보림사 회주 묵산 노스님이 직접 지도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밖에 매주말 정기적으로 철야정진을 해 온 사찰이나 단체들도 막바지 용맹정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부산 해운정사, 화계사 선우회, 수선회는 28~29일 마지막 주말 철야 참선정진으로 참나를 찾는다. 성남 정토사, 서울 향천선원, 영산법화사도 같은 날 철야 염불 정근으로 한 해의 번뇌를 잠재운다.

여름 수련회가 휴가의 새로운 풍속도로 정착되면서 겨울 수련회도 하나 둘씩 늘어나 현재 17개 사찰이 겨울수련회를 운영중이다. 아울러 10여 사찰은 매달 1~4회의 주말수련회를 열어 재가불자나 시민들에게 수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몸과 마음을 쉬면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수련회야 말로 일상에 찌든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최고의 방편이 아닐 수 없다.

합천 해인사와 장성 백양사는 3박4일, 4박5일간의 여유로운 일정으로 참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고흥 거금도 송광암은 3박4일간 세 차례에 걸쳐 묵언, 부처님호흡법, 관음기도, 108참회, 발우공양, 활구 참선 화두법, 행선(적대봉등산, 금장 해수욕장), 수심결 강의, 선체조 등 다양한 수행을 경험토록 했다. 평창 월정사와 해남 대흥사는 '새벽 숲길' 주말수련회를 열어 도시민들이 자연을 호흡하며 움츠린 가슴을 펼 수 있도록 했다.

▧사찰수련회 준비는?

묵언, 소임충실등 사찰예절 엄수

수련회는 보통 3박4일 정도의 짧은 기간이지만 참가자들은 보다 효율적인 수련회를 위해 마음가짐과 규칙, 주요 프로그램 등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각 사찰의 특성이나 일정을 살살펴서 자신의 수행력이나 발원에 맞는 수련회에 참여해야 하고, 산문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을 놓아 버릴 줄 아는 마음자세가 선행돼야 한다.

수련회는 스님들과 똑같은 일정으로 예불과 참선 정진하는 만큼 사찰 예절, 묵언, 시간 엄수, 소임 충실 등 청규를 엄수해야 한다. 특히 수련회에서는 대부분 발우공양을 하는데 이 때 밥 한 톨, 고춧가루 하나도 남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대중과 대화할 때에 속세의 이야기보다는 불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부처님께 절할 때는 그 사람 앞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입제할 때의 준비물로는 세면 도구와 필기구, 일기장, 여벌 옷(속옷 포함), 방한복, 체육복 등이 필요하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철야정진 하는곳

사찰 및 단체	일 시	연락처
해운정사	매주 토~일	(051)746-4812
화계사 선우회	매주 토~일	(02)900-4326
보림회	매주 토~일	(02)914-6187
수선회	매주 토~일	(02)517-3108
영산법화사	매월 2·4주 토~일	(02)762-4922
정토사	매월 3주 토~일	(031)723-9797
향천선원	매주 금~토	(02)2254-3171

◎ 주말 수련회 여는 곳

사찰 및 단체	일 시	연락처
대원사	매주 토~일	(062)234-8850
월정사	매월 1·3주 금~일(1박2일可)	(033)332-6664
보광사	매월 넷째 금~일(12/27~29)	(031)594-1316
길상사	매월 넷째 토~일(12/28~29)	(02)741-4696
국녕사	매주 토~일	(02)589-3621
서원사	매주 토~일	(055)291-6405
영평사	매주 금~일	(041)857-1854
대흥사	매월 1·3주(금~일)	(061)535-5775
호두마을	매주 금~일	(041)567-2841

◎ 겨울 수련회 여는 곳

사찰 및 단체	일 시	연락처
해인사	12/25~28	(055)932-7430
백양사	12/25~29, 1/22~26	(061)392-0434
신흥사	1/6~8(초등), 1/13~16(중고등)	(033)357-2695
구룡사	12/25~29, 1/2~5	(033)744-8100
송광암	12/29~1/1, 1/9~1/12, 1/16~1/19	(061)843-8488
봉인사	1/4~12, 1/18~26	(031)575-5585
서원사	12/31~1/2, 1/7~9, 1/14~16, 1/21~23	(055)291-6405
원명선원	12/29~1/2	(064)755-3322
지장사	1/16~18(청소년)	(02)856-1558

수행 캘린더

■통도사 화엄산림 법회=통도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모든 경전의 근본이 되는 화엄경의 화장장엄세계를 펼쳐보이는 화엄산림 대법회를 열고 있다. 12월 25일 여래십신상현품(상우 스님), 26일 보현행원품(무관 스님), 27일 여래출현품(성우 스님), 28일 아세간품(종범 스님), 12월 29일~1월 1일(종범, 법조, 월파, 향과 스님), 1월 2일 회향 법문(보성 스님) 등의 순서로 설법이 펼쳐진다. (055)382-7182

■'심신의학' 체험 워크숍=정신세계원(www.mindtour.com)은 12월 28일 오후 4시~29일 오전 12시 남양주시 봉인사에서 정신과의사 김경식 박사와 함께 하는 '심신의학' 체험 워크숍을 갖는다. 침묵 속의 걷기 명상, 생활 속의 심신의학을 실천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방법, 요가 등의 방편으로 바른 자세와 운동체험, 몸과 마음이 올바로 자리잡는 바른 식사법으로 새로운 나 만들기 등으로 진행된다. (02)747-7033

■국청회 금강경 대강좌=국청회는 내년 1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금강경 강설>의 저자인 정각 스님(동국대)을 강사로 '금강경 대강좌'를 연다. 국청회는 또 1월 10일부터 3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동국대 최종석 교수의 '불교교리 강좌'도 개설한다. (02)730-1249

■조계사 수행원 참선 입문=조계사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주간반) 또는 오후 7시(야간반) 수행원에서 주지 지홍스님의 지도로 참선입문 시간을 갖는다. (02)720-1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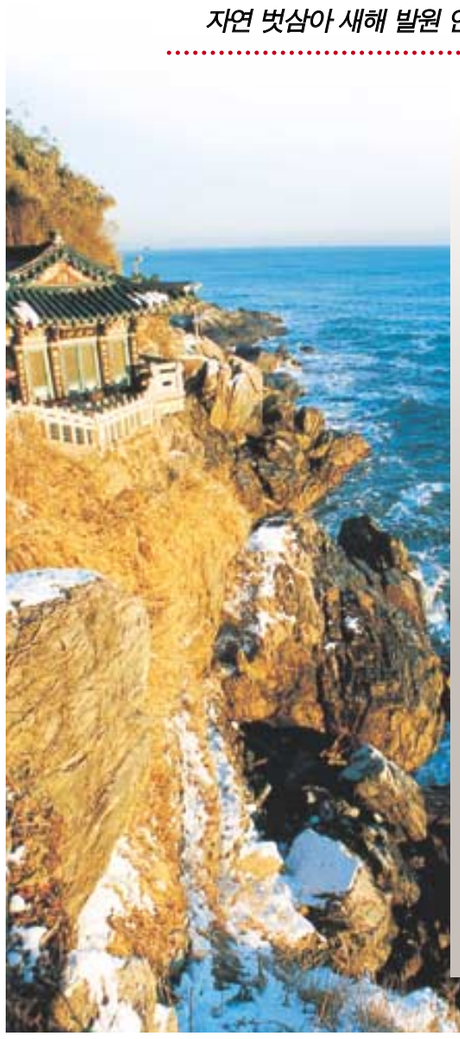
■광주선우도량 화두선 정진=광주 전남지역의 참선 모임인 광주선우도량(입승 정진만)은 매주 화·금요일 오후 8시 무등산 약사사(주지 범종)에서 화두선 수행을 실시한다. (011)9620-0985

■명상의집 동사섭법회=전북 장수 명상의집(www.dongsasub.org)은 내년 1월 06일 오후3시~1월 11일 오후 4시, 1월 18일 오후2시~1월 21일 오후4시(중급), 1월 23일 오후2시~1월 26일 오후4시(고급)에 동사섭법회를 진행한다. 귀신사 회주 용타 스님이 지도한다. (063) 351-5125

■경기불교문화원 금강경 특별법회=무심선원(www.mindfree.net)은 매달 2·4주 일요일 오후 1~4시 수원 경기불교문화원에서 금강경 특별법회를 연다. (031)251-1083

동해 일출과 함께 마음의 문은 열리고

관음보살 진신 머무는 곳, 홍련암
자연 벗삼아 새해 발원 안성맞춤





◇동해바다가 환히 내려다 보이는 홍련암에서 기도정진을 하고 있다.

올해 남은 날도 이제 일 주일 남짓, 송구영신의 매듭을 준비할 시점이다. 그 의식으로 해넘이, 해맞이만한 것이 또 있을까. 더욱이 그곳이 부처님이 계시는 산사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 해넘이, 해맞이 법회가 열리는 사찰을 찾아가 활기찬 새해를 계획해 보자.

관음기도도량 낙산사 홍련암

동해의 일출이 절경인 해안절벽 의상대. 거기서 지척인 홍련암(왼쪽사진)은 남해 보리암, 강화 보문사와 더불어 관세음보살이 현신한 한국의 3대 관음 성지중 하나다. 특히 홍련암은 삼국유사에 기록된 의상과 원효 두 스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관세음보살의 진신이 머무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곳을 찾으면 으레 누구나 한 번쯤 법당 안을 두리번거리게 된다. 마룻바닥 어딘가에 뚫려진 '구멍'을 찾아서다. 길이 8㎝ 정도의 정사각형 구멍. 뚜껑 열고 들여다보았다. 깊이가 10m쯤 될까. 암자 아래 좁고 긴 바위틈새 아래로 바닷물이 들락거렸다.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는 관음굴로 알려진 바로 그 바위틈새다.

이런 믿음 때문일까.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게 해 달라고 구멍에 대고 합장한 채 절을 했다. 그 말씀을 옆에서 들은 한 스님. "마음의 문을 열고 그속에 울려 퍼지는 관세음보살의 소리를 들어야지 구멍만 쳐다보고 절한다고 복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하며 한말씀 하신다.

연말연시 낙산사 홍련암을 찾는 이유는 분명하다. 서라운드 스피커나 다름없는 법당 바닥의 구멍을 통해 해조음을 들으며 관음수행도 접해보고 새해의 간절한 발원을 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홍련암을 찾은 13일 새벽 5시, 철야정진 한 탓에 약간 상기된 한 보살의 눈가에서 환희심을 보았다. (033)672-2478.

글=김주일 기자
사진=임민수 기자

해넘이, 해돋이 법회를 여는 사찰과 단체

△양양 낙산사에서는 제야의 종 타종과 함께 1월 1일 오전 9시 의상대에서 타종법회를 한다. (033)672-2447

△전국염불만일회는 고성 건봉사에서 새해맞이 철야 정진법회를 한다. 구랍 31일 오후 4시 조계사에서 출발해 건봉사에서 철야기도를 한다. (02)732-1215

△경주 석굴암에서는 31일 밤 11시부터 제야의 종 타종 법회를 연다. 식전에는 작은 규모의 산사음악회도 진행되며, 타종법회 후에는 철야정진기도를 한다. (054)746-9912

△제주 약천사에서는 31일 저녁부터 1080배 참회정진 기도법회를 갖고, 인근 송악산으로 옮겨 오전 7시 해맞이 법회를 연다. (064)738-5000

△서울 소림정사는 1월1일 경주 감포 앞바다에서 '새해 해오름 기도 및 철야 용맹정진법회'를 갖는다. 31일 오후 1시 잠실롯데월드 옥외주차장에서 출발한다. (02)511-6210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12월-회향의 달

- 회향은 실천의 완성
- 나에서 너, 너에서 우리로
- 아름다운 마무리
- 회향, 새로운 시작

회향, 새로운 시작

시작과 끝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 동시 작용이기 때문이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 되어 삶을 이끈다.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보다 나은 출발을 위해 회향의 삶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평희 · 서갑희씨(56)는 20대 초반 대전의 한 미용실에서 함께 일하며 사귄 동갑내기 친구다.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미용실을 하며 무료로 머리를 깎아주는 봉사를 한 지도 벌써 7년. 이들은 누구보다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사회에 회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불자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경로식당에서 주방일과 청소 봉사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얻었다"면서 "더 나이들기 전에 남에게 도움되는 삶을 사는 일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말한다. 자신들의 공덕을 사회에 회향함으로써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을 보여준 이야기다.

도봉경찰서 불교회는 나누면 세상이 밝아진다는 평범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시간, 돈, 물건 등의 5%를 소외받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주자는 운동을 펴고 있다. 이들의 봉사는 도봉관내 영세가정과 경로당, 임종의 집, 복지시설 등에서 멈출 날이 없다. 불교를 알게 된 인연을 회향하는 한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누어도 세상은 훨씬 살만해 질것"이라는 이들의 소박하면서도 쉽지 않은 보살행. 그들은 날마다 회향하는 삶을 살고 있다.

불교호스피스 요양센터 '정토마을'에는 임종을 눈앞에 둔 병자 10여명이 24시간 간병을 기다린다. 정토마을 원장 능행 스님은 삶의 한줄기 빛이라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스님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택했나'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부처님 제자로서 당연히 걸어야할 길'이라는 한 마디로 대답을 대신한다. 회향하는 삶이 진정한 불자의 길이라는 속내가 담긴 스님의 답변이다.

12월, 올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기다. 사람들은 더 나은 새해를 맞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회향한다는 것은 처음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중생의 뜻을 좇아 따르는 것까지의 모든 공덕을 진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돌리는 것"이라고 설했다. 불자로서의 삶은 곧 회향의 삶이라는 의미가 담긴 가르침이다.

박봉영 기자

"봉사의 삶은 부처님 은혜 갚는 일"
모든 공덕 일체중생에게 돌려야



◇'불자로서의 삶은 곧 회향의 삶'이라는 가르침은 수많은 경전 속에 담겨있다. 불교 호스피스요양센터 '정토마을' 원장 능행 스님과 불자들이 음성 꽃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心 마음비추기

항상 자신의 마음을 응시해야

오래전에 상영된 영화 중에 '리틀 붓다'라는 영화가 있다.

키아누리브스 주연의 이 허리우드 영화는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다. 이 영화의 여러 가지 장면 중 지금도 인상 깊게 기억되는 부분이 있다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기 직전, 마왕으로부터 갖가지 방해를 받는 장면이다.

마왕은 부처님의 성도를 막기 위해 갖가지 공포를 몰고 온다. 뇌성벽력을 치고 성난 파도를 몰고 오는가 하면, 독충과 악귀들로 위협하고 군대를 끌고 와 갖가지로 공격하였다.

이 방법도 통하지 않은 마왕은 유혹작전을 쓴다. 마왕은 자신의 아름답고 매혹적인 딸 넷을 내려 보내 부처님의 욕정을 불러일으키려고 한다. 역시 이 방법에도 실패한 마왕은 마지막으로 직접 그 모습을 나타내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것을 명령한다.

부처님이 마왕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이 이야기는 불자들에게 있어 너무도 귀에 익숙한 이야기이므로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이 영화는 바로 이 부분에 이르러 마왕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 때 부처님은 앞에 보이는 마왕이 어떤 존재인지 바라보게 되는데, 그 얼굴은 놀랍게도 부처님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 마왕의 몸도 부처님 몸과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두 그루의 나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영화 속의 부처님은 자신의 모습을 한 마왕의 모습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응시한다. 그 응시에 의해서 마왕은 점점 흉악한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마침내 악의 극치를 이룬 얼굴로 나타난다.

마왕은 최종적으로 대지의 진동과 함께 부처님과 분리되어 떠나게 되고, 뒤이어 깨달음의 장면이 연출된다. 이 영화를 훌륭하게 여길 수 있는 점은 마왕의 존재를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도 적절하다는 데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마왕이나 마귀를 자신의 마음을 떠난 대상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흉악한 모습을 한 악의 근원으로서의 마왕이나 마귀가 따로 있어 인간과 세상을 파멸시킨다고 여기는 것이다. 앞에 나오는 장면 중 부왕의 죽음을 앞세워 유혹한 것은 애착이고, 다음의 갖가지 형상을 한 악귀나 검은 군대는 사견과 욕망과 어리석음이며, 마왕의 딸들은 애욕과 음욕이다. 그리고 마왕은 인간 내면에 뿌리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근본무명이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크든 작든 마음 속에 마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영화 속의 부처님이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듯 항상 자신의 마음을 응시해야 할 것이다.

寂然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㊱ 끝·여래신력품 제21

대승초기 불타관 새해석

지난 호에 이어 나머지 여섯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⑸대지가 모두 여섯 가지로 진동함[六種震動]… 부처님께서 입태(入胎)하였을 때, 태어났을 때, 출가했을 때, 정각을 이루었을 때, 중요한 법을 설하시게 될 때, 열반에 드시게 될 때의 여섯 가지 경우에 3종류는 형태로, 3종류는 음향으로 진동한다고 한다. ⑹이 대회의 광경을 모두가 볼 수 있었다[普見大會]… 모든 생명체가 부처님의 큰 신통력에 의해 모든 부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⑺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空中唱聲]… 여러 천신들이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아승지 세계를 지나서 사바세계가 있고 그 국토에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중생의 귀에 울려왔다는 것은 곧 마음에 생생히 감득(感得)되었다는 것이다. ⑻우주의 모든 생명체가 '나무석가모니불' 하고 소리쳤다[咸皆歸命]… 현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잘못된 사상에 심취하고 있는 사람도 미래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명(歸命)할 때가 온다고 하는 뜻이다. ⑼아름다운 꽃과 냄새 그윽한 향, 영락, 해 가리개, 그밖에 진귀한 보배들이 공중에서 사바세계에 흩어져 내려왔다[遙散諸物]… 부처님께 귀의와 감사의 정성을 바치는 공양이다. ⑽시방세계가 통달무애하게 되어 하나의 불국토가 된다[通一佛土]… 각 나라는 바다에 의해 떨어져 있고 나라로서도 각각 독립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 진리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다.

석존 입멸 후 '見佛' 삼매 체험중시

출가·재가의 평등한 구제 가능성 강조

이상은 여래의 10대 신력이라 하여 여러 가지 신비하고 상서로운 모습이 설해져 있는데 이것은 <법화경>의 가르침을 통틀어서 매듭짓는 것임과 동시에 궁극적인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이상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인생에 대한 용기와 삶의 보람이 용솟음쳐 옴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여기서 초기 대승경전의 성립 배경과 그 사상을 일별(一瞥)해 보기로 한다.

초기 대승경전은 석존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석존의 생애와 사상은 원시경전에 설해져 전승되어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소재 그것은 원시경전인데 어찌하여 새로운 해석의 틀이 형성된 것인가.

요컨대,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상상하여 말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되지 않을까. 동서(東西)의 문화 교류에 의해서 가져온 전통문화의 흔들림과 새로운 문화 이념에의 욕구라고 하는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일부의 불교도가 전통적인 부파불교는 이미 새로운 시대의 종교적 욕구에 응할 수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스스로의 종교 체험에 바탕을 두고 석존의 생애와 사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 새로운 종교적 욕구에 응할 수 있는 새로운 불교사상을 창조하여 이것을 어디까지나 역사상의 석존이 설한 진실한 경전으로 제작한 것이 초기 대승경전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의 두 가지 시점에서 고찰해 보려고 한다. 내적인 면으로는 초기 대승경전에 널리 볼 수 있는 견불삼매(見佛三昧: 명상 속에서 부처님을 눈앞에 보는 것) 등의 종교적 체험을 의미한다. 역사상의 석존이 80세로 입멸하여 이미 존재하지 않는 무불(無佛)의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처님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종교적 관심의 표적이 되어 부처님을 본다고 하는 체험이 중시되었다.

외적인 시점으로는 부파불교와의 대결이라는 정황이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대승과 부파불교를 단순한 대립 도식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또 부파불교의 일부에서 대승경전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됨으로써 대승불교의 신봉자들은 재가 신자, 부파불교는 출가의 비구라고 하는 도식으로 볼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신봉자가 단순히 재가 신자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이 대승불교의 기본적인 사상 속에 재가 신자에 대해서도 출가의 비구와 평등한 구제의 가능성을 개방하는 사상이 있었던 것은 강조되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외적인 시점으로는 기원전 4세기 이래 그리스민족의 북서 인도에의 침략과 더불어 생겨난 동서 문화교류의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 서방 극락정토의 아미타여래의 기원에 대해 인도에서 서방에 위치하는 이란의 조로아스터(Zoroaster)교의 광명의 신(神) 아후라마즈다(Ahura Mazda)의 영향을 지적하는 학자도 있다. 서방 문화의 영향은 우리들의 상상 이상으로 컸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 종교적 욕구의 내용은, 절대적인 구제력을 갖고 있는 새로운 부처님이나 대보살의 출현에 대한 대망(待望), 자비에 바탕을 둔 이타행에 대한 강한 요청, 출가와 재가의 종교적 권위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한 희망 등이다.

(그동안 열심히 읽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 나무아미타바 · 아미타유스.)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㊴

말하지 않고 말할 줄 알아야

사물에 의지하지 말고 나와 보라

나에게는 남에게 줄 한 법(法)도 없으니, 나의 모든 말은 다만 병을 치료하고 묶인 것을 풀어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대들 제방의 도 닦는 이들이여! 시험삼아 사물에 의지하지 않고 나와 보라. 내 그대들과 더불어 의논하고자 한다. 5년 10년이 지나도 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풀잎과 대나무에 붙어 사는 정령(精靈)이요 들여우요 도깨비로서, 온갖 똥덩어리를 어지러이 씹어 먹고 있구나. 이런 눈 먼 놈들은 온 세상 신도들의 보시(布施)를 헛되이 소비하면서도,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견해를 짓고 있는 것이다. 내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닦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엉뚱한 곳에서 무엇을 구하려 하느냐? 눈 먼 놈들은 머리 위에 또 머리를 놓으려 하지만, 너희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냐?

도(道)는 어디에 있는 무엇인가? 선(禪)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부처를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본성(本性)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말을 따라 가지 않고, 말에 속박되지 않고, 말에 속지 않는다면, 이 모든 말에 그대로 아무런 허물이나 문제가 없다. 말이 그대로 모두 진실하며, 말이 그대로 모두 여여(如如)하며, 말이 그대로 모두 실재(實在)이며, 말이 그대로 모두 평등하여 한 마디의 말도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도(道)가 그대로 말이면서 도요, 선(禪)이 그대로 말이면서 선의 실천이요, 부처가 그대로 말이면서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 부처요, 본성이 그대로 말이면서 지금 보고 있는 본성이다. 말이 곧 도(道)요, 생각이 곧 선(禪)이요, 욕망이 곧 부처요, 느낌이 곧 본성이요, 육체가 곧 본래면목(本來面目)이다.

<반야심경>에서 물질이 곧 공(空)이며, 느낌이 곧 공이며, 생각이 곧 공이며, 의지가 곧 공이며, 의식이 곧 공이라고 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반야심경>도 없고, 물질도 없고, 공(空)도 없고,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의식도 없고, 나아가 없음도 없어야, 비로소 <반야심경>의 말을 참으로 소화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말에 속고 말에 속박되고 말을 따라 다니기 때문에, 도(道)를 찾아 헤매고, 선(禪)을 실천하지 못하여 고민하고, 부처를 만나지 못하여 안타까와 하고, 본성을 보지 못하여 절망하는 것이다. 생각에 속고 생각에 속박되고 생각을 따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며, 느낌과 욕망에 있어서도 같다.

말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욕망이나 육체를 따라가고 속박되고 속음으로써 온갖 번잡스런 일들이 있고, 온갖 번민이 있으며, 온갖 세상사가 펼쳐진다. 그러나 어떤 것에도 따라가거나 속거나 속박되지 않는다면, 본래 아무 일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풀어야 할 어떤 문제도 없고 채워야 할 어떤 부족함도 없고 도달해야 할 어떤 목표도 없다. 따라서 속박되고 속아서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이른바 중생의 일이고, 그런 일이 없는 것이 바로 부처의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처의 일을 하며 부처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말하지 않고 말을 하며, 글 읽지 않고 글을 읽으며,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며, 보지 않고 보며, 듣지 않고 들으며, 걷지 않고 걸음을 걸으며, 행동하지 않고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할 줄 알면 지금 이 글을 읽음에 아무 허물이 없겠지만, 이렇게 할 줄 모르면 단 한 글자에서도 허물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어떻게 하겠는가?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선생의 <금강경> 특강
1,2월. 부산무심선원 매주 토요일, 수원경기불교문화원 2,4주 일요일. 051-515-7226(무심선원),016-456-8957(강보영) http://www.mindfree.net/

박영재 교수의

과학과 불교

27 <끝>

표준원기와 석가세존

대량생산이 가능한 산업기술사회로 접어들면서 국가 사이의 교역이 활발해지자, 인류는 각종 물리적인 양의 측정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통일된 표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 결과 1875년 국제도량형국이 세워졌으며, 이를 통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터법을 기준으로 하는 국제 단위계(7개의 기준 단위와 2개의 보조 단위로 구성)가 1960년 제정되었으며, 이곳에 단위의 기준이 되는 표준원기들이 보관되어 있다.

한편 불교의 경우 보리수 밑에서 체득한 정각을 바탕으로 입적하실 때까지 대중들에게 펼쳐 보이신 석가세존의 삶 자체가 바로 표준원기이다. 불교교단은 불멸(佛滅) 100여 년 후 상좌부(上座部)와 대중부(大衆部)의 두 파로 나뉘면서, 상좌부 계통은 스리랑카 · 미얀마 · 태국 · 라오스 등에 전해져 발전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중부 계통은 재가(在家)와 함께 대승불교 시대를 열었으며, 한(漢) 나라 때 중국으로 전해져 몽골 · 티베트 · 한국 · 일본 등 북방에 널리 유포되어 그 민족의 종교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불교계는 승가와 재가가 힘을 모아 원효, 의상, 자장, 의천, 보조, 태고, 서산, 경허 등 걸출한 민족의 스승들이 이룩한 독특한 통불교 전통을 석가세존의 삶과 지속적으로 비교하며 계승 발전시켜야 할 때라 판단된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민족 각자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 구심체 역할 및 더 나아가 다른 종교와 종파의 좋은 수행전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인류 평화에 한 몫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필자의 경우, 물리학자의 길을 가면서 종달 이희익 노사 문하에서 선종(禪宗) 최후의 공안집인 '무문관(無門關)'에 들어 있는 화두들의 점검을 마칠 무렵, 가슴에 맺혀 있던 모든 의문이 봄날 눈 녹듯이 사라지는 체험 이후 항상 있는 그 자리, 즉 집안에서는 아들, 남편, 아버지로, 직장에서는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교수로, 참선 모임에서는 수행자인 동시에 법사로 온몸을 투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필자는 이 체험을 바탕으로 깨달은 자[佛]의 표준인 석가세존과 진리[法]의 핵심요체를 담은 '무문관'의 저자인 무문혜개 선사 및 스승[僧]으로서 동시대를 호흡하며 필자를 직접 일깨워주셨던 의현종달 노사로 이어지는, 특히 재가수행자들을 위한 간화선 수행전통의 표준원기의 보존 및 보급을 위해 남은 삶을 투신하고자 한다.

끝으로 우리 주변에는 비록 언론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또한 간화선 수행을 하지 않았어도 나름대로의 표준원기를 보존하며 걸림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스승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런 훌륭한 스승 문하에서 여러분 각자 취향에 맞는 수행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더불어 함께 하는 삶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필자의 졸고를 모두 마치고자 한다.

승가·재가 통불교 전통 계승 발전시켜야

취향에 맞는 수행으로 함께하는 삶 찾길

서강대 물리학과

yjpark@ccs.sogang.ac.kr



그림 · 문병성



◇박상국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실장은 91년부터 해외소장 전적 문화재를 조사해 오고 있다.

"해외 흩어진 전적 조사 한국 문화사 복원작업"

12년째 해외 우리 고서 조사 박상국 실장

"고서(古書)들은 우리 문화의 총집결체입니다. 그런 우리 책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상국(56)씨의 공식 직함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실장'이다. 그러나 그는 불교서지학자로 더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그의 주도로 시작된 해외 전적 문화재 조사가 벌써 12년째다.

그 동안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어 오다 '해외소장 전적 문화재 정밀조사비'란 명목으로 3억 원이 내년 문화재청 예산에 책정됐다.

해외에 유출돼 있는 우리 나라 고서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이 작업은 국내 대표적 서지학자인 천혜봉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정섭 문화재전문위원 등 3명이 의기투합해 91년 만든 해외전적조사연구회(회장 천혜봉)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日궁내청·美의회도서관 등에 3만여건

국내없는 자료 수두룩…10년 뒤 매듭

일본 황실의 보물 창고인 궁내청 서릉부를 비롯해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 미국 의회도서관, 콜롬비아대와 버클리대의 동아세아도서관, 영국 런던 국립도서관, 프랑스 기메박물관, 파리 동양어학교 도서관 등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국내 고서는 대략 3만여 건. 이들 기관에 소장된 고서들의 목록을 정리해 <해외소장 전적조사 목록> 6권을 펴내기도 했다.

박 실장이 해외에 있는 전적 문화재 조사의 필요성을 처음 느낀 것은 1980년대 초다. 전시 때문에 일본 출장을 가서 국내에 없는 귀중한 고서들이 일본에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나서부터다. "초조 대장경만 해도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2~3백 권 정도가 발견됐지만 일본에는 국내에 없는 게 2천 권이 넘는다. 해외조사를 하다 보면 국내에 없는 자료가 수두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박 실장은 말한다.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91년에야 첫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름에서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에 마쳐야 하는 조사는 "먼지를 하도 마셔 3일만 지나면 목에서 까만 가래가 나오고 몸은 파김치가 될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귀국한 뒤 마이크로 필름으로 찍어온 복사물과 국내 목록 등을 대조하여 정리하는 일 또한 몇 달을 끄는 지난한 작업이다.

박 실장은 "다들 너무 힘들어 내년에는 하지 말자는 소리를 하다가도 해가 바뀌면 '우리라도 안 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데…'하는 생각에 문예진흥원에 지원 신청서를 내곤 했다"며 "문화재청 예산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는 지속적인 조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3분의 1정도 조사한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10년 안에 마칠 수 있다는 계산도 이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박 실장은 "먼저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아야지, 처음부터 무조건 반환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전적 조사는 국내에 없는 자료들을 발굴해 우리 문화의 원형을 복원하는 작업이다. 실태조사를 마치면 이를 공개해 누구나 연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의 문화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육조단경 허사 연구' 등 학술연구지원과제 선정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최근 학술연구지원 2002년 3차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불교 관련 연구과제로는 선도연구자지원 분야에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문자 이동(異同) 연구'(대진대 류보현 교수) '<육조단경> 허사(虛詞) 연구'(송인성 박사, 선어록연구소), 협동연구과제에 '<신역대방광불화엄경음의> 언어 연구'(안양대 김애영 교수 외 1명)가 선정됐다.

정보사회 실천원리는 팔정도

김응철 교수, 불교교리이용 분석



불교 교리를 바탕으로 정보사회를 설명해 보고자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보화 사회에 대한 불교의 대응'이란 문제의식 아래 정기 포럼을 열어온 현대불교사회문화원(원장 중원) 스님은 19일 '불교의 주요 교리로 분석한 정보사회의 이해'라는 주제로 8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응철(중앙승가대 · 사진) 교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정보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사회이론이자 정신적 수행방법이고, 이상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분석 틀로 삼은 교리는 <법화경> 방편품에 나오는 십여시(十如是)와 초기불교의 공 · 연기론, 그리고 팔정도다.

김 교수가 이날 내린 결론은 존재의 모습을 밝힌 열 가지 요소인 십여시는 정보사회의 개인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관점을, 공과 연기론은 정보와 정보체계가 형성되는 데 필요한 이론적 · 철학적 기반을, 팔정도는 정보사회의 실천원리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 · 연기론, 정보체계 형성 철학적 기반

불교교리 억지 연결 · 현상왜곡 경계해야

김 교수는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정보사회를 분석할 때 주의할 점은 교리를 견강부회하여 억지로 연결시키고 현상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보다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참된 종교성 드러낼 때 예술적 향기 느낄 수 있어"

한국종교사학회 추계 학술대회

한국종교사학회(회장 류병덕)는 20일 '종교와 예술'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종교를 인간 삶의 총체인 문화적 맥락에서 검토해 보자는 시도다.

종교 · 예술 모두 창조적인 자유 추구

정진홍 교수(서울대 종교학과)는 기조 강연을 통해 "종교는 예술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당위를 지니고 있고, 예술은 종교적 감성을 그 기반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는 필연을 안고 있다"며 "종교가 참으로 종교다움을 드러낼 때 거기에서 예술적 향기를 느낄 수 있고, 예술이 참으로 예술다움을 드러낼 때 종교적 감동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교수(인하대)는 "예술의 창조성도 무아지경 속에서 발휘된다고 볼 수 있다면 둘 사이의 거리는 아주 가깝다"며 "둘 다 사람을 영적으로 끌어들여 창조적인 자유를 추구하게 하는 점에서는 목표가 같다"고 밝혔다.



불교공예 (2)

용과 봉황이 자아내는 향기

1992년 부여 능산리 고분 옆의 건물 유적지에서 한국공예사의 백미를 장식하는 금동대향로가 출토되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처음에는 이 건물터를 고분군 옆이라 제사터 정도로 추정했지만, 뒤에 이 건물터에서 창왕명(昌王銘) 사리기가 출토됨으로써 절터임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 향로가 어떤 성격의 유물인지 다시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처음의 추정과 같이 고분에 제사지내기 위한 향로였을까 아니면 불교의식에 사용된 향로였을까?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 높이 64cm). 곡선의 흐름이 어느 한 곳의 막힘도 없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향로이다.

이 향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용이 트림으로 다리를 이루고 입에서 연꽃을 토해내어 향로의 받침이 되고, 연화화생(蓮華化生)처럼 연꽃 속에서 박산(博山)이 피어나며, 박산 꼭대기를 봉황이 지키고 있다. 박산에는 전설 속의 동물, 신선들이 노닐고 있는데, 이는 도교적인 내용이다. 굳이 불교적인 도상을 꼽자면 용이 내뿜는 연꽃 정도이다. 교적인 용구로 사용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불교와 도교의 도상이 공존한 것이 6세기 불교미술의 특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이 향로에 대하여 제기하는 또 하나의 의문은 백제에서 만든 것인가 아니면 중국에서 만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백제미술 하면 일반적으로 우아한 아름다움을 떠올린다. 그런데 이 향로는 우아함을 넘어서 세련되고 힘찬 동감까지 표현되어 있다. 한껏 구부러지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곡선의 흐름, 볼륨이 느껴지는 몸체의 위용 있는 트림, 그 기세에 동승한 구름의 힘찬 동감, 치밀한 공간의 연결, 부드럽게 연결된 산세, S자로 구부러진 봉황의 형상 등 어느 방향에서 보나 짜임새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 용으로부터 시작된 힘차고 아름다운 곡선의 형세는 봉황의 높이 세운 꼬리로 뻗쳐나가고 있다. 이처

금동대향로의 용트림 다리 · 연꽃 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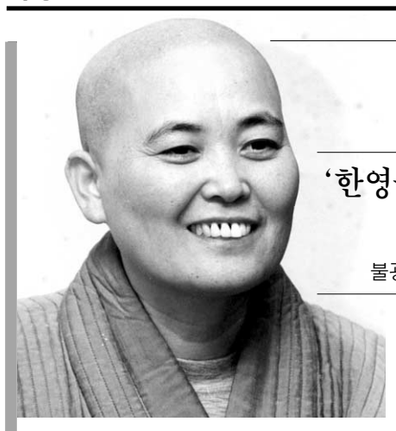
세련되고 힘찬 백제인의 예술혼 담겨

이런 내용만 보면 이 향로가 고분의 제사의례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연꽃의 표현에 주목하면 불교의식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서 잠시 시선을 중국으로 옮겨가 이 향로의 제작시기와 비슷한 서위(西魏)시대(535~556)에 제작된 돈황 막고굴 249굴, 285굴을 살펴보자. 이들 굴은 불교사원으로서 벽면은 불교적 내용인데, 천장은 서왕모(西王母)와 동왕공(東王公)이 등장하고 천마(天馬)가 날고 있는 도교적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불교미술과 도교미술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렇다면 이 금동대향로에 도교적인 요소가 보인다 하여 불교적인 용구로 사용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불교와 도교의 도상이 공존한 것이 6세기 불교미술의 특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이 향로에 대하여 제기하는 또 하나의 의문은 백제에서 만든 것인가 아니면 중국에서 만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백제미술 하면 일반적으로 우아한 아름다움을 떠올린다. 그런데 이 향로는 우아함을 넘어서 세련되고 힘찬 동감까지 표현되어 있다. 한껏 구부러지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곡선의 흐름, 볼륨이 느껴지는 몸체의 위용 있는 트림, 그 기세에 동승한 구름의 힘찬 동감, 치밀한 공간의 연결, 부드럽게 연결된 산세, S자로 구부러진 봉황의 형상 등 어느 방향에서 보나 짜임새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 용으로부터 시작된 힘차고 아름다운 곡선의 형세는 봉황의 높이 세운 꼬리로 뻗쳐나가고 있다. 이처럼 치밀하고 힘찬 조형 때문에 중국제품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향로는 분명히 '메이드 인 백제'이다. 봉황이나 박산의 모습은 부여 외리 출토 문양전의 형상과 닮았고, 세련된 곡선미는 부소산성에서 출토된 금동광배를 연상케 한다. 다만 그 동안 출토된 백제 유물이 세련되고 힘찬 곡선미가 대개 어떤 틀 속에 갇혀 있어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다. 백제인의 기상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이처럼 위대한 예술을 창출하는 민족임을 세상에 통쾌하게 보여준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한영불교사전’

서광 스님 편찬

불광출판부 / 3만 5천원

‘색즉시공 공즉시색’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서광스님, 국내 첫 ‘한영불교사전’ 펴내

불교는 영어로 부디즘(Buddhism)이다. 부처님 즉 붓다(buddha)의 가르침(~ism)이라는 말이다. 별 어려움없이 영역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불교의 많은 경전들과 불보살, 사성제와 팔정도처럼 1:1로 대응되는 낱말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표현될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불자들을 위한 <한영불교사전(The Korean-English Buddhist Dictionary)>이 불광출판부에서 나왔다.

이 사전은 미국 세이브룩 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 박사과정 중에 있는 비구니 서광스님(45 · 보스톤 서운사 주지)이 낸 것으로, 현재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최신의 불교 용어를 수록한 국내 최초의 저작이라는 점에서 출간 의미가 크다.

스님은 93년부터 미국인들이 평소 사용하거나 논문 · 서적 등에 자주 표기 되는 불교용어들을 노트에 하나하나 정리해 놓았다. 그것을 1년 전 사전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정리하고 보충해 이번에 결실을 본 것이다.

영어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5000여개 불교용어 수록

“보스턴대에서 공부할 당시 금강경의 저본인 8천송 반야경 영어판을 읽었는데, 한글본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지요. 예를 들자면 금강경의 ‘아상 · 인상 · 중생상 · 수자상’ 부분을 영어판에서는 모든 차별을 떠나는 절대평등의 논리로 해석해 놓았어요. 실용적인 서양인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이었죠. 영원한 진리인 부처님의 가르침이 박제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이끌어내는 실천윤리로서 개개인에게 전달되고 이해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광 스님은 불교용어들을 영역하며, 수행계위와 유식 등 지나치게 어려워 한글 불교사전의 설명만으로는 그 뜻이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일부 개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본래면목(本來面目):the original nature of mind’, ‘성불(成佛):becoming a buddha’,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Form is nothing other than emptiness;emptiness is nothing other than form’ 등 5000여개의 불교용어를 수록한 이 사전은 한글과 한자, 산스크리트어, 팔리어를 병기하고, 영문 개념은 물론 최근 미국에서 출간된 수백 권의 불교서적과 논문에서 찾은 생생한 용례와 해석을 담았다. 이런 까닭에 한문보다 영어에 더 친근한 젊은 불자들에게는 불교를 이해하는 입문서 역할도 충분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공인 상담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정리한 것이라,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불교 역사나 문화재 같은 부분은 전혀 손도 대지 못한 것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기회가 닿는 대로 영역하여, 추가할 생각입니다.” 이은자 기자

‘침체’, ‘틱낫한’, ‘달라이라마’. 올해 불교 출판을 관통한 단어들이다.

불교출판은 올해도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달에 책 한권 내기도 빠듯한 것이 불교출판사 대부분의 현실이었다. MBC TV의 ‘느낌표’에 소개된 이른바 느낌표 브랜드 책들의 폭발적인 인기와 KBS의 ‘TV, 책을 말하다’, MBC의 ‘행복한 책읽기’ 등 방송의 책 소개 프로그램 확대, 시민단체들의 독서운동 등으로 모처럼 출판시장이 활기를 띤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2002년 불교출판계

침체 지속…한달 한권 내기도 빠듯

김영사, 열림원, 명진출판사, 해냄출판사 등 종합 출판사들의 불교 책 출간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이들 출판사에서 주도적으로 펴낸 틱낫한과 달라이라마의 책들은 올 한해 전체 출판계의 화제라 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틱낫한과 달라이라마의 책들은 올해 꾸준한 인기를 유지했고, 이 가운데 <화>(틱낫한, 명진출판)는 70만부가 팔린 <뇌>(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에 이어 50만부가 넘게 팔려나가 국내 베스트셀러집계 2위에 올랐다.



◇2002년 불교출판계는 여행·명상·건강 등 다양한 소재의 책들이 출간됐으나, 이렇다 할 역작을 내지 못한 채 전반적인 침체를 거듭했다.

틱낫한·달라이라마 인기 꾸준히 유지 | 문화재 등 불교문화 소개 영역서 눈길

‘화’ 50만부 팔려…국내 베스트셀러 2위 | 자본 · 마케팅 열세 불교출판업체 고전

종합 출판사들의 불교 책 출간 경쟁으로 인해 자본과 마케팅 등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불교 출판사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환경 속에서 올 한해 출간된 불교 책들을 살펴보면, 사찰 답사 · 여행 안내서 들이 꾸준함을 유지했으며, 여느 해와 달리 불교 관련 문화재나 사찰의 전설, 사찰음식 등 불교문화를 소개한 영역서 들의 출간도 눈길을 끌었다. 마음 수행, 명상 등을 주제로 한 읽을거리들도 다수 선을 보였으나, 틱낫한과 달라이라마의 열풍을 잠재울 만한 역작은 없었다.

한편, 올해 출판계는 느낌표 등 방송에 소개된 책들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거의 점령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전개됐다. 지나친 상업주의로 독서시장을 왜곡시켜, 출판인들의 신간 출간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부정론과 전체 출판 시장의 매출확대에 기여해 급격하게 붕괴하고 있는 유통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청소년들의 독서유발 효과도 가져왔다는 긍정론으로 나뉘었다. 이밖에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통과로 인한 도서정가제의 재확립, 95년 역사의 종로서적 도산 등도 올 출판계의 이슈들이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동자승의 크리스마스’

박관호 원작 / 남찬숙 글 / 박지은 그림

가교출판 / 8천원



종교예술영화제 대상수상 단편영화를 동화로 재구성

<동자승의 크리스마스>는 올해 종교예술영화제 대상을 수상하고, 부천 · 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서도 선보여 호평을 받았던 박관호 씨의 단편영화 ‘나무아미타불 크리스마스’를 동화로 재구성 한 것이다.

강원도 산골의 절에 사는 동자승과 이

‘열린 마음으로 종교이해’ 메시지

시골마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생활하며 교회에 다니는 마리가 주인공이다. 둘은 초등학교 1학년 같은 반 친구이다.

12월 어느날 동자승은 마리로부터 크리스마스날 교회에 놀러 오라는 초대카드를 받는다. 절에서만 자란 동자승은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마리가 초대했기 때문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날 교회에 가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작은 스님은 큰 스님께 말도 꺼내지 못하고 시간만 가는데…. 우연히 카드를 본 큰 스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하고, 교회에 간 동자승은 친구들과 목사님의 따뜻한 배려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밤늦게야 절에 도착한다. 너무 늦은 귀가에 짐짓 걱정하던 동자승이 절 마당으로 들어서자 컴컴한 절 마당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밝혀지고, 거기에 동자승을 꼭 닮은 인형이 동자승을 향해 웃음 짓는다는 따뜻한 내용으로 마무리 된다.

종교간의 차이와 특수성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출판가 소식



이형기 시인 고희시집 출간

빼어난 시적 감성과 논리적 이성으로 한국의 시문학계와 평론계를 이끌었던 남연 이형기 시인의 고희 시선집 <낙화>(연기사)가 나왔다. 이 시선집은 400여편에 이르는 이 시인의 작품 가운데 150편을 뽑아 실었으며, 작가론과 작품론, 연보, 저서, 연구 서지 까지 담아놓아 그의 55년에 이르는 시적 여정을 총섭한 전집이라 할만하다. 이 시인은 지금 병상에 있지만, 초기시 이래의 존재론적인 성찰을 통해 깊은 울림을 주는 시작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옆에 왔던 부처’ 재출간

성철 큰 스님의 전기소설 <우리 옆에 왔던 부처>가 북앤피플에서 재출간됐다. 소설가 이청 씨가 펴낸 이 책은 성철 스님의 열반 직후 초판이 발행된 이후 9년 만에 나온 증보판이다.



‘법회와 설법’ 12월호 나와

포교원이 발간하는 법회와 설법 12월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는 동짓날과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길 등의 주제 법문을 담았다. 또 제8차 포교사 고시 문제 정답과 해설을 포교 자료로 실었다. 별책 부록으로 가려 뽑은 부처님 말씀도 펴냈다.



불교수행의 길 시리즈 9번째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정각원(원장 도업스님)에서 발행하는 소책자 불교수행의 길 시리즈의 9번째 책 <생활 속의 불교>는 불교문화대학장인 이만 교수의 법문을 모은 것이다.

차 한잔의 여유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생활 주변의 이야기들을 담았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제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감산자전	감산 스님	여 시 아 문
2	화	틱 낫 한	명진출판사
3	불자의 살림살이	우룡 스님	효 림
4	역사속의 한국불교	이 이 화	역사비평사
5	아름다운 우리말 경전 금강경	우룡 스님	효 림
6	바로 이번 생에	우 빤 디 따	불광출판부
7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일지 스님	민 족 사
8	서장공부	김 태 완	여 시 아 문
9	마음고요	정목 스님	학 고 재
10	달마 서양으로 가다	진 우 기	불교시대사

도서 안내:(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부처님의 산(경주 남산)’ 있는 그대로…



◇경주 남산 남쪽면의 석조여래입상. 2002년 8월 1일 오전 11시에 촬영해 입체감을 최대한 살렸다.

절터 석등 석탑 등 수많은 문화유적 소개

촬영시간 표기…보기 좋은 시점 알려줘

‘신라의 마음 경주 남산’

박홍국 글 / 안장헌 사진

한길아트 / 2만원

경주 남산은 ‘부처님의 산’으로 불린다. 신라 사람들은 불교가 전래된 후에 이 산을 부처님께 바쳐 불국정토를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높이 468미터에 불과한 바위산인 이곳에 우리나라의 그 어느 산보다 많은 문화유산과 수많은 절터와 석불·석탑이 있다. 사실 경주 남산은 신라가 망하고 난 뒤 거의 잊혀졌었다. 석불과 석탑은 훼손되었고, 찾는 이도 별로 없었다. 이런 경주 남산이 최근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관심이 경주 남산의 실상을 점점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한 위덕대 박홍국 교수가 사진가 안장헌 씨와 함께 발로 뛰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은 책 <신라의 마음 경주 남산>을 펴냈다.

경주에서 태어나 남산 자락에 살고 있는 박 교수는 불상을 마주하고, 무너진 석탑 주위를 맴돌면서 가졌던 생각들을 종합해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듯 차근차근 설명해 준다.

“누가 보아도 끝마무리가 미흡한 마애불상을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였다는 식으로 해설하고 또 그렇게 보아주기를 강요한다면, 이는 우리 조상과 현재의 우리를 다 같이 기만하는 일”이라며 날카롭게 지적하는 박씨는 “남산 유적의 위대함은 한두 곳의 절터나 불상에 있지 않고, 수많은 사원 건물과 불상·탑·석등이 바위산과 어울려 빚어내는 거대한 아름다움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각 유적을 답사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그 이상의 기쁨과 보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경주 남산의 불교조각들은 원래 대부분 전각 안에 모셔져 있었다. 신라의 국운이 기울고 고려에 사직을 바친 이후 조선 초기까지 법등을 이어온 절도 일부 있었으나, 전각은 사라지고 노천불이 되었다.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불상들은 새로 지은 보호각 안의 불상을 제외하면 모두 비바람 맞으며, 자연광으로 형상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절기에 따라, 시각에 따라 시시때때로 모습이 다르게 보인다.

사진가 안 씨는 이러한 경주 남산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느 관련서와 달리 사진 하나하나마다 사진가로의 안목에서 사진설명을 붙이고, 사진 촬영시간까지 꼼꼼히 챙겨 놓아 석불마다 관람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안 씨는 후기에서 신선암 마애보살상과 조망(4월이나 10월의 오전8시경)·상선암 마애대불상과 황금들녘(9월 하순에서 10월 초 오후 2시 30분)·용장곡 삼층석탑과 아침안개, 석양(안개 낀 오전 8시 또는 일몰시간)·미륵곡 석조여래좌상의 미소(5월 또는 9월의 오전 9시 15분)등 자신의 마음을 끄는 남산 십경을 꼽았다.

맨 뒷부분에 책에서 다룬 유적의 분포 상태를 간략하게 표기한 남산 유적 약도도 실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이 책은 경주 남산을 보는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한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생명·인체의 경이로움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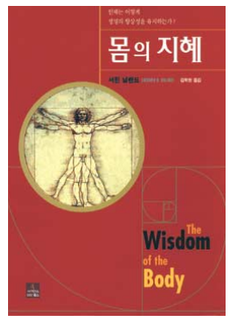
전문가 서평

역사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흐름을 조망하여, 현재의 위치를 분명하게 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의학이나 인류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몸의 지혜’

셔윈 널랜드 지음 / 김학현 옮김

사이언스북스 / 1만 8천원



셔윈 널랜드는 가설과 실험을 통한 검증에 익숙한 과학자이면서, 유명한 과학저술가이다. 그가 지구의 걸작품인 인체(人體)를 과학적 조명을 통해 살피고 있다. 의학사(醫學史)를 꿰뚫은 저자가 책 제목으로 선택한 <몸의 지혜>라는 용어는, 1923년 스탈링(Ernest Starling)의 왕립의과대학 연설제목 ‘몸의 지혜’와 1937년 에든버러 대학교의 찰스 셰링턴의 연설제목 ‘몸의 지혜’의 맥을 잇는 것으로, 저자는 책제목을 정하는 것부터 탄탄한 역사의 흐름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의 해박함은 생물의 분류에서 척추동물문 포유강 영장목 사람과 사람속 사람종에 속하는 인체에 대한 단순한 의학이나 과학지식을 넘어 지구과학과 인류학을 접목시키고 있으며, 지극히 과학적인데서 출발한 인체에 대한 경이로움을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인류에 대한 통찰로 완성시키고 있다.

그의 생명의 기원과 생명 및 인체에 대한 이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45억년 전 탄생된 원시지구에 단순한 원자들인 탄소(C), 산소(O), 수소(H), 질소(N)와 황(S), 인(P) 그리고 마그네슘(Mg), 칼륨(K), 칼슘(Ca), 철(Fe) 등이 존재하였다. 이들 원자들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 분자를 만들고, 유기물이 필연적으로 생성되어, 36억년 전 지구상에 생명체가 탄생했다. 이 생명체는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해가고 척추동물 중에 유인원을 거쳐 현생인류가 탄생되었다. 이들 생명의 기본단위는 세포이다. 이 세포는 유전체를 지닌 핵, 세포와 외부와의 경계인 세포막, 세포막내에서 여러 가지 대사물질 등과 세포내 소기관으로 구성된 세포질의 세 개의 중요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의 기원은 세포로서 세포가 분열하여 세포가 생겨난다.

인체는 다세포 생물이다. 다세포생물에서 각각 특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세포는 조직, 기관, 기관계 등을 형성한다. 신체구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세포 자체 내에 있는 분자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고, 계속되는 메시지와 이를 조절하는 해결책 등을 통합 연결한 총체가 생명의 요점이며, 생명이란 불안정하고 역동적인 항상성을 유지해간다.

저자는 여기에서 무생물과 생물을 이원적으로 분리하지 않는다. 지구환경에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은 필연임을 확신하고, 생명과 생명주위 환경이 불이일원(不二一元)임을 암시한다. “독특한 인간정신은 인체 유기체의 자산이다. 정신과 신체 사이에는 이중성이 없다. 두개는 하나다”라는 표현에서도 그의 일원적 입장을 알 수 있다.

모든 생물이 생존과 번식의 의지를 가지고 생명의 영속성을 추구한다. 이는 변화하는 지속성이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제행무상(諸行無常)에 해당하는 통찰이다.

그는 곳곳에서 전체는 각 부분의 합보다 더 위대하다는 확신을 피력한다.

“모든 생물의 유일한 목적은 다음 세대에 유전자를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자는 “인류는 기본적인 자기 보호와 증식 욕구를 넘어섰고, 그 과정에서 부여받은 경이로움과 불가사의로서 추상적 추리, 고도로 조직화된 문명의 수립과 유지를 위한 개인과 공동 사회의 수단, 이타적 수준의 행위, 미에 대한 감각과 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인류를 동물과 구분 짓는다. “신체의 모든 세포와 분자는 마음의 한 부분이며, 모든 기관은 마음에 공헌하고 있다. 살아 있는 신체와 마음은 하나이며, 마음은 신체의 한 속성이다. 마음은 몇 백 만년에 걸쳐 쌓여져 스스로 유기체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지배받으면서도 한편으로 그 자체의 인생을 사는 정신적 구조를 창조해 낸 영광의 산물이다. 이것을 부분이 모인 전체보다 더 큰 어떤 자질이라고 주장한다.”라는 표현과, “인간정신은 우리가 인체구성으로부터 창출해 낸 그 무엇”이라는 생각에서 보듯이 생명체의 조화와 통일, 이타성(利他性)에 대한 통찰도 철학과 종교를 넘나드는 부분이다.

극적인 임상 사례…추리소설 방불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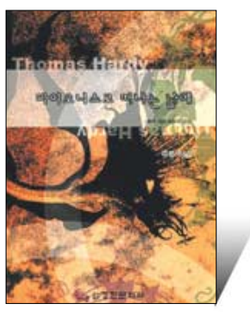
과학자가 빠지기 쉬운 오류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되는 부분은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든 안되든 현상을 직시하고 인정한다. 그리고 끊임없는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부분이 앞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것을 낙관하되,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는다.

유능한 임상외과의사이기도 한 저자는 역자 후기에서 밝힌대로 추리소설을 방불케 하는 극적인 임상증례의 제시로 독자를 흡인한 후, 정확한 인용과 도해를 통해 친절하게 독자를 의학지식의 세계로 안내한다.

■배광식/ 서울대 치대 교수

〈몸의 지혜〉는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저명한 과학저술가인 셔윈 널랜드가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몸이 지닌 갖가지 경이로운 특성들을 감동적으로 소개한 수작이다. 각 장에서 살아 있기 위해 그리고 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몸의 극적인 과정들을 소개함으로써, 몸의 신비와 지혜로움에 대한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토마스 하디 詩의 이해·감상



‘라이오니스로 떠나는 날에’

백원기 편역

경진문화사 / 1만 5천원

100여편 골라 번역·해설 덧붙여

소설 <테스>의 작가로 잘 알려진 토마스 하디(1840~1928)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영국 서정시의 전통을 이어, 영국 현대시의 기틀을 마련한 시인이었다.

<라이오니스로 떠나는 날에>는 하디의 시를 번역하고, 해설까지 덧붙여 그의 삶과 시 세계를 고찰한 흔하지 않은 시 해설집이다.

영국 토마스 하디학회 회원이자, 동서비교문학회 이사이며, 전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동국대 전자계산원 백원기 교수가 펴냈다. 백 교수는 하디 시 가운데 자연과 인간, 사랑, 죽음, 신앙, 향수, 고별, 전쟁 이야기 등을 중심 주제로 100여 편을 골라 우리말로 옮기고 간단한 해설과 감상을 곁들였다. 10여 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는 시들이다.

‘현재가 뒷문의 빗장을 내리고 불안한 나를 현세로부터 내쫓고 /오월의 양기가 싱싱한 푸르른 잎을 갓 짠 얇은 명주같이 /펼쳐지려 할 때, 이웃들은 이렇게 말하겠지, /“그는 평소 그와 같은 것을 눈여겨보던 사람이라오.”

하디가 77세 때인 1917년 발표한 시 ‘훗날’의 처음 부분이다. 이 시에서 하디는 생명의 나약함과 무력함, 생명체에 대한 동정, 자연 그 자체의 신비를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디는 죽음이라는 매개를 통해 생물학적 존재에서 우주적 삶의 존재로 전이를 시속에 펼쳐낸다. 시 속에서 죽은 자들은 기억, 추억, 회상 등을 삶의 한 의미로 포섭하는 시인의 따뜻한 눈길에 이끌려 현실화된 영원의 한 측면을 드러낸다.

책 첫머리의 ‘생가’는 그의 나이 17세에 쓴 것이며, 날짜가 표시된 40여 편의 시들은 그가 런던에서 건축기사로 일하던 20대에 창작한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시들을 통해 하디 시의 특징과 그의 인간관, 그리고 세계관 까지를 엿볼 수 있다.

‘“지상에 평화를!”하고 외쳤다. 우리는 그것을 노래하며, /그것을 가져오게 할 백만의 사제들에게 돈을 준다. /2천년동안 미사를 올린 후에 /우리는 독가스까지 얻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 학살을 보며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꼈던 하디가 쓴 시 ‘1924년 성탄절’이다. 역사의 흐름과 그 속에 내재된 아이러니에 대한 통찰이 이 4행 시의 역설 속에 응축되어 있다. 하디는 그의 문학에 공감했던 플로렌스 헤니커 여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명세계에 사는 우리는 거의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정당하게 시험해 왔으나 그것은 아직 여러 나라에게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덕목을 가르쳐 주지 못했다. 그러니 기독교를 버리고 불교를 택하는 것이 어떤가”라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할 정도로 불교 사상을 마음 한켠에 두고 있었던 것 같다.

이은자 기자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도



무상(無常)은 현실이다

불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의 하나가 무상이라는 단어이다. 인생무상이니 계절무상이니 정치무상이니 하여 변화와 함께 감상적인 센티멘탈리즘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혹자는 무상이란 단어로 인해 불교를 염세적이고 소극적인 종교로 오인하기도 한다.

무상이란 말은 변화란 의미이다. 변한다는 점에서 변화의 방향이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대부분은 그 방향이 좋은 쪽으로 바뀌길 바라지만 반드시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은 무상을 좋은 방향에서 나쁜 방향으로 인생이 역전되었을 때 흔히 사용한다. 이때는 일종의 패배내지 체념 의식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

무상이란 범어 아니티야를 번역한 말인데 영원히 변하지 않고, 생기거나 소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니티야의 부정어이다.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 시설된 가르침이다. 그렇지만 인간이란 변화 보다는 변하지 않는 것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있다. 변화 보다는 안주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변화하지 않고 영원한 것 없어
현실직시, 미래의 삶 준비 해야

무상이란 단어가 지니고 있는 현실성 때문에 부처님은 세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으로 무상을 꼽고 있다. 흔히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 표현되는 가르침이다. 여기서 제행(諸行)이란 일체의 의식의 흐름이란 의미이다. 행(行)이란 단어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의지의 작용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간다는 의미의 행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나아가 자아를 유지하거나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의 요소를 결합하고자 하는 강한 힘을 행이란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역시 모두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이라 말하는 것이다.

교리적인 입장에서 무상에 대한 의미를 이상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면 인도 사회의 문화사상사적인 입장에선 브라만교의 가르침을 비판하는 반대의 입장에 서 있다. 특히 이 세상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아(我)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 아는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브라만교의 가르침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를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급제도를 논리적으로 정당화 할 수 있었다. 반면 불교에서는 무아론과 무상론을 설파하므로써 계급제도를 부정하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의 여하에 따라 자신의 삶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가르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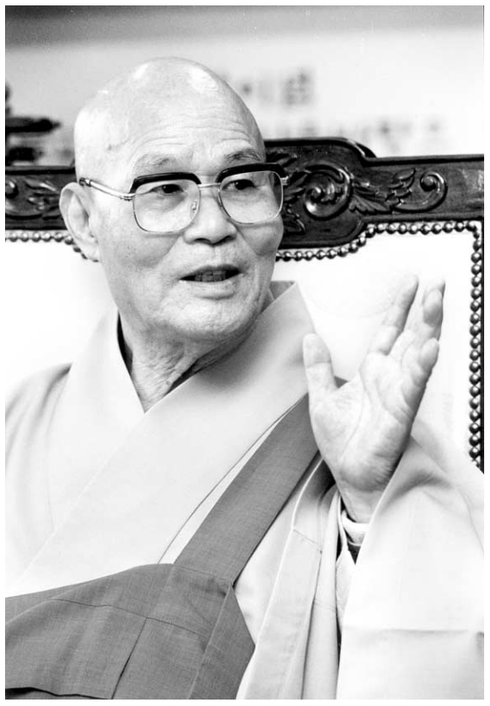
<<잡아함경>>권3, <청정경>에 의하면 무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비구들이여, 색(물질)은 무상이다....수(감수작용)는 무상이다…상(표상작용)은 무상이다....행(의지작용)은 무상이다…식(지적 분별력)은 무상이다. 무상이기 때문에 고이다. 고이기 때문에 무아이다. 무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본체도 아니다. 이와 같이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면 그 마음은 집착하는 것이 없고, 번뇌를 벗어나 해탈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설법을 한 뒤에 이어서 색수상행식(오온)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이 없고, 번뇌를 벗어나 해탈한다면 해탈했기 때문에 동요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며, 만족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자연히 열반에 도달하게 되고, '내 방황의 삶은 끝났다. 청정한 행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루어야할 것은 이미 다 하였다. 이후에 다시 방황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고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사실 이상에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가지 요소 혹은 물질세계와 정신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가지 요소의 무상함을 관찰함으로써 인간들은 번뇌를 벗어나 평화를 이룩할 수 있고, 동시에 윤회의 삶을 벗어나 대자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방황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표현이다. 여기서 물질도 변하는 것이지만 정신의 변화에 무게의 중심을 두어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인간들의 정신이 무상함을 느끼는 일이야 말로 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무상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위, 부귀, 명예, 재물 등이 무상하지 않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무상이란 말은 우리들에게 준비와 노력을 요구한다.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지나간 것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것에 만족할 여유가 없고, 오지 않은 미래를 무시할 수 없다. 때문에 준비와 노력을 통해 무상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무상하기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이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무상을 알기에 솜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동국학원에서 32년간 교육불사를 해온 녹원스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수행으로 지혜 쌓고 선행하여 복 짓기를…

가까이서 뵌 큰스님

녹 원 스님 (직지사 회주)

남산의 나무들이 그 무성하던 잎들을 다 떨구어 내고 알 몸으로 겨울을 지탱하고 있다. 산도 덧칠했던 모든 것을 털어내 버리고 골격만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다. 스스로 비울 것을 비울 줄 아는 자연의 지혜는 동국대학교의 겨울 풍경을 연출해 내는 중요한 뒷그림이다.

지난 15년간 (재)동국학원의 이사장직을 맡아 왔던 녹원스님. 11월 29일 오후 4시 스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사장직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0여일이 지난 후 동국대 본관 이사장실에서 녹원스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버린 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처님 가르침따라 소임 다해
자리 비워줘야 뒷사람 더 많은 일

"마음이란 올 때나 갈 때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인연을 따라 오고가는 것이기에, 세상의 변화에 따라 오고 가는 상황의 차이는 있어도 본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동국대학에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 했고 이룬 것도 많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게 주어진 일을 했으니 이제 자리를 비워 주어야 뒷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일산병원도 내가 개원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버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만큼은 했으니 거기에 자족하고 다른 분이 더 지혜롭게 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믿기에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소유하고 있을 때 집착하지 않았기에 버린 후에 아쉬울 게 없는 것이 선사들의 가풍이다. 1968년부터 32년간 이사직을 맡았고 그 절반인 15년은 이사장 소임을 맡아 공심(公心)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해 왔던 녹원스님은 떠나야 할 때 떠나는 것도 교육불사의 한 과정이라 여기는 것이다.

1984년 종단이 어려움(분규)에 봉착했을 때 해인사에서 승려대회가 열렸었다. 산중공사를 통해 녹원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의가 됐는데 녹원스님은 승려대회 후에 그 사실을 통고 받았었다. 몇 번을 고사하려 했지만 종도들이 뜻을 모아 결정한 것을 외면하는 것도 종도로서의 도리가 아니란 생각에 총무원장직을 맡았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스님은 총무원 부장급 스님들과 조촐하게 저녁 식사를 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원장직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다음날 표연히 황악산으로 돌아갔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리를 1년 이상 지키기 어려운 종단 상황에서 2년간 종단을 안정 시킨 현직 총무원장이 특별한 분규나 외압도 없이 스스로 자리를 내놓겠다고 했으니 말이다. 스님은 엷게 웃으면서 "오래된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꺼내느냐"고 했지만 그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하게 대답했다.

"똑 같아요. 부처님의 은혜를 입은 종도로서 일이 주어지면 당연히 해야하고 그 일을 다 했다 싶으면 또 다른 일을 위해 자리를 옮겨 가는 것이 순리니까요. 그 때 총무원장을 맡은 동기가 승려대회라는 초법적인 논의구조였기에 그 긴박한 상황이 정리된 후에는 자리를 지키고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동국대 이사장직을 내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985년 처음 맡은 것도 내 의지보다는 다른 이유가 더 컸었습니다. 당시 학교는 상당히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총장과 이사장이 다 학교행정을 더 이상 총괄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동국대학이 운동권 학생들의 주요 거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와중에 청와대 행정수석 이 아무개씨가 찾아 와서 '이사장을 맡아 학교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동국대 동문인데 애교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맡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오랜 시간이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의 신설과 병원설립(원래는 전국 각 도(道)마다 불교병원을 하나씩 세우는 것이 소원이었다), 불교방송국 설립, 경찰포교의 현실화 등 원력을 세운 일들이 어느정도 이루어 졌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라 할 수 있겠지요."



◇동국대 정각원 앞에 선 녹원스님.(사진:불교와 교육문화)

녹원스님은 30년이 넘도록 교육불사의 현장을 뛰었지만 사실 황악산 직지사를 오늘의 사격으로 일신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가람불사에도 꼬박 30년을 진력했었다. 처음 출가할 때 그러니까 1941년 이후 20여 년 간 직지사는 공부하러 들어오는 학생들이 들고 오는 쌀밥에 의존하는 정도의 살림살이였다. 400년 전 사명대사가 출가한 거찰치고는 너무나 초라했던 것이다. 1957년 직지사가 교구본사로 승격되고 이듬해 본사 주지를 맡으면서 직지사를 중창하려는 녹원스님의 행보는 거침없이 뻗어 나갔다. 교구본사 승격을 기해 1천일기도를 입재하며 절의 외형을 확대하고 내실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직지사는 녹원스님에게 고향보다 각별한 마음의 고향인 셈이다.

그렇다면 가람불사와 교육불사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했을까?

"불사는 모두가 한 불사입니다. 부처님의 일이란게 뭡니까? 부처님을 위하는 일이 불사고 만중생이 부처님의 종자입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이 부처님 일입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이 부처님을 이롭게하는 일이고 부처님을 이롭게 해야 시방법계가 안락한 겁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은 불자라 할 수 없습니다. 교육불사도 가람불사도 다 부처를 위하고 중생을 위한 일이기에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불사를 통해 좋은 인연을

수행으로 지혜 쌓고

선행하여 복 짓기를…

착하
아쉬
들의
32년
절반
을 말
발전
떠나

에서
총무
려대
했지
도로
그리
과조
을 내
돌아

에 그 긴박한 상황이 정리된 후에는 자리를 지키고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동국대 이사장직을 내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985년 처음 말은 것도 내 의지보다는 다른 이유가 더 컸었습니다. 당시 학교는 상당히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총장과 이사장이 다 학교행정을 더 이상 총괄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동국대학이 운동권 학생들의 주요 거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와중에 청와대 행정수석 이 아무개씨가 찾아 와서 '이사장을 맡아 학교를 안정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동국대 동문인데 애교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맡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오랜 시간이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의 신설과 병원설립(원래는 전국 각 도(道)마다 불교병원을 하나씩 세우는 것이 소원이었다), 불교방송국 설립, 경찰포교의 현실화 등 원력을 세운 일들이 어느정도 이루어 졌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라 할 수 있겠지요."

녹원스님은 30년이 넘도록 교육불사의 현장을 뛰었지만 사실 황악산 직지사를 오늘의 사격으로 일신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가람불사에도 꼬박 30년을 진력했었다. 처음 출가할 때 그러니까 1941년 이후 20여 년 간 직지사는 공부하러 들어오는 학생들이 들고 오는 쌀말에 의존하는 정도의 살림살이였다. 400년 전 사명대사가 출가한 거찰 치고는 너무나 초라했던 것이다. 1957년 직지사가 교구본사로 승격되고 이듬해 본사 주지를 맡으면서 직지사를 중창하려는 녹원스님의 행보는 거침없이 뻗어 나갔다. 교구본사 승격을 기해 1천일기도를 입재하며 절의 외형을 확대하고 내실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직지사는 녹원스님에게 고향보다 각별한 마음의 고향인 셈이다.

그렇다면 가람불사와 교육불사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했을까?

"불사는 모두가 한 불사입니다. 부처님의 일이란게 뭡니까? 부처님을 위하는 일이 불사고 만중생이 부처님의 종자입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이 부처님 일입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이 부처님을 이롭게하는 일이고 부처님을 이롭게 해야 시방법계가 안락한 겁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은 불자라 할 수 없습니다. 교육불사도 가람불사도 다 부처를 위하고 중생을 위한 일이기에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불사를 통해 좋은 인연을 지고 복을 지어 지혜의 종자를 심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불사 잘 한 사람이겠지요."



◇유치원생과 어머니에게 5계를 내리는 장면(사진:불교와 교육문화)

지난 여름 녹원스님은 두툼한 책 한권을 출간했다. 교육불사 현장을 종횡무진 달려 온 궤적(軌跡)들을 담은 <불교와 교육문화>다. 각종 행사에서의 연설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 책의 핵심은 '지혜로운 사람' 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스님의 친절한 당부가 곳곳에 묻어 있다. 스님은 수행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선행을 통해 복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겸겸이 당부한다. 스님의 상좌들은 물론이고 가까이서 스님을 모셔 본 사람들은 누구나 한결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 스님의 가르침' 이라고 말한다.

"부처님을 복혜양족존(福慧兩足尊)이라 하지 않습니까? 복과 지혜를 함께 지닌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지혜를 얻는 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고 복을 짓는 선행을 즐거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 은혜를 갚는 길이고 스승과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이며 나라의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공부가 수승해 그 힘으로 여러 중생을 제도한다면 그 자리가 극락입니다. 제도를 받을 것이냐, 제도 할 것이냐, 누구에게나 이 두 길은 열려 있습니다. 어느 길에 서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른 스님들에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녹원스님은 어느 스님보다 상좌들에게 엄하기로 소문이 나 있다. 어린 학생들의 팔뚝에 연비를 하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지?"하며 격려하는 그 따스함을 상좌들은 그다지 느껴 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작은 실수에도 모진 질책을 하는 스승의 '깊은 정' 을 모르는 상좌도 없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제자를 사랑하지 않는 스승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보호해주고 매사를 이해해 주면 유약해집니다. 나 역시 스승에게 엄하게 교육 받았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인지 늘 제자들이 부족해 보입니다. 나보다 잘 하라는 격려가 엄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 엄하고자 엄해지는 것은 아니예요."

오랜 시간 지켜 온 자리를 털고 일어난 녹원 스님은 어디로 갈 것인가?

산으로 돌아가도 할일 많습니다
중생 이롭게하면 시방법계 안락

"산으로 돌아가면 산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냥 양식만 축내며 지내는 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백장선사도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지 말라고 했잖습니까? 산에 돌아가서도 수행과 포교의 본분사에 열중하고 대중외호도 해야지요. 자신이 할 일을 남에게 미루거나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조차 분간 못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어렵고 쉽고를 구별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입니다. 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무슨 일에든 용기를 낼 것입니다. 학교를 떠나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겨울 나무들은 잎을 다 떨구어 낸채 또 한 켜의 나이테를 만들어 내고, 겨울산은 골격만으로 남아 새봄의 힘찬 기운을 안으로 축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사진=임민수 기자 yminsoo@buddhapia.com

76년부터 동국학원이사…세계적 불교학 산실로

녹원스님은?

1928년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해인사 아랫마을에서 출생했다. 속명은 오인갑(吳仁甲), 법호는 영허(映虛). 1941년 황악산 직지사로 출가해 탄옹(憚翁)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직지사 강원에서 이력을 마치고 선학원과 직지사 천불선원에서 안거를 했다. 1948년 한암대종사로부터 구족계를 받았으며 보문선원과 천불선원에서 수선안거를 계속했다.

1964년부터 20여년 간 학교법인 능인학원의 감사, 이사, 이사장을 지냈으며 1968년부터 74년까지 동국학원 이사를, 76년부터 현재까지 동국학원 이사를 역임하는 가운데 1985년부터 2002년 12월 19일까지는 이사장직을 수행했다. 동국대의 내적 성장을 기해 학과신설과 건물신축, 부대시설과 산하 기관의 꾸준한 확대를 이끌었으며 일본, 중국, 미국, 호주 등의 유수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으며 세계적인 불교학의 산실로 성장시키기도 했다. 특히 불교병원 건립에 매진해 경주, 포항, 분당, 강남에 이어 일산에 초대형불교종합병원을 준공했다.

정화불사때부터 종단일에 투신했으며 1957년 직지사가 교구본사로 승격된 이후 첫 주지직을 맡아 중창에 심혈을 기울였다. 30여년 간 계속된 중창불사를 통해 직지사는 오늘의 사격을 이루었다. 직지사 말사를 독려해 유치원 · 어린이집 · 양로원 등 복지시설과 교양대학을 10여곳 설립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총무원장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종단의 화합과 발전에도 기여했다. 각급 종립학교와 직지사 연수원을 통해 수만명에게 수계를 했으며 키르키즈 공화국과 스리랑카 국립 프리베나 대학 등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



주경스님의
스님이야기
효명스님

줄곧 큰스님을 시봉하면서 살아 어느덧 큰스님의 모습을 닮아버린 스님이 있다. 행동거지도 말투도 그렇고 법상에서 설법하는 모습도 영낙없는 큰스님의 복사판 그대로다. 그래서 법상에 오르신 큰스님을 뵈면 큰스님을 닮은 도반이 생각나 문득 웃음을 짓기도 한다.

효명스님은 고산 큰스님 시봉이다. 강원에서 함께 공부할 때 말투와 행동거지를 어찌나 노스님같이 하는지 젊은 스님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의문을 가지기도 했었다. 유난히 꼿꼿한 자세와 엄격한 태도에, 공을 많이 들여 빳빳하게 풀먹인 무명옷을 즐겨 입었는데 결눈질 한번 하는 일을 보지 못했다. 경을 읽을 때는 진지하고 긴장된 태도로 신중에 신중을 다하고 말은 소임은 철저하여 빈틈을 용납하지 않는 고지식함이 줄줄 흘러나왔다.

언젠가 겨울안거에 선방 용맹정진에 들어가려고 대중의 신청을 받는데, 효명스님이 며칠 말미를 주었으면 하기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몸을 추스려본 다음에 결정을 하려나 생각하



그림 · 문병성

고 며칠을 지냈는데, 그 철 용맹정진은 어렵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미 여러차례 용맹정진을 마친 터라 꼭 들어가야 할 이유도 없었고 건강이 허락지 않아 그런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며칠 뒤 우연히 알게된 사실은 효명스님의 고지식한 일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야기였다.

혹시 용맹정진에 들어갔다가 대중스님들께 누라도 끼치게 될까봐 말미를 얻은 며칠동안 밤마다 잠을 자지 않고 정진을 했다는 것이다. 미리 힘을 얻어 함께 정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한 일이지만 낮에도 따로 쉴 수 없는 꽉 짜인 강당생활에, 온전하지 못한 몸으로 며칠 밤을 새웠으니 배겨날 수 없었던 것이다. 여럿이 함께 정진하면 설혹 힘이 약한 스님이라도 대중의 힘으로 버틸 수 있지만 남들 다 자는 밤에 혼자 깨어 하는 정진은 몇 배 힘이 드는 일이다. 미련스럽기까지 했던 그 일은 이후 대중용맹정진 들어가기 전에 혼자 용맹정진을 해 마친 괴팍한 스님이라고 가끔씩 도반들의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다. 물론 악의 없는, 깊은 애정에서 하는 말이었다.

다른 종교를 믿던 효명스님의 속가 모친이 아들을 보러 절에 찾아왔는데 몇 가지 이유로 법당에 참배를 하지 않았단다. 그래서 스님은 아들을 만나러 왔으면 당연히 아들의 스승에게도 예를 표해야 하는 것이니 법당에 가서 참배할 것을 당부했단다. 그렇게 출가한 아들의 인연을 가지고도 불교의 인연을 맺지 못하던 모친을 7년 세월동안 꾸준히 설득하고 불법을 전해오다가 결국 기도의 원을 세워 불자로 만들었다. 출가한 몸으로 먼저 가족을 제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포교한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자기 확인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대중살이에 조금 머트러운 점이 있어도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 그냥 넘어가는 일이 있기도 했는데, 성격이 깐깐한 효명스님은 그래도 할말은 해야 한다며 사심없는 지적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혹 도반들의 소임에 실수가 있으면 대중이 불편해 할까봐 솔선해 대신 해주는 자상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차를 좋아해서 팽주 자리에 앉아 도반들에게 차우려주기를 즐겨하였고, 맛있는 차를 위해 약수를 뜨러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대중이 산행을 갈 때면 대부분 간편한 복장에 편한 신발을 신는데, 유독 혼자 무명옷에 털신과 고무신을 고집하면서도 자신은 복장이 그것 뿐이라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자신의 방식을 지키곤 했다.

"할말은 한다" 사심없는 지적
7년간 기도…모친을 불자로

그런 고지식한 모습으로 무장한 효명스님이지만 가끔씩 지대방에서 도반들과 격식 없는 자리를 함께 할 때면 나름대로 우스개 소리도 하고 소리내어 웃기도 하면서 어우러지는 대중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강원을 마치고 은사스님을 시봉하면서는 일년에 한 철은 반드시 선방을 가도록 하겠다는 허락을 얻어 수좌와 소임을 겸하는 철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철을 나지 않을 때는 정진중인 사형제들과 도반스님들을 찾아다니며 대중공양으로 뒷바라지 하고 자신도 다만 일주일이라도 시간을 내어 보궁과 기도처를 찾아 기도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주지소임을 맡고부터는 절에서 운영하는 불교대학의 강의를 직접 챙기면서 신도교육은 스님이 시켜야 한다며 스님들로 강의를 채우는 열성을 보여준다. 강의가 끝나면 녹음테이프를 꼼꼼히 챙겨 듣는 치밀함을 가져 효명스님의 혜원정사 불교대학 강의를 부탁받는 스님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때로 강의가 끝나고 식당에 노래방 기계를 설치해 스님들과 신도들이 어우러져 노래한마당을 만드는 여유를 가지기도 한다.

큰스님을 모시고 사는 주지소임이 수월하지도 자유롭지도, 또 뜻대로 되지도 않을 텐데 이미 큰스님을 닮아버린 효명스님은 그런 생활이 무척 즐거운 모양이다. ■ 서산 부석사 주지

불교유적 정신까지 목판에 옮겨

정비파씨, 30일까지 '국토기행 목판화전'



◇산 전체가 온통 야외불교박물관인 경주 남산을 목판에 옮긴 정비파씨의 '경주남산전도'.

'운주사 천불천탑전도' 등 50여점 선뵈

판각원판·다색 목판화도 함께 전시

"우리의 국토는 그대로 우리의 역사이며, 철학이며, 시이며, 정신입니다." 육당 최남선은 일찌기 수필 '국토예찬'을 통해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깃든 정신을 소중히 보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목판화가 정비파(47)씨가 6년여에 걸쳐 일관된 주제로 삼아온 '국토기행 목판화전'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 대백프라자 갤러리에서 30일까지 열리는 정비파씨의 이번 작품전 역시 주제가 국토기행이다.

그동안 정 작가는 경기도를 출발해 경상도, 전라도, 낙도의 섬까지 우리 국토의 구석구석을 누볐다. 우리의 땅, 절터, 산, 논길은 물론 노동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목판 위에 새겼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뇌리 속에 오랫동안 각인된 것은 불교문화유적이었다.

도처에 부처요 곳곳이 탑인 운주사를 목판에 조각한 뒤 채색을 입힌 '운주사 천불천탑전도', 야외 불교박물관인 경주 남산을 그대로 조각한 '경주 남산 전도'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작품들이다. 이외에도 이번 전시회에서는 '서산마애삼존불', '문경 봉암사', '갓바위', '부안 우동리 당산나무' 등 50여점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관객들이 제작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원판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 작품들은 대부분 단색 목판화 위에 채색한 '채색목판화'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여러 판으로 나누어 제작한 다색 목판화 작품도 4점 끼여있다.

정비파씨는 "가장 오래된 목판화로 알려진 고려 목종 10년 보협인다라니경과 팔만대장경중 대방광불 화엄경의 변상도인 불교관련 목판화들이 우리 문화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며 "이런 소중한 의미를 되살리고자 전국을 돌아다니며 보고 느낀 불교문화유적을 목판 위에 옮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053)420-8015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템플 스테이·테마 여행상품의 홍보와 스케줄 예약을 위해서는 각 사찰의 전용 홈페이지 운영과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해야 한다' '불교 이미지와 캐릭터 상품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호소력 있는 문화마케팅 지원이 시급하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중장기 체험형 수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캐릭터 개발·문화마케팅 지원을

불교문화산업기획단, 강화도서 세미나

선수행 체험 관광상품 개발시급

사하촌정비·숙박시설 인증제 필요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 주최로 강화 전등사에서 13일~14일 열린 '불교문화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세미나'에서 쏟아져 나온 의견들이다. 도후 이사장 스님, 계성 전등사 주지스님, 김광삼 현대불교 신문사 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교이미지의 산업적 응용의 현황과 전망(이점원 동국대 미술과 교수) △불교로 본 한국인의 조형의식(윤범모 경원대 미술과 교수) △사찰건축의 관광자원화(김봉열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불교이미지와 디자인 산업(박규현 대구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전통불화의 산업적 응용(이기선 불교조형연구소장) 등을 순서로 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점원 교수는 "불교관련 이미지 작업 및 캐릭터 상품과 선수행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하다"며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의 발족으로 불교이미지의 산업화가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렬 교수도 "사찰이 관광화되기 위해서는 사하촌을 정비해 숙박 시설의 인증제를 실시해야 하며 전통문화 체험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찰 부대시설의 품격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권역별과 주제별로 연계한 관광 전략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범모 교수도 "한국의 미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확실히 자연친화주의적인 요소가 강하다"며 "이는 원효의 무애행에서 하나의 미학체계를 얻어 무애미의 개념으로 도출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첫날 6시간에 걸친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회에 이어 둘째 날에는 사진작가 안장헌씨가 '문화재속에 나타난 불교문양'을 주제로 한 슬라이드 상영과 조원희 지도리대표의 '한국 전통문양 CD롬 프리젠테이션' 강의가 열렸다.

한편 도영심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장은 "템플 스테이야 말로 불교계에서는 포교 차원에서 국가적으로는 외국인 유치 차원에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광 프로그램"이라며 "실제로 월드컵 기간중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문의가 빗발쳐 중장기적으로 장단점을 보완해 지속시킬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느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주일기자



◇흙으로 만든 화판 위에 채색한 한승구씨의 '욕, 색, 무색천'.

한승구씨 전통불화 日전시

욕·색·무색계 주제 50점

전통불화 작가 한승구씨가 30일까지 일본 동경 갤러리 혼에서 '욕색무색천(欲色無色天)'이란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 등 삼계를 표현한 50여 작품이 벽에 걸린다.

특히 한승구씨는 이번 불화 작품들을 야안 도화지가 아닌 흙으로 만든 화판에다 그렸다. 이번 전시 작품들을 살펴보면 모두 동일한 구도를 하고 있다.

갖은 탐욕과 희노애락, 번뇌망상이 존재하는 하급 세계인 욕계를 맨 밑에 잡고, 자아의 성찰과 수행으로 탐욕은 잊었으나 아직은 완전히 물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욕계와 무색계의 중간적 단계인 색계를 그림 중앙의 네모안에 표현했다. 또 화면 맨 위는 물욕 등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무색계를 그렸다. 일본 혼 갤러리(03)5638-6658

'가야금 명창 보존회' 창단공연

안숙선·강정숙씨 한무대에

판소리 명창 안숙선(국립창극단 예술감독, 무형문화재 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씨, 국악협회 이사장 이영희씨에 이어 지난해 가야금 병창 부문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강정숙(국립국악원 지도위원)씨가 한 무대에 선다. 최근에 설립한 사단법인 가야금 병창 보존회를 축하하는 기념공연에서다.

이 공연은 26일 오후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리는 '향음재(香音齋)'라는 타이틀의 무대다.

안숙선씨는 가야금 산조를, 강씨는 가야금 병창으로 단가 '호남가'를, 이영희 국악협회 이사장이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를, 역시 가야금 병창 인간문화재인 강정렬씨가 단가 '죽장망혜'를 들려준다. 또 65명의 회원이 출연해 가야금 병창 신민요 '상사천리봉'을 함께 연주한다. (02)581-9712



◇가야금 산조를 열창하고 있는 안숙선 명창



"스님이 부르면 모두 찬불가지요"

4집음반 '세상 속으로' 낸 도신스님

어떤 노래도 포교에 맞는 창법사용

"대중가요 사람들과 더 친근하게 해"

도신 스님(사진·서산 서광사 주지)이 6년만에 4집 앨범 '세상속으로'를 내놓았다. 3집까지의 음반이 찬불가요를 주로 불렀다면 이번 음반은 흘러간 옛 대중가요가 대부분이다. 이런 파격적인 변신 뒤에는 무언가 사연이 있을 법하다.

▲이번 음반에는 어떤 곡들이 수록돼 있는가?

총 14곡인데 이중 12곡은 '황성옛터', '정', '바람이 전하는 말', '나도 모르게' 등 귀에 익숙한 흘러간 옛 대중가요다. 타이틀곡인 '초가'와 '슬픈기도'는 자작곡이다.

▲기존 음반과 장르가 완전히 다른데 변신의 이유는 무엇인가?

3집 앨범까지는 모두 찬불가 음반이었는데 불자들은 좋아하지만 비불자들이 외면하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한번은 어느 자리에선가 '황성옛터'를 불렀더니 불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좋아했다. 이때부터 포교 차원에서라도 일반 대중 가요를 부르기로 결심했다.

▲스님이 대중가요를 부른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스님이 부르는 노래는 어떤 장르든 모두 찬불가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을 한 번도 떠난 적 없이 항상 가까이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노래 부르는 마음 가짐이 중요하지 장르는 상관 없다.

▲오랜 공백끝에 음반을 발표 했는데 예전에 노래할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전에 노래 부를 때는 그 노래에 감정이입이 돼 항상 들 뜬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평상시 기도할때와 같이 똑같은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어 좋다.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부르든 불음 포교에 맞는 창법을 유지할 자신이 있다. 시간이 흘러서 인지 노래부를 때의 마음가짐이 바뀐 것 같다.

▲다음 음반 계획은?

분명히 이번 음반은 기존의 틀을 깬 약간은 파격적인 변신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불음 포교를 위해 다음 음반에서는 더욱 파격적인 노래를 선사하겠다.

김주일기자



◇복지관이나 자치단체가 마련한 컴퓨터교실에 인터넷 사용법을 배우려는 노인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있는 노인들.

실버세대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사이트	내 용
실버넷 www.silvernet.ne.kr	55세 이상의 연령층에게 무료 인터넷 교육 실시
노인정보화교육센터 www.9988.or.kr	노인을 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 제공
굿실버 www.goodsilver.net	실버세대를 위한 건강, 복지, 문화, 재테크 정보 제공 전문상담실과 대화방 운영
스위트캐어 www.sweetcare.com	노인병원 길라잡이, 실버 재테크, 치매예방 게임방
실버월드 www.silverworld.co.kr	옛친구찾기, 전화말벗서비스, 회고록집필대행, 응급경보서비스, 실버미팅서비스
실버클럽 www.silverclub.co.kr	발관리 동호회, 여행 동호회, 먹거리 동호회, 이성 동호회
김기후의 실버스포츠 http://user.chollian.net/~kkhoo99/	실버 스포츠의 종류와 유의할 사항 등산, 게이트볼, 배드민턴, 치매예방운동 등
한국노인병연구소 www.geriweb.com	노인 건강지수와 식이, 복지
대한노인회 www.koreapeople.co.kr	노인복지정책과 노인관련법, 건강생활상식
시니넷 www.seni.net	50세 이상을 위한 복지정보 제공
프롬50 www.from50.com	50세 이상의 고령자와 가족을 위한 커뮤니티 사이트

인터넷 또 다른 경로당

'노인 정보화 소외' 옛말… '취미도구' 자리 매김

e메일 수준 넘어 개인 홈페이지 운영

실버 스포츠·치매 예방 등 사이트 수두룩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인터넷 사용자수 1천670만명. 초등학생부터 노인들까지 이메일을 주고받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됐다. 자치단체나 복지관에서는 '노인 컴퓨터 경진대회'가 잇달아 열리는 등 노인 인터넷 사용자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컴퓨터를 켜고 끄는 것조차 모르던 정보화 사회의 소외계층이었던 노인들에게 이제 인터넷은 또 하나의 여가활용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단순히 이메일을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다양한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1992년에 개설된 하이텔의 '원로방'은 대표적인 실버 동호회. 6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1만여 명의 회원이 있다. 실버 동호회라고 해서 게시판에 고루한 신변잡기들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 커뮤니티를 만들어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직접 찍은 가족사진을 올려놓기도 한다.

'원로방' 회원인 이현자(64)씨는 좋아하는 음악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듣고 개인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 "손자들이 '할머니는 컴퓨터 몰라도 된다'고 한 말에 오기로 배우게 됐다"는 이 씨는 "이제 하루라도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으면 궁금할 정도"라고 말한다.

유니텔 동호회 '실버타운'이나 천리안 '원로통신 동호회'도 실버들을 위한 동호회다. 이들 모임에서는 매달 회비를 모아 복지시설에 기부하거나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사회봉사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노인병원 길라잡이, 실버 재테크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스위트케어닷컴(www.sweetcare.com)에서는 다양한 컴퓨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치매예방 게임방'이 눈길을 끈다. '벽돌깨기', '풍선터트리기' 같은 간단한 게임도 있고,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스타크래프트' 동호회도 있다.

인터넷 사이트 실버월드(www.silverworld.co.kr)는 옛친구찾기, 전화말벗서비스, 회고록집필대행, 응급경보서비스, 실버미팅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실버클럽(www.silverclub.co.kr)에 마련된 발관리 동호회나 여행 동호회, 먹거리 동호회, 이성 동호회에 가입하면 같은 취미를 가진 많은 '벗'들을 만날 수 있다.

김기후의 실버스포츠(http://user.chollian.net/~kkhoo99/)는 노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을 소개해 놓은 사이트다. 실버 스포츠의 종류와 유의할 사항은 기본 항목. 등산, 게이트볼, 수영, 배드민턴, 뇌 운동, 댄스 스포츠 뿐만 아니라 유연성체조, 치매예방체조, 요통예방체조, 컴퓨터 사용자를 위한 네티즌 체조 등을 소개해 놓았다.

한국노인병연구소(www.geriweb.com) 홈페이지에는 노인 건강지수와 식이, 복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며 대한노인회(www.koreapeople.co.kr) 홈페이지에서는 노인복지정책과 노인관련법, 건강생활상식을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50세 이상을 위한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시니넷(www.seni.net), 종합 인터넷사이트 실버클럽(www.silverclub.co.kr), 50세 이상의 고령자와 가족을 위한 커뮤니티 사이트 프롬50(www.from50.com)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 실버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노인들을 위한 전용 인터넷 쇼핑몰인 실버메디칼쇼핑몰(www.mism.co.kr)나 실버리아(www.silveria.co.kr) 등도 등장했다.

지난해 4월 마포노인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운 이규상(67) 씨는 손자들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싶어 컴퓨터 교실에 등록했다. "똑같은 과정을 배워도 그것을 얼마만큼 활용하고 응용하느냐에 따라 더욱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이 씨는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이메일도 주고받고 인터넷 뱅킹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컴퓨터 사용법과 인터넷 활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관 등에 마련된 컴퓨터 강좌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한문 익히고 사찰예절도 배우고

대흥사 등 단기출가형식 한문학당 열어



◇지난 여름방학 해남 미황사에서 열린 한문학당 입제식 모습.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이 한문과 사찰예절을 함께 배울 수 있는 한문학당이 문을 열었다.

해남 대흥사는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단기출가 형식의 한문학당을 연다. 수심보경과 불교경전을 배우는 한문교실 외에도 어린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생활예절, 발우공양, 참선, 다도 등의 문화체험과 생태체험을 할 수 있다. 35명을 모집하며 내년 1월 5일~12일, 15일~22일 두 차례 실시한다. 12월 30일까지 인터넷(www.daeheungsa.com)으로 신청을 받는다. 참가비는 15만원.061)535-5775.

해남 미황사도 1월 4~11일, 15~22일까지 재심자(초등)과정과 중학생 과정의 한문학당을 운영한다.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과 대흥사 수련원장 법인 스님이 강의를 맡는다. 각각 35명과 30명을 모집하며 참가신청서를 홈페이지(www.mihwangsa.com)에서 다운 받아 작성한 후, 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061)533-3521

<불교계 한문교실>

시설명	연락처
서울 백련사	02)306-0288
부산 보타원	051)243-0048
해남 미황사	061)533-3521
해남 대흥사	061)535-5775
길음사회복지관	02)985-0161
과천사회복지관	02)507-6319
옥수사회복지관	02)2282-1100
자양사회복지관	02)458-6796
공창사회복지관	051)363-2063
모전사회복지관	054)555-0108

서울의 백련사(02-306-0288)와 강남포교원(02-539-2631), 부산 보타원(051-243-0048)에서도 한문교실을 운영한다.

단기출가 형식의 한문학당이 부담스럽다면, 가까운 불교계 복지관에서 마련한 한문교실을 찾아보자. 서울의 길음·옥수·자양복지관, 부산 공창복지관, 부천의 원종복지관 등에서도 한문과 예절교육을 연다.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무채두부찜



두부 2모, 표고버섯 10장, 무 1/3개, 홍고추 3개, 미나리 100g, 고춧가루 1큰술, 진간장 3큰술, 식용유, 소금, 통깨 약간씩

1. 두부는 1cm 두께로 썰어 소금을 약간 뿌려 기름 두른 팬에 노릇노릇하게 지진다. 표고버섯은 불려 밑동을 떼고 채썰어 기름 두른 팬에 볶는다.

2. 무는 곱게 채썰고, 홍고추는 반으로 갈라 씨를 빼고 채썬다. 미나리를 줄기만 씻어 4cm 길이로 썬다.

3. 무채에 고춧가루를 넣고 버무린 후 표고버섯, 미나리, 홍고추, 통깨를 넣고 진간장으로 무친다. 간장으로만 간을 하면 색이 검어지므로 소금을 함께 넣는다.

4. 잘 달군 냄비에 양념한 무채를 깔고 그 위에 두부를 얹는다. 냄비가 달궈진 상태에서 무를 넣어야 아삭하다. 무채를 무쳤던 그릇에 물을 두세 숟가락 부어 그 물을 냄비 가장자리에 돌려가며 붓고 뚜껑을 덮어 살짝 끓인다.

자료제공: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건강단신

'명상통한 금연교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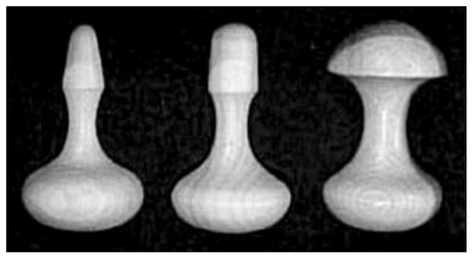
서울 도봉구는 매주 목요일 구 보건소에서 '명상을 통한 금연교실'을 운영한다. 덕성여대 건강심리학과 김정호 교수가 강좌를 진행한다. 선착순 20명 모집. (02)901-5426

비만·혈당·혈압 무료측정

서울 강서구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이마트 가양점에서 비만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비만도 측정, 혈당검사, 혈압측정, 혈액형 검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비만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02)657-0131

초중생 체지방·간기능 검진

안산시 보건소는 내년 2월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비만어린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고대안산병원 소아과 외래로 진행되며, 초등학교 3~6년생과 중학교 1~2년생에게 혈압·체지방 측정, 간기능, 혈당, 복부초음파를 통한 지방간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진을 해 준다.(031)412-5096



통증 부위 자극 고통 덜어줘

건강봉

클릭 !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건강봉은 생활의학을 추구하는 제3의학연구소가 개발한 물리치료 기구로, 통증이 있는 곳을 자극해 통증을 해소해 준다.

은행나무로 만들었으며 값은 1만6천원(3종 1세트). 홈페이지(www.ggmanager.com)를 통해 자세한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엄마,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왜 나는 앉아서 오줌 누고 오빠는 서서 눠요?"

아이가 성(性)에 관한 질문을 할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별걸 다 물어본다"거나 "크면 알게 돼"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기 쉽다. 몸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는 유아기의 성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몸에 대한 호기심 커지는 유아기

성교육 어떻게 하나

아우성센터 사이버상담팀장 **김현숙씨** 강의



일러스트/최정근 jkchoi@buddhapia.com

12일 서울시립 구로청소년수련관에서는 '유아들의 눈으로 본 성-자녀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은 이렇게'를 주제로 한 강의가 열렸다. 아우성센터 사이버 상담팀장 김현숙 씨가 진행한 이번 강의에는 40여 명의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참석해 유아 성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풀었다.

김현숙 씨는 "생식기를 가리킬 때 정확한 명칭을 쓰는 것이 유아 성교육의 첫 단계"라고 말한다. 6~7세가 되면 '음경', '고환', '음순', '자궁' 등 올바른 명칭을 사용하고, 생식기가 얼마나 소중한 곳이며 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되는지 설명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부모는 아이가 장난스럽게 반응하거나 부끄럽게 느끼지 않도록 진지하면서도 자연스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너무 장황하거나 전문적인 설명은 아이가 알아듣지 못할뿐더러 불필요한 호기심을 키워줄 수도 있다. 아이들이 이 시기 배우는 것은 복잡한 성지식이 아니라, 성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 씨는 "부모가 자녀의 질문에 쭈뼛거리거나 부끄러워하면 아이는 성을 감춰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점점 물어보지 않게 된다"며 "아이들이 병원놀이를 하며 친구의 팬티를 벗겨본다든지 몸을 만지며 주사 놓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놀이를 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럴 때는 부모가 함께 놀거나 문을 열어두고 항상 부모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 *생식기의 올바른 명칭 사용하는 것이 첫단계*
>
> *질문받고 부끄러워하면 성을 감추는 것으로 생각*
>
> *아이들이 자위행위 할땐 놀이로 관심 돌려야*

아이가 임신과 출산에 대해 질문할 때는 부모가 직접 설명을 해주거나 유아 성교육에 관한 책을 함께 읽으며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엄마가 알을 낳았대>(보림)나 <아기는 어떻게 태어났을까>(다섯수레), <엄마,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달라요>(사계절) 등의 책이 도움이 된다.

유아 성상담센터에 부모들이 상담신청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아이의 자위행위다. 김 씨는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은 감각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하며 성기를 만지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라며 "흔히 만 6살이 지나면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면서 서서히 사라진다"고 말한다. 다만 요충이 있다든지 기저귀 발진 등으로 성기 부위를 긁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또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등 정신적 원인이나 너무 꽉 끼는 바지 등 육체적 원인 때문에 비롯된 행위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자위활동을 막기 위해선 콜라주나 찰흙놀이 등 손으로 주무를 수 있는 놀이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아이와 다양하게 놀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늘어나는 유아 성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부모는 평소 아이에게 다른 사람이 몸을 함부로 만질 때 '싫다'고 말하는 것을 가르치고, 성폭행을 당했을 때 부모에게 꼭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 또 남자아이에게는 남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행복한 황혼

◆건강강좌=부산대병원과 부산KBS는 27일 오후 2시 부산방송국 공개홀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장수'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 부산대 신경과 박규현 교수가 말하는 '두뇌 건강의 비법'을 알아본다.(051)240-7786.

◆건강상담=서울노인복지센터는 27일 오전 10시 양방진료실에서 대장 항문 질환에 관한 건강 상담을 실시한다. 대항병원 의료진이 자원봉사를 한다.(02)739-9504

◆어르신 문화예술제=서울 은평노인복지관은 26~28일 오후 1시 복지관에서 어르신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고전무용, 경기민요, 댄스, 기타연주, 하모니카 연주, 탈춤, 시 낭송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또 28일까지 오전 9시부터 어린이와 노인의 통합작품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02)385-1351

◆요리 강좌=능인복지관은 2003년 1월 8일~2월 12일 매주 수요일 1시 복지관에서 스테미너 음식 만들기 요리 강좌를 마련한다. 재료비는 회당 1만원.(02)571-2988

◆노인 구직자 모집=화성전선은 60세 전후 남자 노인을 대상으로 생산 보조원 4명을 모집한다. 일주일씩 주야 교대 근무, 숙식 제공. 월 급여는 1백만원.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 2통.(02)851-6652

행복꼭지

딸 시집보내듯 꽃 선물하는 법

흔하면서도 질리지 않는 선물이 꽃 선물이다. 꽃 선물을 많이 하면 다음 세상에 예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의미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개업 집 앞의 죽 늘어선 화환은 오히려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 의례성, 겉치레, 쓰레기 만들기 등. 개인이 주고받는 꽃 선물에도 못 마땅한 구석이 많다. 꽃보다 더 화려한 포장지로 덕지덕지 감싼 꽃은 추해 보이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이런 꽃 선물은 어떨까. 봄부터 국화를 길러 꽃망울이 맺힐 쯤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다. 그것이 어렵다면 키우기 쉬운 채송화 같은 것도 좋겠지. 아마도 그 때의 기분은 곱게 기른 딸 시집보내는 듯한 심정이 아닐까 싶다. 또 다른 방법으로, 손수 가꾼 혹은 여행길에서 만난 예쁜 꽃을 사진에 담아서 보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꽃을 기르고, 그 꽃을 누군가에게 보낸다는 것. 그 행위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꽃을 닮을 수 있을 것 같다.

소설가 남지심이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갈림길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30대 후반의 한 부인이 저를 찾아 왔습니다. 현실적인 가치와 종교적인 가치 사이에서 늘 갈등을 빚고 있다는 부인은, 그 갈등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문제일 때는 더욱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하면서 저에게 조언을 청했습니다.

어머니의 강요로 유치원 다닐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는 부인은 '경쟁에서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라는 등식에 묶여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는 피아노 경연대회에 나가 최고의 상을 타는 일을 최고의 가치 있는 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녀가 가치의 전환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만나고부터였답니다. 새로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 반에 들어와서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자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각종 직업을 대면서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대답했답니다. 부인도 세발 다가가고 있었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교와 인연을 맺은 부인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불교 동아리에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한 남학생을 만나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행복보다는 인류의 행복을 고민하는 남학생에게 반한 부인은, 개인의 행복에 탐착하는 사람은 물론 세속적인 가치에 탐착하는 사람을 봐도 마음속으로 경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성불과 중생제도를 실천해 가는 보살의 삶을 꼭 살리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높은 이상 속에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현실은 자신들이 꿈꾸던 이상과는 너무 달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상주의자인 남편은 이 직장 저 직장을 전전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못했고,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낳은 자신은 아이들 우유 걱정을 해야 할 만큼 생활에 쪼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피아노 학원을 차리게 되었는데 자신한테 피아노 다섯 대를 사주고 돌아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눈시울

높은 현실의 벽…佛法대로 살면 최선

계적인 명성을 날리는 피아니스트의 모습을 머리속으로 그리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일이야 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있었답니다. 왁자지껄 떠들던 학생들이 입을 다물고 잠잠해지자 선생님은 미소 띤 얼굴로 학생들을 둘러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일과 세상 사람들이 완성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시더랍니다.

그 후 담임선생님은 일요일이면 학생들을 데리고 등산을 같이 다니셨다고 합니다. 주로 서울 근교에 있는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청계산 관악산 같은 산들로 등산을 가면 선생님은 산에 있는 절에 가서 꼭 점심밥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식사 후에는 스님이 계신 방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차도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산사의 정취가 가득 배어있는 방에서 학생들은 차를 마시면서 선생님과 스님이 나누는 법담을 듣게 되었는데, 그렇게 귀 동냥으로 들은 법담 덕분에 학생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불교 속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었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교와 인연을 맺은 부인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불교 동아리에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한 남학생을 만나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행복보다는 인류의 행복을 고민하는 남학생에게 반한 부인은, 개인의 행복에 탐착하는 사람은 물론 세속적인 가치에 탐착하는 사람을 봐도 마음속으로 경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성불과 중생제도를 실천해 가는 보살의 삶을 꼭 살리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높은 이상 속에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현실은 자신들이 꿈꾸던 이상과는 너무 달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상주의자인 남편은 이 직장 저 직장을 전전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못했고,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낳은 자신은 아이들 우유 걱정을 해야 할 만큼 생활에 쪼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피아노 학원을 차리게 되었는데 자신한테 피아노 다섯 대를 사주고 돌아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 자신도 아이들 교육을 걱정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는데 아이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시켜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표현되는 보살의 삶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초라하게 위축되어 가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자식들한테 보살의 삶을 살도록 교육시킬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질문을 받은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한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갈림길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모를 때는 이정표를 보고 가게 되죠. 이정표대로 가다보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인생도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길을 제시해주신 분이 부처님이시니까 그 분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사는 것이 궁극에 이르는 최선이겠지요. 최선의 길을 안다면 그 길을 가도록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化緣 (02)704-3577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해주시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믿어야

청주에 계시는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돼서 감명 깊습니다. 우리가 왜 자기 뿌리의 근거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것을 잠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청주에 오니까 더러더러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생무지인 분들도 많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나무로 비유를 하죠. 여러분 보실 때에 갖가지의 나무들이 모습은 다 다르지마는 그 뿌리는 다 같습니다. 그렇죠? 저 나무들 뿌리가 말입니다. 꽃나무든 또는 버드나무든 소나무든 간에 모두 그 뿌리를 의지해서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잎사귀 하나하나도 그 뿌리가 아니라면 살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사람도 역시 자기를 끌고다니는 자기 생명의 근본, 뿌리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움죽거리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어떻게 믿느냐 하면, 형상을 믿습니다. '형상을 믿고' 하는 건 이름과 상대를 두고서 기도하는 방식으로 나간다 이겁니다. 달마대사가 양무제더러 아무리 스님네들한테 옷과 음식을 공양 올리고, 절을 지어서 보시한다 해도 공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복이라고 그러느냐? 내 나무 내 뿌리는, 내 뿌리에서 정맥 동맥이 상통하듯 그렇게 돌아갑니다. 나무가 위에서는 공기와 태양과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아래로 내려보내고, 아래서는 땅 지기와 훰분과 또는 황분과 수분을 위로 올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한쪽만 있어 가지고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한쪽만 가지고 사시는 겁니다, 물질세계의 한쪽만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세계 50%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정신세계 50%가 부족하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동맥이 있는데 정맥이 없다거나 정맥은 있는데 동맥이 없다거나 한다면 아예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죠.

그렇듯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내 뿌리를 믿어야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내 뿌리를 믿지 않고 딴 나무가 울창하다고 해서 그 나무를 보고 '저 나무가 저렇게 큰데 나에게 에너지를 좀 주었으면! 나를 잘 되게 했으면!' 하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복입니다. 그 나무에서 내 나무로 뿌리로 에너지가 올 수 없거든요.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또 딴 나무 뿌리가 이쪽 나무를 도와주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이웃에서 음식을 먹고 싶어하면 만들어서 조금 줄 지언정, 복은 조금 있을지언정 공덕은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그 뜻을 자세히 들으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이 몸을 가지고 한 훰 나는 건데 그 한 훰 동안에 어떻게 해야 옳으냐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복으로 하는 건 이익이 하나도 없고, 때로는 주변 동네에서 가난하면은 쌀이나 몇 됫박 얻어먹을 뿐이지 내가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서 내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무는 내 뿌리를 믿고 내 주인공의 뿌리만이 나를 이끌어줄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줄 수 있고, 우리 식구를 다 밝게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은 우리 가정 전체에 불이 켜져서 모든 식구가 다 밝게 살 수 있다 하는 거를 명심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내면에, 여러분 내면에 지금 생명체들이 아주 가득 차있습니다. 가득 차있는데 그 가득 차있는 생명체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한 부분만 파워가 일어나도 그 집합소는 무너져요. 이게 집합소거든요, 나의 집합소! 그리고 내가 나를 다스려서 이끌어 가는 선장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몸 속에 있는 모든 의식들이 과거로부터 생긴 건데 그 업식들이 아니었으면 또 태어나지도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번뇌다, 의식들이 모두 마구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못 되지요. 그 악업 선업 업식들이 없었더라면 내 영혼이 정자 난자를 빌어서 이 세상에 출현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빠도 나쁘다고 할 수가 없고 좋아도 좋다고 할 수가 없는 진리죠. 알고 보면 그렇게 묘한 법입니다. 습관적으로 나쁜 거를 나쁘다고 하지 않는 것이 넓은 마음을 구성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충 요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점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점안식을 했는데 왜 점안식을 또 하느냐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눈에도 속눈이 있고 겉눈이 있습니다. 귀도 안귀가 있고 겉귀가 있습니다. 과거에 살던 나의 자성 부(父)와 현재의 나가 있습니다. 현실에 사는 자(子)와 둘이 아니게 눈이 밝아져야 속눈이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세계 50%를 왕창 내가 간파하려면 딱 일체제불과 여기 계신 우리 스님네들의 마음과 첨부돼서 종합해서 한마음으로 눈 없는 눈, 귀 없는 귀, 발 없는 발, 손 없는 손,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그 자체를 그대로 갖다가 전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전달해 놓으면은, 꽃에도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면 아주 이쁘게 자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아휴! 저건 별로야! 보기 싫어.' 하면은 빨리 시듭니다, 꽃도.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이 눈이 밝고 귀가 뜨이고, 발 없는 발로 손 없는 손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음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창조력을 위해서 이끌어주는 스님네들이 환희심을 가지고서 해나가는 그 마음이 저 부처님한테 다 실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때와 달리 저 부처님과 주인공 뿌리, 그와 둘이 아니게 끌어 잡아 다녀서 내 주인공에다 놓고 삼서 얘기도 듣고 토론도 하시고 이러면서 마음의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상이지마는 하늘이나 땅이나 천지가 둘이 아니에요. 모습은 하늘이다 땅이다 하지만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아닌 가운데 인간이 있더라, 그 인간이 없으면 천지는 해뭘 합니까? 인간이 없는데 천지가 있으며 천지가 없는데 인간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둘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저 부처님이 아주 여러분을 그저 오기만 하면 불에 태워줄 겁니다, 애고를 말입니다. 하하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사를 지내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부처님께서 공양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공양 한 그릇을 올리고, 공양을 올릴 때에 일체제불과 일체중생들이 다 한꺼번에 하나로 드십니다. 부처님이 한 그릇 자리에 한자리 할 수 밖에요. 그런데 차려놓은 상에다가 몇 알갱이 차려놓은 고것만 보고서 한다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마음
항상 둘 아니게 통하나
모르고 그릇 없어 담지 못해

우리 인간은 지금 어디에서 사느냐? 물주머니에서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어항 속의 붕어를 보면은 '어이, 너희들은 나가지 못해서 얼마나 그렇겠느냐?' 하지마는 물 속에서 사는, 어항 속에서 사는 고기들은 그 나름대로 또 살아요, 그대로죠. 인간은 복잡하게 그거를 보지마는 붕어들은 그 나름대로 자기한테 주어지는 대로 살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대로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사람도 역시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할 때 어항 속에 있는 붕어를 볼 때는 자기를 생각 못 합니다. 어항 속의 붕어만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자기가 지금 어항 속에 갇혀 있다는 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거죠. 원인이 그거예요.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중에 있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재하면서 살아야만 하겠기에, 그리고 우리가 어항 속에서 발을 뽑아야 하겠기에, 세세생생에 그 애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사람으로 됐다가 짐승으로 됐다가, 독사로 됐다가 개로 됐다가, 돼지로 됐다가 이렇게 반복돼서 돌아가는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겠기에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도 모든 거는 과거의 네가 저지른 거니까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 데다가, 입력이 돼서 현실로 팔자 운명 애고, 유전성 · 영계성 · 업보성 · 인과성이 나오는 거를 거기다가 되놓으면서 하는 소립니다. '거기서 저지른 거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 하고 거기다가 다 놨을 때에, '너만이 이끌어 갈 수 있어!' 하고 다 놨을 때에 바로 되입력이 돼서 앞서 입력이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침착하게 잘 들으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 제사라는 것도 그렇게 간편하게 말 한마디지마는 엄청난 차이가, 영혼들에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스님! 제사상을 차리지 않고 그냥 지내주세요." 그러기도 하죠. 차리지 않긴 뭘 차리지 않아! 본래 그냥 세상이 모두 차려져 있는 건데. 하하하. 아, 세상만사가 다 차려져 있고, 그 뭔가? 물건 파는 데 있죠? 그런데 가면 물건이 가질 거 못 가질 거 할 것 없이 다 있고, 이 세상 천지 우주세계에 전체가 색색가지로 늘어져 있는데 차리지 않긴 뭘 차리지 않아요. 아주 너무나 대대적으로 차린 거죠. 대대적으로 차린 거를 잘 알아야 자기 영혼의 조상들을 대대적으로 천가를 시키는 거죠.

이런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사람이 머리가 돌아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막 두들겨 패고, 뭐 영들이 셋씩 넷씩, 작은 어머니 큰어머니 할 것 없이 다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냥 막 두들겨 패고 야단법석이 났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 미꾸라지 새끼처럼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공부들을 안 해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한방씩 줬고 마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져 팽개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 맛을 모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들은 공부를 잘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공부라는 것이 뭔지 그 사람네들이 모르고 덤빈 거거든요.

그 랬 는 데 그 사람이 정성을 드리려고 물건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 물건을 거기 와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줬죠. 다 나누어줬으니 길길이 펄펄 뛸 수밖에 없죠. 모르는 사람이니 그럴 수 밖에요. 대접 요만한, 프라스틱인가 뭐 그거에 다 담아서 죄 나누어주고는, '야! 오늘 시식을 잠 잘 지냈다!' 아, 이러고 나는 웃고 있는데 아, 그 사람은 그냥 펄펄 뛰고 그냥 야단법석이 났어요, 지서에서 불러온다고 하면서 야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불러오거나 말거나, 나는 지금 시식을 잘 지내서 좋구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주소를 하나 얘기를 하길 하나, 뭐 염불을 하나 해주길 하나 아무것도 없이 아니 다 노놔서들 먹어 치워버리고선 어떻게 재사를 지냈느냐는 거죠.

그리고도 어머니를 북 패듯이 하고 그런다고 해서 물 한 그릇을 떠다 놓은 데다가 그 꽃을 꽂아 놨었어요. 그랬는데 그 물 한 그릇에다 꽃 한 송이 꽂아서 그 물을 쓱 내밀어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이렇게 보더니 '어머나! 여기가 천당이구나. 여기가 극락이구나. 이렇게 좋을 데가 있는 줄을 몰랐구나!' 이러면서, '나는 여기 들어가서 살 거야!' 하면서 그냥 비비고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아직까지도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 생각하면 어떤 때는요, 오히려 똑똑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주 기가 막혀요. 아주 똑똑하다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미친 짓을 해놓고는 나한테 와서는, "그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이래요. 번연히 그 돈이 다 들어가서 사기를 당할 줄 알면서도 갖다 넣고는 다 사기를 당해 가지고는 집도 절도 없이 다 망하게 생겼다고 와서 그래요. 그러니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합니까, 그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거든요. 영리하고 똑똑하고… 우연히가 없다,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제사를 지내는 그 뜻을 대충 아시겠죠? 한 상만 차려놓으면 한 상 거리 밖에 안되지만 전체를 준다면 내 것 아닌 게 없고, 내 자리 아닌 게 없고, 그 조상들의 혼백이 어디 아니 가는 데가 없이 갈 수 있고, 어떤 자리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나 아님이 없는 그 자리에 정말이지 승천이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옹졸하게 여기 스님네가 제사를 지내는데, 이렇게 지내주느니 저렇게 지내주느니 차려주지 않느니 이런 소리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차려준다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나물밥 찌게를 먹지, 승천해 있는 사람이 왜 찌게 밥을 먹습니까? 먹지 않아도 그냥

☞26면으로 계속

충만한 자기의 능력


그림 · 최주현

따구리가 나무를 뚫듯이 그저 자문자답하면서 언제든지, 내가 한번 움죽거리는 거나 생각하는 거, 모두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뚱이 속의 모든 생명체 의식들이 먹는 것도 혼자 먹지 않게 하고, 하는 것도 혼자 하지 않게 하고, 말하는 것도 혼자 말하는 게 아니고, 혼자 만나는 게 아니고,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혼자 버는 게 아니고, 전체가 혼자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 속에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혼자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생(共生)이면서 공심(共心)이에요. 그리고 공용(共用) · 공체(共體) · 공식화(共食化) 하고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것이 없으며, 병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병고가 없으며, 업이 있다고 해도 업이 없으며, 불을 자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많은 것이 공동분담으로 쉴 사이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쉬었다가 가다가 쉬었다가 가다가 이래야 그게 불을 자리가 있는데 쉴 사이 없이 돌아가거든요. 한찰나에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 이 소립니다.

습 · 착에 매달리거나
애정 · 욕심에 끄달리지 말고
넓고 지혜로운 마음 가져야

그러니까 사람이 너그럽고 넓고 크게 좀더 지혜롭게 마음을 내야 하는데 마음은 항상 살아오던 습에 매달리고 착에 매달리고, 애정이나 사랑에 끄달리고, 욕심, 악의적인 모든 것을 다 한데 합쳐서 여러분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 거기에 그만 막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똑같이 기복으로만 이끌어가니, 옛날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은 많지만 그 절에 사람이 있어야 부처가 있느니라. 장님이 장님을 끌고 가다가는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지만, 눈뜬 사람이 장님을 끌고 갈 때는 절대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느니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침착하게 잘 생각하셔서 청주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얘기를 해야만이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 점안식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체 부처님의 마음은 항상 여러분 마음으로 통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통하는 걸 모르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릇도 없고 그래서 받아지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배를 올리든지 일배를 올리든지, 급하면 일배를 올려도 삼배가 되는 것이고, 급하면은 일정례, 급하지 않으면 칠정례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지 못박아 놓은 게 아니다 이 소립니다. 이 세상 모두가 그래요. 모두 먹고사는 것도 고정되게 못박아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때에는 이거를 해먹기도 하고 저 때에는 저거를 해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국수도 먹고 어떤 때는 밥을 먹고 어떤 때는 잡곡도 먹고, 어떤 걸 고정되게 먹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마음 씀씀이도 역시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점안식 얘기를 하다가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간편하고 부처님을 한마음으로 끌어 잡아당겨서 내 마음으로 통하게끔 하나로 놓고 절을 하고 '주인공,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친근히, 일배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신다면 아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 자기가 생각하고 움죽거려서 행을 하시고 체험을 하시고 그 맛을 본다면 보이지 않는 데서 저렇게 묘하고 광대무변한 법이 어디 있을까! 하고 정말 한나절을 울어도 시원치 않을 만큼 그렇게 즐거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인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다른 지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구경을 하시고 또 본원에 오셔서 그 한 그릇을 토해서 다시 중생들에 내리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받고 또 내리고, 받고 또 내리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표현하기를, 바다를 삼키고 바다를 한 찰나에 삼켰다가 한 찰나에 토해서 여러 중생들한테 자비를 베푸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는 동맥이 있으면 정맥이 있고 정맥이 있으면 동맥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공양 한 그릇을 가지고도, 공양을 올리는 그 한 그릇을 가지고도 이 세상 천지를 다 먹이고도 그 한 그릇은 되 남는 겁니다. 그렇게 광대무변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사를 지낼 때 내가 참쌀로 떡 한 그릇을 해서 놓고 향을 사르고, 청수를 올리고, 꽃이라도 놓고서 그냥 지내라 이랬습니다. 그건 왜냐? 영령들이 들어오면은 벌써 혼백이 혼백을 봅니다. 마음을 본단 말입니다. 근데 스님들이 상에다가 합빡 차려놓고는 얼마를 차려놨는데, 얼마치를 물건을 샀다는 게 아주 머리에 배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상 차려놓고는, 이거는 얼마를 들여서 물건을 사 가지고 이렇게 상을 차렸다는 거를 생각하는 그것이, 영령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 들어와서 고것만 알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납득이 가십니까? 그래서 고것만 납득이 돼 가지고 고 한 상 차려 놓은 것만 드리는, 응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무엇입니까? 귀신입니까? 음식만 먹으러 다니게 말입니다.

그러나 떡 한 그릇이라는 건 그냥 떡이 아닙니다. 전체를 먹이고도 되남을 마음의 공양입니다, 공양! 그래서 공심으로서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떡을 차려놓고서 재사를 지내면은 그 영령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스님의 마음에 착 들어와서 아래 위도 터졌고 사방도 터졌고, 전체가 내 것 아닌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혼백들이 들어와 보니까 천상세계가 물질세계, 정신세계가 둘이 아니게 그냥 확 터져 버렸거든요. 그러니 부처님의 한량없는 마음이 항상 둘 아니게 통하나 모르고 그릇 없어 담지 못해 우주세계에 전체가 색색가지로 늘어져 있는데 차리지 않긴 뭘 차리지 않아요. 아주 너무나 대대적으로 차린 거죠. 대대적으로 차린 거를 잘 알아야 자기 영혼의 조상들을 대대적으로 천가를 시키는 거죠.

이런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사람이 머리가 돌아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막 두들겨 패고, 뭐 영들이 셋씩 넷씩, 작은 어머니 큰어머니 할 것 없이 다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냥 막 두들겨 패고 야단법석이 났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 미꾸라지 새끼처럼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공부들을 안 해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한방씩 줬고 마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져 팽개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 맛을 모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들은 공부를 잘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공부라는 것이 뭔지 그 사람네들이 모르고 덤빈 거거든요.

그 랬 는 데 그 사람이 정성을 드리려고 물건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 물건을 거기 와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줬죠. 다 나누어줬으니 길길이 펄펄 뛸 수밖에 없죠. 모르는 사람이니 그럴 수 밖에요. 대접 요만한, 프라스틱인가 뭐 그거에 다 담아서 죄 나누어주고는, '야! 오늘 시식을 잠 잘 지냈다!' 아, 이러고 나는 웃고 있는데 아, 그 사람은 그냥 펄펄 뛰고 그냥 야단법석이 났어요, 지서에서 불러온다고 하면서 야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불러오거나 말거나, 나는 지금 시식을 잘 지내서 좋구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주소를 하나 얘기를 하길 하나, 뭐 염불을 하나 해주길 하나 아무것도 없이 아니 다 노놔서들 먹어 치워버리고선 어떻게 재사를 지냈느냐는 거죠.

그리고도 어머니를 북 패듯이 하고 그런다고 해서 물 한 그릇을 떠다 놓은 데다가 그 꽃을 꽂아 놨었어요. 그랬는데 그 물 한 그릇에다 꽃 한 송이 꽂아서 그 물을 쓱 내밀어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이렇게 보더니 '어머나! 여기가 천당이구나. 여기가 극락이구나. 이렇게 좋을 데가 있는 줄을 몰랐구나!' 이러면서, '나는 여기 들어가서 살 거야!' 하면서 그냥 비비고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아직까지도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 생각하면 어떤 때는요, 오히려 똑똑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주 기가 막혀요. 아주 똑똑하다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미친 짓을 해놓고는 나한테 와서는, "그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이래요. 번연히 그 돈이 다 들어가서 사기를 당할 줄 알면서도 갖다 넣고는 다 사기를 당해 가지고는 집도 절도 없이 다 망하게 생겼다고 와서 그래요. 그러니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합니까, 그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거든요. 영리하고 똑똑하고… 우연히가 없다,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제사를 지내는 그 뜻을 대충 아시겠죠? 한 상만 차려놓으면 한 상 거리 밖에 안되지만 전체를 준다면 내 것 아닌 게 없고, 내 자리 아닌 게 없고, 그 조상들의 혼백이 어디 아니 가는 데가 없이 갈 수 있고, 어떤 자리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나 아님이 없는 그 자리에 정말이지 승천이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옹졸하게 여기 스님네가 제사를 지내는데, 이렇게 지내주느니 저렇게 지내주느니 차려주지 않느니 이런 소리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차려준다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나물밥 찌게를 먹지, 승천해 있는 사람이 왜 찌게 밥을 먹습니까? 먹지 않아도 그냥

☞26면으로 계속

☞25면에서 계속

“얼마나 죄 지었길래…” 한탄 말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재료 삼아야

그대로 감지하고 바다를 마신 거와 같이 또 바다를 토함과 같이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말입니다.

또 내가 뭐를 말씀드리고자 했나?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하하, 뭐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여기 청주에서 아주 요긴할 거, 요긴하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시급한 거는 아는 게 시급한 게 아니라 실천을 하는 게 시급한 겁니다. 지금 무엇을 갖다가 쌓아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배고프면 먹어야 하니까, 당장 배고프면 당장 먹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겁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고정된 게 없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먹어야,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어느 거 하나 고정된 게 없이 그저 용도에 따라서 자꾸자꾸 닥치니까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야 할 그런 용기와 믿음과 또는 지혜가 모두 쭘부돼야 되겠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첫째는 믿음이 제일이죠. 자기 주인공의 뿌리를 진짜로 믿고 ‘너만이 나를 이끌어줄 수 있다, 너만이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다. 너만이 애고를 없앨 수 있어, 너만이 병고를 낫게 해서 튼튼하게 너 심부름을 잘하게 할 수 있어.’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해주시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자기 몸뚱이와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스스로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도리를 세워서 해나가십시오.

그리고 한 마디 더 해야겠군요. 천주교나 불교의 스님네들이나 예전부터 묵언을 하고 많이 갑니다. 3년을 묵언을 하고 1년을 묵언을 하고 몇 달을 묵언 하기도 하고 한철 묵언 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위에 묵언이라는 게 있으면 묵언 아닌 게 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찰나찰나 시공을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데 우리 발자국이 돌아 발자국을, 발을 떼고 올 때에 짊어지지도 않고 또는 거기에 애착도 없고 그냥 그대로 걸어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을 하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말을 했어도 합이 없고 아니 했어도 아니한 게 없고, 해도 한 게 없는데 묵언을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또 거기에 걸리는 거죠. 이거는 모두가 묵언을 한대는 데서 걸리고 안 한대는 데서 걸리고, 이러는 그 가운데 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고정되지 않고 촬나촬나에 그 모두가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한 것이 없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혼자 한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한 게 없죠.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묵언이란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죠.

그러니 모두가 그 도리를 알려면 그저 딱따구리가 나무통을 뚫듯이 그냥 무조건, 무조건이죠. ‘있느냐 없느냐! 아리송하다! 못 믿는다! 이걸 더 캐야겠다!’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어린애가 넘어질까 두렵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어쩔까 해서 못 뜁니까? 그냥 겉음마 뛰는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기만 한단 말입니다. 벌써 뛰면은 애들이니까 뒤에 보호자가 있거든요. 보호자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어린애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뛰는 거처럼 해야 된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공부할 당시에 공부라고는 할 것 없지만, 생활이 공부이니까 말입니다. 어느 땐가 강을 사이에다 두고선 이쪽 군인하고 저쪽 군인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그게, 싸움이 붙었는데 말입니다. 이쪽 사람이 이쪽을 죽이고, 6.25때 강을 끼고 그렇듯이, 그것이 6.25때 봐서 그런지 그걸로다가 비유해서 나오는데 말입니다, 스크린처럼 나오는데 말입니다. 그냥 부처님 한 마음인데 어떻게 싸우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순간적 생각에 그냥 하나도 없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둥그러니 나 하나만서 있는데 내가 얼마나 조그맣던지 요만한 게 그래도 행전은 치고, 하하! 요만한 게 키 하나 긴 거를 질질질 끌고서 그냥 혼자 거길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어-, 그렇구나! 싸운다, 싸우지 않는다가 바로 양면이 없는 자리구나.’ 하는 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양면이 없는 자리, 즉 양면이 있으니깐 그 가운데가 있듯이 우리는 저 소켓트 끼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그것이 있으니깐 그냥 불이 들어올 뿐이죠? 그래서 그 작업이, 우리들 공부하는 작업이 그렇게 소켓트 끼는 작업이에요. 둘이 아니게 그 소켓트가 맞게끔 믿고, 그냥 무조건 믿고 그냥 낄 수 있는 그 마음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불은 저절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모든 거를 내 마음 한마음 뿌리,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놓으면은 그냥 타버린 거와 같아요. 타버리는 거와 같고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버리는 거와 같죠, 모두가요.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내가 업이 있네, 무슨 번뇌 망상이 일어나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번뇌 망상이 공부할 수 있는 재료요, 또는 애고가 공부를 크게 할 수 있는 재료이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어휴! 죄를 내가 얼마나 지었기에 이렇게 고생을 하나.’ 하고 한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가 닥치는 것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재료구나!’ 생각하신다면 아주 널리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하실 거 없어요?

▲질문자1: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청주지원 신행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불자입니다. 저희들을 이 자리에 있게 이끌어주셨고, 저희들을 위해 이곳 지원 개원을 위해서 이렇게 혐소한 청주까지 왕림하시어 감로법을 베풀어주셔서 더욱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스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익혀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던 중에 한 가지 감사했던 점과 궁금한 점을 질문 올리겠습니다.

저는 전에는 몸이 약해서 자주 아팠습니다만 마음 공부를 하는 몽안 약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이 다시 왔습니다. 심한 오열과 열이 얼마나 심했던지 의식을 잃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직 주인공만 믿고 있었는데 정말 아주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순간에 아픔은 사라지고 어떤 일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었고, 산도 움직여보니 산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아프면서 그렇게 깊은 환희에 젖어본 적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웃으면서 나도 모를 눈물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감사 올립니다, 스님!

그리고 한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스님께서 법문하시는 중에, 함이 없이 하는 것과 여여하다는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시는 것을 들었으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여여하다는 것을 화두로 삼고 공부를 시작하던 중에 온 세상이 물보라 속에 물레방아가 돌고 큰 완력기 하나가 있어 그것을 힘껏 해 보려고 해도 안 되고, 힘을 안 들이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생각만 해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함이 없이 해보니 정말 너무나도 잘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여여하다는 것을 이해했고, 생활과 운동할 때 해보니 배 이상의 효과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공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끄달리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든든한 보호자 본래 있으니
> 어린애처럼 아무 생각 말고
> 그냥 앞으로 뛰어 가세요

▲스님: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잘 하십니다. 정말 여여함을 아시고 열심히 하십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그렇게 함이 없이 하는 도리를 아셔야 할 겁니다. 함이 없이 여러분이 하신다면 원수 질 일도 없고 또 착을 가지고 애탄기탄 하면서 착을 둘 필요도 없고, 하루살이로 사랑을 하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원력을 세워서 우리가 한찰나에, 사랑도 세세생생의 사랑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사랑이라야만이 진정한 정일 겁니다. 그러니 그냥 말로 아무리 열 마디 백 마디를 해봐도 아니 될 때 함이 없이 하는 도리를 아셔야 될 거니까, 여기 토요일 일요일마다 들리셔서 스님들하고 토론도 하시면서 또 비디오도 보시면서 법회도 하시고 이렇게 자꾸 폭을 넓혀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회장님도 뭐라고 할까, 넘버원이라고 그럴까? 허허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질문자2: 저도 여기 지원에 다니고 있는 신도입니다. 그런데 저도 하느라고 공부는 하고 있는데, 전에는 좀 잘되고 안 되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요번에 갑자기 췌장암 수술을 했어요. 한 달이 못 됐는데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애고가 닥쳐도 공부의 재료로 삼으라고 하시니까 더욱 즐겁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친견하기를 아주 원을 했었는데 이제야 친견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항암제를 맞으라고 해서 한번 맞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맞으라고 하네요, 굉장히 괴로워요. 그렇게 괴롭고 거진 10년 간을 항암제를 맞으라고 하니 너무너무 힘들 것 같고 해서 한번 스님한테 이렇게 여쭈어보는 겁니다.

▲스님: 항암제를 맞든 안 맞든 댁에서 상관할 일이 아니죠. 그 마음이 말입니다, 몸 속에 들은 그 생명체들이 전부 보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고, 내가 병이 걸렸다고 하면서 ‘내가, 내가’ 하다 보니까 당신 혼자만 고통을 받는데 혼자만 고통받지 않고 그 고통을 분담해서 ‘너만이 이 고통을 낫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모든 것을 통신을 보내면은 사대로 다 통신이 돼서 아프지 않고 걱정 없이, 그걸 맞으나 안 맞으나 괜찮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질문자2: 감사합니다!

▲스님: 그렇게 여러분이 자재할 수 있는 것을, 자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수화풍의 바탕으로서 광력이나 전력 · 자력 · 통신력을 충만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구 있는 것을 꺼내쓸 수 있게끔 하시라는 거죠.

▲질문자2: 입원하고 있는 중에도 수술하러 들어가면서도 주인공을 막 외치고 들어갔었는데, 그 고통은 좀 모르고 넘어갔어요.

▲스님: 허허허. 더 하셔야죠! 신호가 들어가도록 하세요.

▲질문자2: 아주 들어가면서도 그냥 주인공을 막 외치고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도 몰랐었어요. 하여간 감사합니다.

▲스님: 예! 그래서 건강하시도록 하세요. 한마음에서 심성의학이나 천체 물리학 또는 천문학, 철학 전체가 한마음에 달려 있는 거지, 한마음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죠. 이 공부하시는 데는 거짓이라는 건 없어요. 자기 마음이 알고 있고 자기 마음이 거짓으로 하면 그대로 그냥 그것뿐이니까요.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위 법문은 1993년 12월 12일 청주지원 개원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교 이래서 좋다

안수진 경희대 음악대학원 재학



독실한 불자집안에 태어난 나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몇 번 절에 갔고 불교에 대해 막연한 호기심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대학재학 시절 PC통신 불교동호회를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불교라는 종교보다는 사람이 좋아 불교동호회를 나가게 되었지만 점차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사찰을 참배하고 기도를 하면서 불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절에 가서도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 어색했는데 지금은 향을 사르며 삼배를 올리고 보시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느낄만큼 내 속에 불교라는 종교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에게 편안하고 마음의 안식을 준다. 또 어렵고 힘들때 부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힘이 생기는 것 같다. 특히 끊임없이 나 자신을 되 돌아보게 하고 외부의 집착에 연연하지 않게 만드는 것 같아 좋다. 내가 잘되어도 내탓이오, 못되어도 내탓이라는 생각이 남을 생각하는 자리이타의 마음과 나의 삶의 질은 높여주는 것 같다.

불교를 믿으면서 몇가지 아쉬움도 가지게 됐다. 젊은 기독교인들에 비해 불자들이 신행활동이나 기타 대 사회적인 활동에 소극적일 때 그런 마음이 커져만 갔다. 물론 종교적인 색채가 그런것도 있겠지만 우리 불교인, 특히 젊은 불자들이 더 활동적이고 불교에 대한 더 많은 애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자신의 소원을 빌게 마련이다. 그래서 나도 새해에는 조그마한 원을 세워 본다.

부처님! 새해에는 불교교양대학에 등록하여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하겠습니다. 또한 기회가 되는대로 지방의 명찰들을 참배하며 신앙심을 더욱 키우겠습니다.

부처님 생각만해도 힘 생겨

'교과서' 종교편향·불교왜곡 수두룩

(대웅전 뒤 스님 공부하는 강당있다?)

집필시 종교교사·전문가 참여 시켜야

사전예방·제도개선 등 적극 대응 필요

"절의 입구인 일주문을 지나 중문으로 들어가면 절에서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대웅전이다. – 중략 – 대부분의 절이 대웅전과 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웅전 뒤에는 스님이 공부하는 강당이 있다."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사회과 탐구> 31쪽에 나오는 박물관 견학과 문화재 답사 지문이다. 은석초등학교 김한기 선생님은 이 지문 가운데 '중문으로'는 사천왕문이나 금강문 등에 해당 하는 표현이 잘못되었고 '스님이 공부하는 강당'이 대웅전 뒤에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가람 배치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기술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이 펴낸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나타난 초·중·고등학교 불교관련 기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백서>(이하 <백서>)에는 종교편향적 내용이나 특정종교를 미화하는 내용이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되어 있다. 또 매 사례마다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대안도 명기하고 있다. 특히 <백서>의 내용들이 모두 종립학교 등에서 오랜 교직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이어서 더욱 가치가 있다는 평이다.

<백서> 집필에 참여한 현장 교사들은 교과서 편찬위에 종교(불교)지식을 구비한 교사 또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현재 발간되어 있는 교과서들이 대부분 서양 위주의 사관에 따라 기술되어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 교사를 상대로 교과서 편찬의 개정이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반영해야 하며 한국문화의 주요 근간인 불교문학과 불교 문화유산을 소개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백서>에서 분석한 교과서는 국어, 도덕, 국사, 사회, 철학 교과와 초등학교 주요 교과서, 그리고 수학 교과서 등이며 아직 개편이 안된 교과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계종은 이번 <백서> 발간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과서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번 <백서>에 다루어지지 않은 '교사 지도서'의 내용과 분석되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분석을 실시해 내년에 <백서 2>를 발간할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정한신 계장은 "교과서 불교관련 기술에 관한 분석은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바로잡는데 역점을 두었고 교육부에 이에 대한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며 "특히 앞으로 있을 종교편향 등도 사전 예방하자는 목적도 있을뿐만 아니라 법제도 개선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윤슬기 양 "골든벨을 울리다"

'진선여고 최고의 날' 만들어

평소 배운 참선으로 부담감 덜어

"정답은… '시학'입니다"

"와…"

아나운서가 정답을 발표하는 순간 윤슬기양은 속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 지난 15일 저녁 7시 10분 KBS 1TV가 방영한 '도전! 골든벨 진선여고 편'에서 30번째 골든벨의 주인공이 된 윤슬기 양. 최후의 1인으로 남아 나머지 문제를 풀때 많은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꼈지만 평소 심학시간(진각종 종립학교에만 있는 불교수업시간)에 배운 참선 등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슬기 양은 또 지난 16일 서울 등촌동 KBS 88체육관에서 녹화된 연말특집 2002 왕중왕전에서도 최후의 3인에 남아 학교의 명예를 드높였다.

골든벨의 주인공 윤슬기 양은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여서 수능시험 당일에는 어머니가 주신 108염주를 주머니속에 넣고 시험을 보았다.

슬기양은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도록 부처님이 한번 더 도와 주시길 바란다"며 수줍어 했다.

007 불상앞 러브신 삭제 요구

조계종, 불교 무시한 비상식적 행위 규정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는 17일 불상 앞 러브신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영화 '007 다이어나더데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문제장면 삭제를 요구했다.

16일 시사회 관람후 종교편향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영화 007 다이어나더데이에 대한 입장'에서 "아무런 개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상 앞에서 정사장면이 나오는 것은 예경의 대상인 불상을 소품화시키고 불교를 무시한 비상식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영화 장면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 '007 다이어나더데이'가 시종일관 폭력적이며 남북의 갈등을 조장하는 반평화적인 내용을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편위는 "불자들이 반평화적 반불교적 내용을 담은 이 영화를 보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피력했다. 이에 앞서 종편위는 4일 배급사인 21세기 폭스코리아에 질의서를 보냈고 6일 "불상이 보이는 허름한 외딴 가옥은 사찰이라고 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강지연 기자

명작 비디오 파일

분노의 질주



오디오 등 값비싼 고급 외제 전자제품 운송 컨테이너 트럭의 도난사고가 폭주족들에 의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경찰과 FBI는 사복경찰 브라이언을 폭주족으로 위장시켜 폭주족 틈으로 잠입하게 한다. 폭주족의 대부격인 도미닉 토레토에게 접근한 브라이언은 그의 신임을 얻어 폭주족 대열에 끼어든다.

도미닉의 양숙인 조니 트란은 계속 도미닉을 괴롭히고 조니의 차고에 잠입한 브라이언은 도난사고 장물들을 발견하게 된다. 경찰이 조니를 연행하지만 무혐의로 풀려나고 조니는 도미닉의 사주로 생각해 그의 동료를 살해한다.

2001년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분노의 질주'는 분노의 댓가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만든다. 트럭을 훔치고 살인까지 저지른 조니는 나중에 트럭에 치어 숨진다. 이같은 설정은 불자인 룹 코헨 감독이 영화 전반에 깔아놓은 카르마(業)의 복선. 감독 스스로 밝히듯 카르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직접적으로 시사한 장면이다.

<달범행경>에 의하면 부처님은 "흑업(黑業)에는 흑보(黑報)가, 백업(白業)에는 백보(白報)가, 흑백업에는 흑백보가 따르고, 불흑불백업에는 보가 없다"라고 설한다. 불흑불백의 업이란 인간의 의지적 작용이 아니기에 보가 없다라고 설하신 것.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도 의지가 깃들여 졌다면 그 과보에 대한 준비는 단단히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강지연 기자

담배를 끊읍시다

금연과 체중

미·후각 회복이 살찌는 원인

운동은 담배 잊도록 도와줘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는 담배를 끊으면 체중이 2~4㎏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체중이 느는 이유는 몸에서 담배 찌꺼기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에너지 소모가 줄어드는 것은 몸에 나쁜 증상이 아니다. 담배를 피울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하지만 담배를 끊으면서 에너지 대사가 안정된다.

담배를 끊으면 미각과 후각이 회복되기 때문에 식욕이 늘면서 예전보다 많이 먹는 것도 체중이 느는 원인중의 하나다. 특히 금연 후 담배대신 군것질을 많이 하는 것이 살이 찌는 주 요인이다.

금연중 체중증가를 막기위해서는 식사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운동은 담배를 잊을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아니라 긴장과 스트레스를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고 심폐기능이 좋아지는 것을 직접 확인할수 있다.

'우리는 선우' 총회 및 송년모임

(사)우리는 선우(이사장 박광서)는 7일 우리는 선우 법당에서 '2002년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을 갖고 박광서 이사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한편 신임이사로 이수복 상임이사 외 13명, 감사 2명을 추대했다. 또한 2003년 예산을 63,194만원으로 확정했다. 박광서 이사장은 "재가불교단체인 우리는 선우가 재가불자의 바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며 "회원들도 불교계뿐만아니라 세계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소감을 밝혔다.

'조계사' 어린이 겨울학교 개최

조계사 어린이회는 내년 1월 4일~5일까지 1박 2일동안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선재동자의 겨울여행'을 주제로한 겨울 불교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겨울불교학교는 한복입기, 우리차 마시기, 연·등만들기, 전통놀이, 새해 발원 등 밝히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참가신청은 조계사 어린이회로 직접 하면 된다.(02)733-9357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